

Monthly Gardenin

December 2013

가든인 12월호

가구독
송년 BIG EVENT
르메덴 무료이용권 2매 증정(10만원 상당)



Outdoor Garden

겨울 정원 아이템
새 모이통 만들기



Garden planner

벗집 부직포 이용
토양 & 식물 보온



Happy Christmas

크리스마스 트렌드
아이디어 트리 & 데코



CHECK LIST

- ✓ 식물 월동 관리
- ✓ 베란다 온도 체크
- ✓ 실내 공중 습도 유지
- ✓ 식물의 병해충 관리

따뜻한 날 마늘 물주기
양파 비닐 피복 · 김장담그기



Monthly Gardening

HOW TO GROW YOUR GARDEN

정원시공, 관리, 컨설팅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꽃은 우리나라 고급 경관 트렌드를 이끌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을 자연과 가깝게 아름답고, 쾌적한 고품질의 경관으로 창출합니다.

우리꽃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당신의 정원을 더욱 특별하고 가치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재탄생

단조로운 베란다, 쓸모없는 옥상이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유럽풍 키친정원으로, 내 아이의 생태 놀이터로 재탄생됩니다.

피곤한 일상에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힐링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정원의 품격

잘 가꾼 정원은 주택의 가치를 높입니다. 정원의 주제와 식물소재는 적당한지,

내 정원환경은 어떤지, 정원 소품 디스플레이 등 현재 정원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꽃의 식물들은 정원의 품격을 차별화 시킵니다.

시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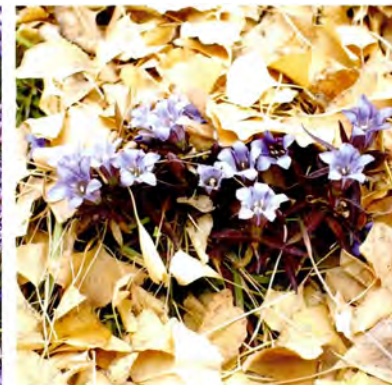


용담

Gentiana scabra var. buerg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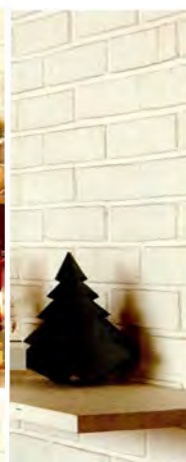
전지전능한 가상의 동물인 용의 쓸개에 비유한 이름에서와 같이 매우 쓰다는 식물이다. 일반적인 용담은 주로 8~9월에 핀다. 그런데 이 하늘용담은 키가 매우 작고 보라색의 많은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특히 식물의 꽃 생김새가 바람개비와 같이 생겨 밤에는 닫히고 따뜻한 낮 동안에는 활짝

피우게 된다. 카메라 조리개와 같은 원리인데 이런 방법은 많은 식물들에게서 보여진다. 특히 이른 봄이나 늦가을에 피는 식물들 혹은 장마기 때 꽃을 피우는 일부의 식물들에게서 볼 수 있다. 이들 모두 꽃을 보호해서 종족 번식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진화의 형태이다.



벽화수주식회사

031)634-0326
www.uriseed.com



Outdoor Garden

- 3 Cover story
- 6 이달의 야생화
겨울에 제멋을 더하는 꽃 그라스 외
- 8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여유로움을 더하는 겨울 정원의 미학
- 10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이달의 가든 관리
겨울 정원의 지침서 내한성지표
- 14 새들도 미식가
새들을 위한 최고의 밥상 한우

Veranda Garden

- 18 퀘럼의 이달의 베란다 관리
월동 관리 방심하면 식물이 죽어간다
- 20 난의 겨울 관리
동불습(冬不濕) 습한 것을 싫어한다
- 22 다육식물
같은 속 다른 모양의 신기한 다육 '크라슬라'
- 27 이노베이티브 가든 아이템
우리집 식물 주치의 Plant doctor
- 28 수경가든
건조한 겨울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는 식물 가습기
- 30 윤평섭 교수의 그것이 알고 싶다
테라리움에 대한 기원과 유래

Kitchen Garden

- 34 정성훈 농촌지도관의 텃밭채소 관리
월동 테크닉이 필요한 마늘과 양파
- 38 청소년 농부 프로젝트
배추 수확과 피날레
- 40 인완식 박사의 토종이야기
무가 아니라 배추였다 '강화순무'
- 44 겨울 채소 보관법
채소 상성하게 보관, 이것이 문제이다
- 46 차병진 교수의 식물의 병해충
병원균이 가장 좋아하는 토양은?

Special Theme I Happy christmas

- 48 크리스마스 꽃 포인세티아
류제가 공개하는 포인세티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관리 비법
- 50 크리스마스 트리용 생나무 BEST 5
나무 고르는 요령 및 구입 후 관리 방법
- 52 2013 크리스마스 데코 트렌드
따뜻한 울사 소재와 고급스러운 파스텔톤 컬러 유행
- 54 개성파들을 위한 난만의 트리 I
천연 재질을 이용한 자작나무 Hanging Tree
- 55 개성파들을 위한 난만의 트리 II
가을 전정 후 남은 가지 재활용 나뭇가지 트리
- 56 한샘이 제안하는 크리스마스 데코
내추럴 시리즈의 고급스러운 VS 브론즈필 시리즈의 화려함
- 58 Happy Green Christmas FOOD
윤자영 요리연구가의 최고기 야채 볶음

Special Theme II 우리씨드 Adieu 2013

- 60 2013 우리씨드 지식나눔축제
빛물을 활용한 New 옥상정원모듈 '에코마루시스템'
- 62 커뮤니티 정원형 가든센터 가든조아
소통 문화의 공간 가든센터의 New 패러다임
- 66 도시원예아카데미
도시원예 수업의 최강자로 군림
- 69 결국한 자태 국화분재미의 재발견
국화분재전시회, 향에 취하고 그 자태에 빠지다

Garden Tour & Story

- 72 손관화 교수의 겨울 정원
겨울에도 퇴색하지 않는 몇 '유럽의 겨울 정원'
- 76 황환주 교수의 세계 식물원
건조지역의 한계를 극복한 영국 하이드홀 왕립식물원
- 80 Gardening World Cup Flower Show
김재용 원장, 세계 거성들의 디자인을 보다
- 84 이명호 교감의 산에서 만난 꽃 이야기
개미떼처럼 바글바글 개미취
- 86 박 대통령이 머물다 간 야생화 산책길
추풍령휴게소의 근혜숲
- 88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우정아 디자이너가 만난 권재희 씨의 그림 있는 정원
- 92 깔깔대며의 쫄쫄딱 세상
다육에 빠져 도예가가 되다
- 94 가락시장 폐목재 상자텃밭
소외된 이웃에게 웃음 기부천사 되다

Gardening Information

- 96 정승환 기자의 Plants Science
단풍이 드는 이유
- 100 세계 트렌드 오가닉 가드닝
외관과 실용성 추구 가든 베드형 후글컬처
- 103 Q&A 전문가에게 답을 구하다
숯에 기우는 풍란이 죽었어요 외
- 106 Gardening NEWS
우리씨드 박공영 회장 대통령 표창 수상 외
- 107 BOOKS
유기농은 꼭 이루어진다 외

12

December
2013



▲ 유카: 유카는 주로 남부 수종으로 알고 있지만 중부에서도 월동 가능하다. 특히 골든싸드와 브라이드헤드 등 앞에 무늬를 가지는 식물들이 더 돋보인다.

▲ 겨울정원: 겨울에도 정원은 느낌이 있다. 아리가든(ARI Garden)의 겨울 모습은 특히 그러하다. 하얗게 내려앉은 서리가 한층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개성 있는 정원의 연출을 돕는다. 돌 틈의 꽃잔디는 벌써 붉을 잉태하고, 상록의 패랭이는 꽃방석을 꿈꾼다. 돌꽃잔디, 금강애기리민초, 하늘용담, 유카와 함께 그라스가 저마다의 멋을 뽐내며 위풍당당 겨울을 맞고 있다.



▲ 상록양지꽃: 나무 그늘에 좋은 상록양지꽃은 이른 봄 노란의 꽃을 피우는 지피식물로 겨울 단풍은 붉은 색의 청동색을 띠고 이른 봄이 오면 연초록의 카펫을 이룬다.



▲ 상록잔디패랭이: 우리꽃에서 개발 유럽에서 로열티를 받고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록잔디패랭이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워내는 좋은 품종이다.

이달의 야생화

겨울은 정원의 휴식기다. 그러나 식물들의 단풍과 겨울 모습은 또 다른 멋을 자아낸다. 오히려 몇몇 야생화는 겨울에 더 그 진가를 발휘한다. 상록성 식물과 그라스가 그 대표적인 겨울 잔객이다. 그러기에 겨울 정원의 구성요소를 고려해 정원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생육기에 아름다워야 함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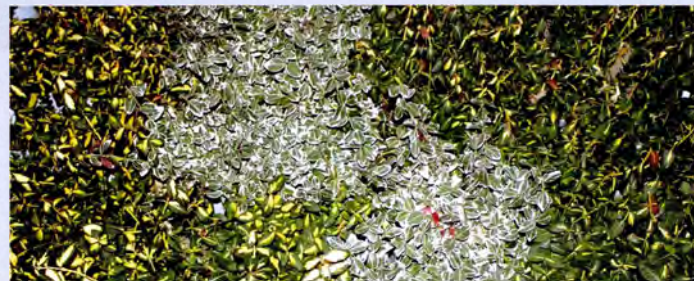
▲ 불루애기새담: 일반적으로 땅을 기는 새담은 내한성이 강해 많은 종류가 상록성이다. 이들 대부분은 각각의 단풍을 가지는데 A리가든에 자리 잡은 그 모양이 단정하고 고급스럽다.



▲ 갈사초 브론즈 '햇살': 갈사초는 도입종이다. 여름에도 브론즈 색을 하고 있고 선이 매우 아름답다. 겨울에 눈꽃이 피거나 서리가 내리면 환상적인 선을 그려낸다. 약간 내한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매년 교체하거나 보온을 해주면 좋다.



▲ 조팝(상색, 황금): 조팝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단풍이 좋고 12월까지도 단풍이 유지되는 좋은 품종이다. 특히 여름의 꽃과 단풍색이 있어 압으로도 유망한 품종들이다. 특히 우리꽃에서 개발한 조팝 '골든바'는 우리의 토종으로 이른 봄 하얀 꽃을 피운다. 연이어 나오는 황금색의 잎과 가을 단풍이 일품이다.



▲ 줄사철 혼합: 줄사철은 중부지방에서도 겨울상록을 이룬다. 그러나 너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낙엽을 멀게 되므로 약간의 습윤지와 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 줄사철 미카엘라



▲ 하늘용담: 하늘 용담은 중부지방에서 12월까지 꽃을 피우는 유일한 식물이다. 꽃잎의 형태가 바람개비처럼 뒀이 되면 돌돌 말았다가 해가 나면 다시 꽃을 피우는 이유로 웬만한 영하의 날씨에도 꽃을 간직한다.



▲ 파니쿨 '헤비메탈': 파니쿨은 아메리카 원산의 그라스인데 최근 각광을 받는 식물이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좋은데 가을에 이루어진 이삭 줄기와 겨울에도 꽃꽂하게 서있는 모습이 당차다.



여유로움을 더하는 겨울 정원의 미학

12월의 정원은 여유롭다. 바람도 있고 소복이 쌓인 눈도 있다. 피다가 만 꽃자루도 있고 또 여름에 터진 고투리도 있다. 자연이 숨을 죽이고 따뜻한 별이라도 있다면 정원의 주인공은 나의 발소리가 된다. 그나마 말라버린 잎과 줄기가 있어 강렬했던 여름의 태양과 아름다웠던 시절을 기억하게 한다.

정원입구의 은행나무는 낙엽을 모두 떨구고 약간은 삭막하지만 역사의 힘찬 선이 있어 조금위안이다. 몇 번을 강조해도 좋을 소재로 겨울을 위한 그라스의 적용은 앞으로 더 많은 정원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다만 그라스의 품종에 따라 군식하는 것과 단독소재로 하는 것에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역사와 같은 키가 큰 그라스는 단독소재가 유리한데 그 식재 간격도 최소한 그 품종의 키만큼 하라는 것은 수차례 강조해 왔다. 영하의 밤이 찾아오고 간혹은 낮 동안도 영하

의 기온이 정원에 머물러도 하늘을 담는 기세와 빛바랜 보라색은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하늘을 담은 가장 늦게까지 꽃을 피우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식물의 꽃잎이 태양이 비추어야만 벌어지기 때문에 추운 영하의 밤이나 흐린 날씨에는 꽃잎을 바람개비처럼 모두 닫아버려 꽃이 영하의 날씨에서도 상하지 않고 필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눈이 오거나 약간의 서리가 내린 날은 생명의 신비감을 더하게 한다.



겨울을 위한 식물들은 또 있다. 몇몇의 그라스가 아니라도 상록성의 관목과 선이 아름다운 식물들 그리고 큰평의비름 만추와 같은 강한 줄기를 가진 것은 하얀 눈이 오면 오히려 더 강하고 아름다운 눈꽃을 피워낸다.



한동안 눈에 들지 않던 조각 작품이 눈에 들고 재미를 더하는 시기이다. 겨울의 정원을 위해서 정원 디스플레이용 소재와 도구가 더 아름답게 혹은 필요하게 된다. 우리의 가을 지식 나눔 축제를 준비하며 잔디밭의

언저리에 세운 대형 댕둥은 어릴 적 코뿔소 매를 한 단발머리 여자 동무가 생각나게끔 한다.



겨울정원의 재미는 여러 가지 소품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해 정원을 디스플레이 하는 데에 있다.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하고 해가 넘은 정원에 작은 초를 걸 수 있는 정원용 촛대와 등을 갖추는 것도 재미있고 또 새들의 먹이도 달아주는 여유까지 가질 수 있는 시기이다. 얼음이 얼어버린 작은 연못과 물을 내리지 않는 폭포마저도 운치가 있다.



사실 우리 정원에겐 아직 원예 소품이나 정원의 디퓨즈 도구는 특별한 것이 없다. 다만 최근에 그런 요구가 있어 적극적인 대안을 우리 내부에 마련했다. 원예소품 및 정원도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한 가든조야 매장도 오픈되어 우리나라의 정원문화를 위한 작은 제안 공간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 정원에는 내년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었다. 미니골프장을 모티브로 한 동선으로 곡선만 있는 정원에 산벚나무를 이용한 직선의 작은 도로와 가로수로 원근감 있는 직선의 아름다움을 연출하기 위한 공사도 한

창이다. 물론 가로수 아래는 튤립과 무스카리 등의 구근과 혼합식재를 병행해 또 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벽화수로 벽과 지붕을 감싼 작은 정자가 더욱 돋보이게 될 것이다. 벌써 이른 봄 피어날 꽃들과 어린이들의 발랄한 재질거림과 노랑, 강, 유치원 복장의 움직임이 그려진다.



그리고 여름에 이끼와 녹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은 연못 두개에 버드나무를 심어 운치를 더했다.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아름다운 연못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숭아나무를 반대편에 심어 아름다운 분홍의 꽃

과 가을에 달콤함을 연출했다.



많은 식물들과 나무의 잎들이 모두 지고 없지만 그래도 재구실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아라기들은 겨울에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멋있고 또 몇몇의 상록성 식물과 12월까지도 색색의 색으로 정원을 연출하는 조팝나무들의 멋진 모습! 더욱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원래 토종 조팝나무는 11월

이 지나면 잎을 떨근다. 그러나 그 조팝나무를 원종으로 하여 육성되어 해외에 까지도 로열티를 받고 있는 조팝나무 '골든바'는 아직도 강렬한 붉은 단풍을 가지고 정원을 채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미 내년 4월의 아름다운 꽃눈을 가지고 있어 기특하기도 한 품종이다. 조팝 '골든바'는 이른 봄에는 하양의 꽃이 먼저 피고 노랑의 잎이 핀다. 여름이 되면서 연한 노랑의 초록으로 변화하다가 9월부터 서서히 붉게 물들고 12월 까지도 유지되는 특징으로 생울타리와 도로가의 녹지대에 이용해도 매우 좋은 품종이다. 내년 봄부터 판매에 들어가게 된다.

창간호부터 매달 우리꽃영농조합법인의 정원을 소개하며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내년에는 더욱 아름다운 정원의 면면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산수유 붉은 알알이 겨울 태양 빛에 더욱 붉게 빛난다.





▲ 겨울정원의 아름다움. 눈이내린 정원의 마른 줄기가 새로운 눈꽃으로 피어났다.

겨울 정원의 지침서 내한성지표(Hardy Zone)

글 박공영 (우리씨드 회장, 이학박사, 현 한국조경사회 생태분과 위원장)

이제 얼음이 두껍게 얼었다. 우리 정원 세상의 생물들이 휴식이라는 기간에 들었다. 어떤 것은 종자의 형태로 또 어떤 것은 알뿌리의 형태로 또 어떤 것은 작은 눈과 뿌리로 조용히 봄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겨울 정원 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한성이다.

내한성지표에 따른 식물의 생육 환경 분석

식물에게 있어 내한성이란 사람이 인위적으로 처리를 해 주지 않아도 겨울을 날 수 있는 한계점을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통은 지역적 온도 경계를 나타내는 내한성 지역표시를 하게 되는데 전문 용어로는 '내한성지표(Hardy Zone)'라 하여 지역별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가진 식물군을 나타내는 용어를 이용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기준으로 한 분류 US Hardy Zone을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5존(Zone :

-15~-25℃)과 6존(Zone :-5~-15℃)의 식물들이 우리나라에 생육하는 주요 식물들이다. 그러나 5존의 식물들은 내한성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한성의 문제는 6존의 식물들이다. 우리나라는 전라북도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존 5와 존 6의 경계를 이룬다. 따라서 북방계식물의 난방한계점이 전주 이북이 되고 남방계식물의 북방한계점이 전주 이남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북방계식물은 자작나무이고 남방계식물의 경우 배롱나무 혹은 송악 등이다. 때문에 이들 식물을 심는 데는 지역에 따라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에 따른 영향도 있으니 전주 이남이라 하더라도 지리산 주변의 구례, 남원, 함양, 산청 등의 중산간지에는 자작나무의 생육이 양호하고 인천의 해안가에는 배롱나무가 잘 성장하는 이유가 되므로 자신들의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존 5 이하 월동 가능, 존 6 은 보온 유무 결정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다년생으로 표기하는 것은 그 식물의 생육주기가 우리나라에서 2번 이상의 겨울을 날 수 있는 식물을 뜻한다. 고추는 열대에서는 다년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년생인 이유다. 따라서 우리 정원의 나무를 우선 살펴보고 의심이 나는 식물은 내한성이 표기되어 있는 도감을 찾아보면 보온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대상 식물들이 쉽게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존 5 이하로 표기된 식물들은 그대로 두어도 겨울 월동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다만 존 6의 경우가 보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인기가 많은 식물 중 존 6에 해당하는 식물로 초본의 경우 가우라, 코레우리 우리드림, 갈사초, 털어쉬 등이 있고 나무의 경

우 남천, 배롱나무, 송악, 능소화 등 많은 식물종이 있다. 바로 이들은 겨울에 인위적인 보온이 필요하다. 이들이 간혹 겨울을 나고 월동을 한다고 해서 염려를 놓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5년 이내에 동해로 가지를 잃게 되거나 통째로 잘라 내야 할지 모른다. 물론 수목의 경우 뿌리는 살아남아 뿌리에서 새싹이 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비닐보다는 부직포 보온이 식물에게 유리

다 자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릴 때는 내한성에 문제가 있는 품종들이 있다. 해외에서 도입된 많은 측백류와 향나무 종류가 이들인데, 이들은 북풍을 막아 주거나 부직포 등으로 보온을 해 주어야 한다. 이들 상록성 식물들은 좌우 균형이 맞아야 명품이 되는데 한쪽면 혹은 가지의 일부가 동해로 고사하게 되면 이들의 가치는 형

편없어진다. 이들을 부직포로 감싸 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상록성인 것은 되도록 하얀 부직포로, 낙엽이 되는 것은 검은색 부직포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비닐로 보온을 해 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비닐로 감싸게 되면 기온의 급격한 변화와 수분의 조절이 어려워 오히려 식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얀 부직포는 일부의 빛이 식물로 전달되어 수세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 준다. 또한 통풍이 되어 수분 응결이 일어나지 않고, 덕분에 나무를 건강하게 해 줄 수 있다. 이외에도 부직포 보온은 겨울 정원의 조형미까지 살릴 수 있어 더 매력적이다. 또 크리스마스트리로 이용되어도 약간의 보온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본적인 보온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 겨울 정원을 위한 조형 화분, 겨울을 위한 정원디자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좌) 초겨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일과는 채종을 하는 것이다. (右上) 그라스 물리나이의 지표부분을 겨울에 짧게 자르면 파란부분이 동해를 받게 되어 고사한다. 봄에 자라는 것이 좋다. (右下) 부직포로 보온을 하고 있다. 내한 성이 약한 상록성의 식물들은 하얀부직포로 모양에 알맞게 싸주는 것이 좋다.

겨울 전정 NO, 벗집 또는 부직포로 토양 피복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한성'이라는 것은 사람은 인위적인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라는 단서를 붙였다. 내한성이 존 5인 노랑꽃창포를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봄에 꽃이 안 피었다고 문제가 뭐냐고 질문하곤 한다. 비단 노랑꽃창포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겨울에 잘라주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왜냐하면 식물들의 방한복인 잎과 줄기를 모두 잘라버리면 옷을 발가벗겨 내쫓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봄에 꽃이 피는 식물들은 줄기를 바짝 자르고 정리를 해 주면 이미 몸속에 잉태되었던 꽃눈이 동해로 죽게 된다. 따라서 겨울 정원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많은 분들이 겨울 정원의 지저분한 모습에 깨끗하게 깎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반드시 벗집 혹은 부직포로 토양 피복을 해 주어야 한다. 만약 벗집이나 부직포로 피복하지 않고 잘라 정리를 한다면 최소 20cm 정도는 남기고 자르는 것이 좋다. 조형미를 더한다면 잎을 세워 묶어도 좋고 디스플레이를 겸하는 아이디어를 낸다면 더 좋은 겨울 정원이 연출될 것이다.

남의 정원에서는 쉼! '정원은 주인을 닮는다'

이렇게 겨울의 정원을 살펴해보면 자연스럽게 겨울 정원 연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겨울 정원을 염두에 둔 배치기법도 점차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 정원의 디자인은 마른 줄기와, 상록의 식물, 암석, 조각, 불빛, 새집 등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정원에 피해를 잘 주지 않는 토종닭 2마리쯤은 정원에 활력을 줄 수 도 있다. 물론 겨울 철새의 먹이통을 설치해 새들을 불러 모아 아름다운 세소리도 정원의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가 정원의 개성을 살리는 가장 좋은 계절이 바로 겨울 정원이다. '염매를 딸 것인가, 말 것인가?' '줄기를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결정이 정원의 품이 된다. 정원은 그 주인을 닮는다. 그래서 정원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상황에 따른 정원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나쁜 정원도 없는 것보다는 낫고 식물의 생육이 아무리 나빠도 심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나는 정원에 가면 웃기만 할 뿐이다. 주인이 질문하기 전에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정원에 놀러 오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도 우리 가든인으로 많은 분들이 놀러왔으면 좋겠다.

부직포를 이용한 식물의 보호

내한성이 조금 약한 식물들은 벗집이나 부직포 등으로 감싸 보온을 해 주어야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 주로 벗집이나 부직포 비닐 등을 이용해서 식물을 감싸준다. 특히 바람을 잘 막아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지바른 것처럼 햇빛이 잘 들게 하고 북쪽으로 바람막이를 해주는 방법도 유용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하나의 나무를 감싸 주는 것이 쉽고 효과도 좋다.

낮의 기온차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상록성의 식물들은 부직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때 반드시 하얀 부직포를 이용해야 한다. 상록의 식물들은 겨울에도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다. 조형미를 연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내한성이 강한 측백나무나 향나무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어릴 때는 내한성이 약해서 간혹 이른 봄이 되면 잎이 말라 죽는 경우가 많다. 하 나하나 작은 묘목의 몸통을 부직포로 감싸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



나무의 모양을 고려하여 부직포를 자른다.



나무를 아래서 부터 감싸어 올린다.



바람에 풀리지 않도록 한다.



볼 모양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다.



조형미도 고려해 감싸준다.

코레우리의 보온

코레우리는 내한성이 약한 것과 강한 품종으로 나눌 수 있다. 내한성이 약한 종류는 주로 안으로 들어 보 온하고 강한 식물은 그대로 두거나 정리를 할 경우 반드시 20cm는 남기고 잘라야 한다. 물론 자른 줄기로 식물체를 덮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붓꽃의 보온

부채붓꽃과 같은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이미 겨울 눈에 꽃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짧게 자르면 식물체는 죽지 않아도 꽃이 피지 않거나 약하게 핀다. 일반적으로 자르지 말고 봄에 새순이 나기 전에 자르는 것이 좋다. 만약 지저분하게 보인다면 최소 20cm를 묶어 보온의 효과와 입체미를 연출할 수 도 있다.



새들도 미식가

새를 위한 최고의 음식 '한우'



"어미가 먹이를 주려고 새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애비가 그것을 모르고 먹이를 물고와 또 들어가더라. 애비가 먼저 먹이를 주고 나오니, 어미가 나중에 새끼들이 본 배변을 물고 나오다. 여러 번 박새 부부의 육추(새끼를 기르는 것) 장면을 보아왔지만 한 동지에 이렇게 부부가 먹이를 주기 위해 함께 들어간 것은 흔치 않은 광경이다."

겨울 정원의 필수 아이템 새 먹이대

지난 여름 박새 부부가 준 감동을 회고하면서 아직도 만면에 미소를 띠는 '새집지기' 구정 오수환 씨. 그의 새 이야기에서는 사랑과 행복감이 전해진다. 그의 집 정원(200평 규모)에는 새집과 모이대가 10여개에 이른다. 틈틈이 새집과 모이대를 만들어 선물하는 것이 취미이고, 일주일에 한번은 슈퍼나 정육점에 들러 새에게 줄 쇠기름과 땅콩, 견과류 등을 사는데 투자하는 그이다.

"내 친구 곤줄박이는 처음에는 까칠하더니 이제는 휘파람을 불면 날아와 땅콩을 먹으며 놀다간다. 약은 녀석이다. 땅콩 한조각 얼른 물고서는 제창고에 숨겨놓고 와서 다시 물어가기를 반복한다. 혹시나 콩이 떨어지면 땅콩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와 빨리 달라고 투정도 한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머리로, 어깨로 바로 눈앞에까지 와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래도 친구니까 어찌겠는가." 인천아생조류연구회 회원이기도 하고, 개인 블로그 구정의 새집을 통해 꽤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는 그 덕분에 좋은 일도 때로는 귀찮은 일도 생긴다고 한다. "지난 설날 슈퍼 정육점당으로부터 전

화가 왔다. 설날이라 갈비 작업을 많이 해서 기름이 많이 나왔으니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것이었다. 덕분에 새들에게 설날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다." 그는 새들에게도 한우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한다. 새들은 대부분 기름을 좋아하고 잘 먹지만 그 중에서도 한우의 갈비에서 나오는 기름은 순도가 높아 최상급의 요리라는 것이다.

새집의 청결은 안전만큼 중요

그는 디자인 시안도 표준 규격도 없이 그때그때 맘 가는대로 재미로 새집을 짓기 때문에 새집 한 채 짓는데 대략 이틀이나 걸린다고 한다. 포장해서 선물까지 하니 시간은 더 필요로 한다. 어떤 이는 새집을 지어 팔 수 없다고 조르지만 그 말을 들어주면 취미가 아닌 노동이 되기에 그는 남몰래 자도 기약 없는 주문을 받아 총총한 마음으로 망치를 두들기며 즐거워한다.

새집을 지을 때 그는 새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새집 소재는 물론 색깔까지도 꼼꼼히 체크한다. 나무 소재와 갈색 컬러를 즐겨 사용하는데, 나무의 단단하고 부드러운 결이 보는 사람은 물론 새들에게도 편안함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새집을 만들 때는 가능한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새집은 새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란 및 양육 장소이다. 쇠못을 사용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녹물이 생길 수 있어, 대나무 못을 사용한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틈이 생기고 벌어질 수 있다. 때문에 나무의 접합 부위는 상대적으로 무해한 것으로 알려진 목공본드를 사용한다.

새집의 청결은 안전만큼 중요하다. 그는 새끼를 낳고 이소후에는 새집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일광소독을 해준다. 그러면 한해에 2번씩 새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듬해 더 예쁜 새들이 찾아올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 말한다. 특히 박새나 곤줄박이는 재활용을 잘한다. 바닥에 쿠션이 이미 마려되어 있어 동지로 쓰기 때문이다. 그는 청결을 위해 새집을 만들 때 밑바닥에 배변용 구멍을 뚫어놓거나 나사만 풀면 청소가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새 유인책 '주던 먹이를 끊어라'

지난 가든인 11월호에서도 서술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번식기인 3~5월이나 9~10월을 제외하고는 인공 새집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 새들은 자연에서 쉽게 모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겨울에는 먹이가 없어, 11월부터 2월까지의 인공 새집 아래나 근처에 모이대를 놓아두어 새들의 겨울나기를 도와주는 것이 새들을 위한 겨울에 정원사가 할 일이다.

특히 인공 새집으로 새를 불러들이고 싶다면, 이 겨울에 새들과 친해져야 한다. 모이를 먹으며 날아든 새들 가운데, 새집 구멍에 관심을 보이는 새





가 있기 마련. 이때가 기회이다. 새가 구멍에 들락거릴 때부터는 먹이의 공급을 중단한다. 먹이가 없어지니 다른 새들은 날아오지 않고, 관심을 보이던 새는 산란기가 되어도 그곳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게 된다. 자연스레 새와의 행복한 동거(?)가 시작되는 셈이다.

새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새들의 입맛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새들은 땅콩과 견과류를 좋아한다. 자연에서 추운 계절을 나야 하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것을 좋아한다. 소고기 기름덩어리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이미 언급했고, 땅콩, 참깨, 들깨 등도 그들의 입맛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가 만든 버드케이크도 새들의 유인책으로는 최고, 설탕과 밀가루 기름을 섞어 응고시킨 뒤 놓아주면 새들의 훌륭한 양식이 된다. 과일을 좋아하는 새도 있다. 직박구리나 물까치 등은 배와 감 같은 단 것을 좋아한다.

그의 새집 만들기는 단순한 재미로만 하는 것이 아닌 듯하다. 새들의 보금자리와 먹이대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다.

Step by Step

1000원짜리 물통 이용.

자동 공급 새 모이통 만들기

정원에 새의 모이통을 만들어 설치해 두었더니 들쥐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구정은 자동으로 모이를 공급해줄 수 있는 자동 모이통을 고안해 냈다. 1000원짜리 물통에 물 대신 새들의 모이를 넣어두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과 만들기 간단하고, 무엇보다 새들이 먹을 정도의 먹이만 공급되어 들쥐가 꼬일 일이 없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준비물 > 1000원짜리 물통, 아래 모이대가 될 플라스틱 받침대, 페트병 뚜껑, 나사, 가늘고 작은 파이프(5~7cm), 전동 드릴, 글루건



1. 플라스틱 받침대 모서리 4곳에 적당한 크기의 구멍을 한두 개씩 뚫어 비가 왔을 때 물이 새어 나가게 한다. 너무 크게 뚫으면 모이가 다 새어나가고, 너무 작으면 모이에 의해 막혀버릴 수 있으니 3~4cm 정도가 적당하다. 가운데에도 구멍을 뚫어 끈으로 연결 통로를 만든다.



2. 물통 가운데 구멍을 뚫어 나사로 조이고, 글루건으로 페트병 뚜껑을 고정시킨다. 물통, 즉 모이통과 모이접시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비가 왔을 때 모이통 안의 모이가 젖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이통에서 모이가 잘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 둘 사이에 틈을 만든 것이다.



3. 물통에서도 모이가 나올 수 있도록 바닥 3~4군데에 구멍을 뚫는다. 뚫은 구멍은 샌드페이퍼로 곱게 갈아 사용 중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4. 모이접시에 물통을 끼어 나사로 고정시킨 후, 물통의 뚜껑과 지붕이 될 플라스틱 접시에도 드릴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5. 물통 뚜껑, 작은 파이프, 지붕(지름 약 13~20cm), 페트병 뚜껑(지름 2~3cm) 순으로 끼운다.

6. 마지막으로 길이를 조정한 후 글루건으로 쏘아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고정 후 굳으면 완성이다.

월동 관리 방심하면

식물이 죽어간다

글·사진 오하나 파워블로거

허브향 가득한 케럼네 화단 <http://blog.naver/el512>

식물 관리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는 여름과 겨울이 아닐까 싶다. 물론 봄과 가을은 분갈이도 해야 하고, 씨앗도 심어야 하고, 잘 자라고 있나 확인도 해야 한다. 하지만 봄과 가을은 식물이 자라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드닝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무난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은 자칫 방심하면 식물이 죽어갈 수 있는 시기. 봄과 가을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베란다 온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겨울을 준비한다. 온도가 낮은 곳은 단열시트와 문풍지 등을 준비하여 창문에 붙이기도 하고, 건조한 집은 가습기를 준비해 놓는다. 식물도 마찬가지. 날씨가 추워지면 적당한 겨울 준비, 월동 준비를 해야 겨울을 제대로 보낼 수 있고, 죽어나가는 식물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겨울이 되면 가장 신경 쓰게 되는 것은 바로 '베란다 온도'. 아파트의 단열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베란다의 온도에 차이가 나게 되는데 단열이 잘되는 남향 아파트의 경우 겨울에도 베란다

온도가 20℃ 이상이 나오니 이런 곳은 굳이 베란다의 온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베란다 온도가 10℃ 아래로 내려가 5℃ 이하까지도 내려가는 베란다이다. 이런 곳은 아무리 단열시트를 창문에 붙이고 문풍지를 붙여도 10℃까지 올리는 힘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실내에 화분을 놓을 곳이 있다면 실내로 옮겨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공간이 없다면 한쪽 베란다 공간에 화분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을 갖다 놓고 거기에 감장 비닐, 단열 시트 등을 이용하여 간이 하우스를 만든다면 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 몇 도(℃) 정도의 베란다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식물의 종류를 많이 키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추위에 약한 대부분의 관엽식물들의 최저 온도가 바로 10℃이기 때문.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다면 추위에 약한 일부 식물들의 최저온도인 15℃를 유지하면 더욱 좋다.

베란다의 온도가 낮아서 1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기가 힘이 든다면 추위에 약한 관엽식물 종류를 골라 실내로 옮기고, 추위에 강한 허브

공중 습도 좋아하는 식물이 많으면 습도에 신경



류, 야생화 종류 등을 베란다에 두도록 하자. 일부 추위에 약한 허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허브들은 뿌리로 겨울을 나기 때문에 추운 베란다에서도 겨울을 잘 이겨내는 편이다. 이때 습도를 함께 표시해주는 전자 온도계를 구입하여 베란다에 놓아두면 온도를 항상 체크할 수 있음은 물론 부족한 습도를 채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베란다 온도를 높이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습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식물, 특히 일부 관엽식물들은 공중 습도를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낮은 습도로 인해 잎이 말라 죽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최근 베란다가 점점 건조해져서 습도가 3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어찌나 건조한지 공중 수분으로 살아가는 틸란드시아의 잎이 바짝

말라 있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매일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었지만 워낙 건조하여 금세 수분이 말라버렸다. 이는 틸란드시아 뿐만 아니라 고사리 종류, 타라, 푸밀라 등의 공중 습도가 중요한 식물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방 안에서 사용하는 가습기를 베란다에 놓고 사용할 수는 없으니 천연적으로 습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빨래를 자주 너는 것이다. 우리 집에는 베란다가 1개뿐이기 때문에 빨래를 베란다 천장에 설치한 건조대에 널어놓고 있는데 빨래를 널어 놓은 날은 습도가 60% 이상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빨래를 아주 많이 널어 놓은 날은 80%까지 올라가기도 했으니 얼마나 가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실감이 난다. 빨래를 자주 널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을 충분히 적신 솔방울 혹은 빈 계란 껍질에 물을 넣어 베란다 한쪽에 놓아두면 천연 가습기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그렇게 해도 습도가 낮다면 식물 주변 곳곳에 분무기로 스프레이를 하여 부족한 습도를 채워주자.

작은 화분보다는 큰 화분이 월동에 유리
일반적으로 다년생 식물의 모종은 4개월 구입이 가능한 편이다. 가장 작은 사이즈의 갈색 포트에

심어져 있는 화분을 구입했을 경우 날씨가 추다고 분갈이를 미룰 수가 있는데 한겨울 추위가 엄려 된다면 분갈이를 하여 겨울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보통 흙이 많을수록 물을 더 적게 줄 수 있고, 뿌리 보온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아주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모종은 물도 더 자주 주어야 하고 흙이 적기 때문에 뿌리가 가득 차서 추운 공기의 영향을 받기 쉽다. 얼음이 얼어 붙을 정도의 기온에 물을 줄 경우 화분의 흙이 얼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물을 더 자주 주어야 하는 것은 겨울을 나는데 불리할 수 있다. 이는 베란다의 온도가 낮은 곳일 경우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추위에 강한 야외에서 월동을 할 예정인 식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큰 화분에 옮겨나 노지 화단에 심어야 문제없이 월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야외에서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지만 작은 화분에 심겨진 상태로 밖에 둔다면 그대로 얼어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분갈이 한 후에는 추운 날씨를 생각하여 따뜻한 실내에 며칠 두었다가 서서히 베란다로 옮겨가 후유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차가운 곳에 옮기면 적응을 못하고 시름시름 앓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말도록 하자.

겨울을 제대로 대비해 놓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식물들을 보며 가슴 아픈 겨울을 보내게 되겠지만 제대로 대비해 놓는다면 겨울은 가드너에게 휴식의 계절이 될 수 있다. 추운 계절인 만큼 식물들의 성장 또한 더디기 때문에 '쑥쑥 자라라'라는 생각으로 웃거름을 마구 주기보다는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해 주렴'이라는 생각으로 식물들이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주도록 하자. 물론 겨울에도 햇빛이 아주 잘 들고 온도가 높은 장남향,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 베란다의 경우에는 겨울 베란다도 가을, 봄 베란다와 가깝기 때문에 쑥쑥 자라도록 관리해도 좋다.



베란다에서 사용중인 전자 온도계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필수품이 되었던 전자온도계이다. 요즘은 더 낮은 온도와 습도로 표기가 되고 있는 상태. 온도는 물론 습도와 시간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이러한 전자 온도계 하나쯤 준비해 놓도록 하자.

겨울에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틸란드시아



1. 종로 꽃시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흙 없이 키울 수 있는 식물로 알려진 에어플랜트 틸란드시아 이오난사의 모습이다. 옆에 자구가 달려 있지도 않고 달랑 흙줄 상태이다. 직사 광선이 바로 닿지 않으면서 밝은 곳에 두고 키웠다.
2. 틸란드시아는 더욱 건조해져 가는 늦가을부터 수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흙 없이 공중 습도로 살아가는 식물이라고 하여 분무만 열심히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틸란드시아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1주일에 1~2회 정도, 물에 1시간 이상 풍당 담근 뒤.
3. 물에서 빼어내면 꼭 거꾸로 뒤집어 물기를 말린 후에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틸란드시아는 건조해도 안 되지만 너무 습해도 물러 죽을 수 있다.
4. 자라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던 몸체 아래쪽에 작은 자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2의 자구가 보이더니 어느 순간 3개의 자구가 되었다. 나중에 더욱 많이 자라면 자구를 분리하여 번식시킬 수 있다.
5.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해지면 틸란드시아의 잎 뒷부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보통 꽃을 피우기 위하여 붉게 물들어가는 것이니 놀라지 말 것.
6. 가운데에서 보라색 틸란드시아 이오난사의 꽃이 보이기 시작했다. 틸란드시아의 꽃은 꽤 오래가는 편이고, 더욱 자구를 키워내는데 힘쓰게 된다.

蘭, 습한 것을 싫어한다

동불습(冬不濕)

난은 고래(古來)로 '군자의 풍요, 사대부의 취'라 하여 선비와 교양인의 정신적인 벗이 되어 왔다. 청초한 자태와 은근한 품격을 갖고 있는 만큼 난을 키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난유사계(蘭有四季)라는 기본적인 주의 사항이 있는데, 춘불출(春不出), 하불일(夏不日), 추불건(秋不乾), 동불습(冬不濕)이 바로 그것이다. 즉 봄이 왔다 해서 서둘러 밖으로 꺼내놓지 말 것이며, 여름에는 햇볕에 두지 말고, 가을에는 꽃이 나오니 건조하게 하지 말라. 겨울에는 습하게 관리하지 마라.

겨울철 물주기, 일주일~보름에 한번

난과(蘭科)의 작물은 온도와 기후대에 따라 크게 온대성 난과 열대성 난으로 분류된다. 온대성 난은 보통 동양란을 말하고, 열대성 난은 서양란을 말한다. 동양란은 대개 꽃의 개화시기에 따라 초란, 하란, 추란, 한란으로 구분한다. 동양란은 고고한 자태, 잎의 선, 유수한 청향을 감상 목적으로 하며, 서양란은 화려한 꽃의 색을 위주로 삼는다. 따라서 동양란은 선비 정신이 함축된 동양 철학을 대표한다면 서양란은 화사하며 즉흥적인 서양 철학을 대변한다.

경상남도의 '겨울 난 관리 요령'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동양란은 초란의 경우 꽃망울이 발생해서 5℃의 온도로 60일이 경과해야만 봄에 좋은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물주기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겨울은 보통 난들이 휴면기에 들어가므로 분이 마르는 속도가 더디다. 따라서 물주는 간격을 1주일에서 보름간격으로 화분의 흙을 확인 후 주는 것이 가장 좋고, 특히 꽃대를 가진 난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한란의 경우는 11월이 주 개화기이므로 꽃대 관리에 유의하면서 꽃대가 너무 많으면 줄은 꽃을 보기 어려우므로 건강한 것을 골라 남겨두고 나머지는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난에 물을 주는 시간대는 오전 중에, 햇빛이 좋은 날 주는 것이 기본이다.

서양란은 종류별로 적정온도를 유지해 줌으로써

좋은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다. 심비디움의 경우 낮에는 햇빛을 받게 하되, 온도가 1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난방을 한 실내에 두는 경우에는 건조한 공기로 인해 꽃봉오리가 노랗게 상하게 되므로 주의한다. 심비디움의 야간 최저온도는 5~6℃ 정도면 충분히 월동이 가능하다. 팔레놉시스(호접란)는 고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야간 온도 관리인데, 최저 16~18℃ 이상이 되어야 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물을 너무 자주 줄 경우 뿌리가 썩어 말라죽기 쉽기 때문에 화분 표면이 마른 후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물을 주는 것이 좋다.

난역십이의 '과한 것을 싫어한다'

서울여대 이종석 명예교수는 난은 단자엽 식물 중 가장 진화된 식물이라고 소개한다. 지구상에 660속, 2만5000~3만여종의 난이 있으며, 이는 지구상에 꽃피는 식물의 약 7%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설명한다. 극지대를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난이며, 지구상에서 국화와 식물 다음으로 그 종이 풍부한 식물이라고 한다. 이 명예교수는 중국 명나라 때 단계자(單溪子)의 난역십이익은 난의 습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며 소개했다. 난역십이익은 난의 습성을 총 12가지로 압축, 잘 설명하고 있다.

난은 희일이외서(喜日而畏暑)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나 더위는 싫어하고, 희풍이외한(喜風

而畏暑) 바람은 좋아하나 차가운 냉기가 도는 바람은 싫어한다. 희우이외료(喜雨而畏燥) 축축히 내리는 비는 좋아하나 강하게 내리는 비나 지루한 장마 비는 싫어하고, 희윤이외습(喜潤而畏濕) 적당한 수분은 좋아하나 지나친 과습은 싫어한다. 희건이외조(喜乾而畏燥) 분숙이 건조한 것을 좋아하나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싫어하고, 희토이외후(喜土而畏厚) 흙에 심는 것은 좋아하나 너무 깊이 심는 것은 싫어한다. 희비이외탁(喜肥而畏濁) 알맞은 비료는 좋아하나 과다한 비료는 뿌리가 썩는 원인이 되므로 싫어하고, 희수음이외진(喜樹陰而畏塵) 나무그늘은 좋아하나 먼지가 끼는 것은 싫어한다. 희난기이외연(喜暖氣而畏煙) 겨울에 따뜻한 것을 좋아하나 특별히 난방을 원하지는 않고, 먼지가 매연은 싫어한다. 희인이외충(喜人而畏蟲)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은 좋아하나 벌레는 싫어한다. 희취족이외이모(喜聚族而畏離母) 대주(大株)로 모여있는 상태를 좋아하나 지나친 포기나누기는 싫어한다. 희배식이외교종(喜培植而畏驕縱) 아끼면서 길러주는 것은 좋아하나 교만하여 마음대로 배양되어지는 것은 싫어한다.



도움말
서울여대 이종석 명예교수

양란의 겨울 유혹 팔레놉시스 vs 심비디움

겨울 집안을 화사하게 꾸미는데 '양란' 만한 식물이 또 있을까. 양란은 꽃이 화려하고 화기가 길어 실내 식물로 적합하다. 그중 특히 팔레놉시스는 가장 흔하면서도 쉽게 키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나방 모양의 꽃 때문에 나비란 또는 호접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비교적 낮은 주택에서는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심비디움도 키우기 쉽고 탐스런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다. 아치 모양으로 자라는 꽃은 수명이 길어 겨울 철에도 실내를 화사하게 밝힌다. 그러나 심비디움은 대부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 두어야 난의 특성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팔레놉시스

분류 팔레놉시스속

원산지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대만 등 열대 아시아와 호주 북부

꽃 색깔 매우 다양

꽃 특징 아성화

꽃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파종 및 수확시기 파종 시설작물로 특정 파종시기는 없음.

재철시기 봄/겨울

특징 나비를 닮은 꽃 모양

꽃이 나비를 닮아 아름답다. 야간에 CO₂를 제거해주는 공기정화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지면서 실내 분화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고급 꽃꽂이용 소재로도 종종 이용된다. 옛날에는 가격이 비싸 고급 선물용으로만 거래되었으나 대량 생산되면서 가격도 많이 내려 소비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꽃이 피면 3개월은 관상할 수 있다. 실내에 광선이 쨌만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든 잘 견딘다. 침실에 둘 경우 일주일에 2~3회 베란다로 내려 벌을 충분히 받도록 해 줘야 한다. 새로 나오는 어린 포기를 떼어 번식할 수 있지만 꽃은 분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저온처리 등이 필요하여 일반 가정에서는 꽃 피우기가 쉽지 않다.

분류 심비디움속

원산지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꽃 색깔 백색, 자색, 노란색, 연노색

꽃 특징 아성화

꽃말 귀부인, 미인

파종 및 수확시기 파종 시설작물로 특정 파종시기는 없음.

재철시기 봄/겨울

어원 라틴어로 '물위의 배라'는 의미임.

겨울철 실내를 화사하게 장식해줄 대표적인 꽃이다. 겨울에 꽃이 피어 화분용과 절화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아치모양으로 자라는 꽃이 화려하고 탐스럽지만 향기는 없다. 초보자도 관리하기 쉽고, 저온에도 강하다. 2개의 꽃잎, 1개의 설판, 그리고 3개의 꽃받침으로 구성된 꽃, 칼 모양의 잎. 일반적으로 별브라고 불리는 방추형의 비대한 줄기 및 굵은 근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지생란류에 속하지만 반착생성인 것도 있다. 분갈이는 3~4월에 하는 것이 좋으며, 뿌리가 팽창기 전에 한다. 출하분에 분갈이 할 경우에는 개화리드가 발생하기 전에 끝낸다.

심비디움





같은 속, 다른 모양의 신기한 다육 크라슐라(Crassula)

다육식물의 같은 속(屬) 치고는 모양이 제각각이다. 어떻게 같은 속인지 의구심이 들지만 크라슐라 속이 분명하단다.

약 350여종의 다육식물인 크라슐라 속은 비교적 전 세계에 광대하게 퍼져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실내식물로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던 관목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크라슐라 속의 대다수는 크기가 작고 러너(Runner)처럼 땅을 기어 났

기도 한다. 이것들은 형태가 다양해 처음 이 식물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무슨 식물이야?” 라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 최근 작은 용기에 다육을 심는 DIY가 유행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육식물이 바로 크라슐라이다.

크라슐라, 모양에 따라 이름도 제각각

사실 최근의 다육 시장은 아가보이데스나 에케베

리아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크라슐라 속을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마니아들을 통해 사랑받고 있는 품종이다. 어렵게 연락해 방문한 인천 서구에 위치한 다육전문판매점 사설하우스는 다육에게 최적의 환경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다양한 크라슐라와 여러 다육식물들이 화려한 가을 색깔로 세팅을 끝낸 상태다. 노랑과 하양, 빨강의 꽃들로 무장하고,

글·사진 정승환 기자 / 촬영협조 토끼네초록담장 (cafe.daum.net/lej5677)

남아프리카의 기후대는 열대와 아열대, 온대와 건조대, 고산대 등 식물이 살기에 는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살아남는 식물이 있으니, 바로 다육식물이다. 척박한 환경에서 꽃피듯 살아가는 다육이를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유도 같은 민족적 동질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남아프리카 이스탄케이프에서 온 크라슐라 속을 소개해 본다.

Cultivation Tip

쉽게 키울 수 있는 크라슐라는 개화와 예쁜 잎 색깔을 위해서는 양질의 광과 배수가 요구된다. 물은 정기적으로 볼과 여름에 주고, 겨울에는 단수, 웃자랄 때는 짧게 자르거나, 삽수로 키운다.

두터운 잎을 가진 크라슐라는 높이가 2.5cm부터 가장 큰 것은 1.8m정도 된다.

크라슐라(Crassula)는 그리스어로 ‘두꺼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속에 속한 품종이 대부분 두꺼운 잎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두께도 두께지만 잎의 모양 또한 다양하다. 크라슐라를 골라 한 군데 모아보니 비슷하게 생긴 놈은 거의 없다. 모양이 다양해서 잎의 형태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들이 많다. 버클리(Crassula barkly)는 뱀의 꼬리와 닮았다고 해서 ‘뱀울뱀 식물’이라고 부른다. 또 우주목(rassula argentea)은 그 형태를 빗대어 ‘살아있는 산호’라고 부른다. 이사할 때 ‘돈을 많이 불러들여라’라는 의미의 두텁고 동그란 잎을 가진 돈나무도 크라슐라 속에 속하는 식물이다.

CAM식물, 이산화탄소의 효율적 사용

크라슐라는 모든 다육식물이 그런 것처럼 CAM(CAM)식물로 광합성으로 능력을 제한 없이 잎으로부터 물의 손실을 줄이는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식물은 낮에 잎의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발산하면서 동시에 기공을 통해 물을 잃게 된다. 하지만 크라슐라의 기공들은 낮 동안에는 닫혀 있다가 밤에 열어 이산화탄소를 발산할 때 유기산의 형태로 저장한다. 낮 동안에 이런 산들은 분해되거나 이산화탄소로 방출되어 광합성 과정에 재사용된다. 이런 방법으로 크라슐라는 낮 동안에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양분을 저장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대부분 건조한 지대에서 밤에 기공을 열지 않고, 세포내에서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하는 것이 크라슐라이다. 이 상태에서 식물 자체는 성장하지 않지만 세포의 상태는 강하게 된다.



두꺼운 잎이 다양한 크라슐라

생긴 모양에 따라 다른 관리법

크라슐라 관리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주목이나 염자와 같이 줄기와 잎이 모두 다육인 것들은 물의 저장능력이 높아 속흙까지 말랐을 때만 물을 줘야 한다. 성을녀, 무을녀, 애성 등의 탑 모양으로 자라는 품종은 아랫잎이 쪼글쪼글해지기 전 물을 주는 것이 좋다. 물을 많이 주면 뿌리 번식을 자극하지만 줄기색을병이 올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크라슐라는 겨울이 휴면기로 날씨가 저온일 때는 물을 거의 주지 않아야 한다. 겨울형과 여름형에 따라 물주는 방법도 다르다. 신도, 화제, 약목 등은 가을에서 봄에 성장하는 동형종으로 참마 전부터 서서히 물을 준다. 또 부다템플, 치아자, 버클리 등 봄에서 가을에 성장하는 하형종은 겨울에는 물을 주지 말아야 한다. 크라슐라는 빛에 민감하지만 대부분의 종들이 야생종과 유사하게 직사광선이 요구된다. 뜨거운 여름에는 차광이 된 반그늘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하지만

화려한 색을 보고 싶다면 생육기 동안 밝은 빛이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지나친 열과 저온은 식물 잎이 고사케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작은 서리에도 일반 품종들은 견디는 편이란다.

엽삽보다는 줄기삽이 성공률 높다

번식은 엽삽과 줄기삽 모두 가능하다. 식물이 번식 시키는 봄, 여름기간이 가장 좋은 환경이고 삽수는 보통 몇 일 건조하게 놔두는 것이 좋다. 토끼네초록담장 이은 주 씨는 "엽삽은 성공률이 높지는 않다. 보통 줄기삽으로 코팅하고 살균제를 발라 놓아두면 한 달 안에 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다른 다육보다는 까다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크라슐라는 작은 용기에 심기 좋은 다육식물이다. 지면에 낮게 깔려 초록색으로 화분을 덮는 매력적인 다육을 겨울철 내 벤투다에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보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기천 *Crassula hyb. Moonglow*

잎이 마치 차곡차곡 탑을 쌓은 듯한 모양이다. 사각기천과 육각기천 두 가지가 유통되고 있다. 8~9월에 붉은색의 작은 꽃들이 군생을 이뤄 핀다. 겨울 벤투다에 영상 3℃정도 유지해도 죽지 않는다.

모건뷰티 *Crassula 'Morgan Beauty'*

일본식 이름으로 '여천화(呂千繪)'라고 한다. 잎의 길이가 짧고 둥글며 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다. 마주나는 잎들이 서로 엇갈리며 성장하고 사각을 이뤄 규칙적으로 성장한다. 핑크계열의 꽃이 1~4월경에 핀다.

무을녀 *Crassula rupestris*

무을녀는 야외에서는 1m까지 자라지만 화분에서는 15~30cm정도 자라 옆으로 퍼진다. 작은 잎이 타원형이거나 창모양을 가졌다. 꽃은 6~9월에 피고 작은 꽃의 색깔은 분홍색이다.

버클리 *Crassula barklyi*

작은 방울뱀의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영명으로 Rattlesnake tail이라고 부른다. 잎은 촘촘하게 겹쳐 기둥형태를 하고 있다. 줄기 몸체 끝에서 작은 흰 꽃이 모여 피는데 풍란의 향과 비슷하다고 한다.

부다템플 *Crassula 'Buddha's Temple'*

충충이 탑을 쌓으며 성장하는 다육으로 신도와 녹탐의 교배종이다. 버클리처럼 표면에 뱀의 비늘처럼 생겨 징그럽기도 하다. 주로 늦은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흰 꽃이 핀다. 다른 다육보다 물을 덜 필요로 한다.

성을녀 *Crassula perforata*

타원형의 잎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90° 각도로 둘러싸며 자란다. 잎색은 회록색이고 잎 둘레에 적색무늬를 띤다. 황색의 꽃은 작게 피고, 꽃줄기는 가지를 치듯 많이 갈라진다. 월동온도는 5℃가 좋다.

원종애성 *Crassula nudicaulis var.*

일본에서는 보통 이 모습이 애성이라고 한다. 원종 애성이 브레비폴리아라는 이야기도 있다.

엘레강스 *Crassula elegans*

도톰한 잎이 촘촘히 모여서 핀다. 가을이 깊어지면 색깔도 짙은 적색으로 변하는 예쁜 다육이다. 엘레강스는 어떤 다육보다도 물을 좋아한다. 물을 지나치게 아끼면 줄기가 말라 부러지는 현상이 있다.

염자 *Crassula ovata*

잎이 달걀모양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잎자루는 없고, 길이와 나비가 각각 3~5cm이다.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7~8월인 여름에 피는 꽃은 짙은 분홍색 잎을 띤 흰 색으로 줄기 끝에 둥글게 모여 있다.

우주목 *Crassula argentea 'Gollum'*

디즈니 애니메이션 '쥬엘'의 귀와 닮아서 인기 있는 품종이다. 잎끝이 잘린 듯 독특한 것이 특징인 크라슐라로 성장하면서 줄기가 목질화 된다. 기다란 잎은 목질화 되어 키우기 어려움 없는 품종이다.



How to

■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다육 잎 정리

촬영협조 토끼네 초록담장 이은주 대표



1. 다육의 얼굴 밑 하엽에 말라있는 잎들이 있다.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누른다.



2. 핀셋으로 자른다. 위로 잡아당기면 줄기가 잘라질 수 있으니 살짝 떼어낸다.



3. 떼어낸 잎은 모아 버린다. 떼어주지 않으면 각자별래가 생길 수 있다.



은배 *Crassula hirsuta*

은배(銀叢)는 은잔이라는 이름지만 모양과 어울리지 않는다. 허루스티라는 이름으로도 유통되는 은배는 미세한 돌기가 잎 표면을 뒤덮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집에서 물들이기가 쉽지 않아 키우는 재미가 있다.

적귀성 *Crassula americana capitella* *Campfire*

화제보다 잎이 더 뽕뽕하고 잎 폭이 좁기 길이가 긴 편이다. 길게 뻗은 잎이 여름까지는 푸르다가 가을부터 붉게 물이 든다. 가을과 겨울 사이 하얀 꽃이 다발로 피는 것이 특징이다. 해를 자주 보여 줘야 물이 든다.

천탑 *Crassula capitella*

잎과 잎 사이가 촘촘하다. 삼각형의 잎이 마주나면서 층층이 탑을 이룬다. 꽃은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분홍색 꽃을 피운다. 물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저면 관수하는 것이 좋다.

파 *Crassula Hemisphaerica*

'밖으로 소용돌이치는 모양'의 파(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촘촘히 지라는 잎 모양이 허처럼 생겼다. 또는 전체 모양이 마치 한 송이 꽃과 같다. 역시 봄부터 여름까지 작고 흰 꽃이 핀다.

하이볼테이지 *Crassula High voltage*

밝은 연두색을 띠고 있는 하이볼테이지는 High voltage(고전압)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꽃은 한방향을 풍기는 것이 특징이다. 물이 드는 색은 노란색에 가깝다.

화제 *Crassula erosula 'Campfire'*

'사과'라는 의미의 '링고'라는 일본어로 유통된다. 적귀성과 색이 비슷하지만 적귀성은 포도주색이고 화제는 붉은 색으로 색이 든다. 잎사귀가 적귀성보다 좀 더 둥글다. 가을에서 겨울 사이 조금만 흰 꽃이 핀다.



Veranda Garden

이노베이티브 가든 아이템



우리 집 식물 주치의 PLANT DOCTOR

글 황주리 기자

플랜트 닥터(Plant Doctor)는 말 그대로 식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도구이다. 잎의 건강상태, 수분 함유량, 영양상태 등 식물의 부위별 영양 상태를 고루 파악해 주는 고마운 장치이다.

고집적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술을 통하여 상당히 정확한 식물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토양 속 전해질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자체충전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이나 건전지를 넣을 필요가 없는 신통한 장치이다. 식물이 자라나는 토양의 영양상태까지 파악해 주는 매우 민감한 센서 성능을 자랑한다.

정치로 짧은 순간 잎을 스캔하는 것 한번으로 식물 상태에 대한 정보가 모두 파악된다는 신기할 따름이다. 게다가 식물에 직접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줄기를 상하게 할 일도 없다고 하니, 혹시 스캔 도중 아까는 식물이 상하지는 않을까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안심이다. 식물의 현상 파악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수분량, 영양, 그리고 일조량 등의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는 참 고마운 장치가 아닐 수 없다.

Plant Doctor 디자이너 - Fan Xu와 Du Xubing
자료출처: 스카이벤처

빗물을 이용한 물 뿌리개



신기하고 턱이 떨어질만한 기발한 상품은 아니지만 예쁘고 절망 정신 투철한 상품이라 할 수 있겠다. 빗물을 이용한 물뿌리개는 보통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해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 사용하던 물 주기가 아니다. 자연을 받아 자연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빗물을 받아놓고 필요할 때 마다 물을 줄 수 있는 커다란 주전자라고 보면 된다.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면 실내 식물 물주기에 안성맞춤이겠다. 집안의 수돗물 보다는 자연의 빗물을 주면 식물도 좋아하지 않을까? 게다가 물도 절약되며 정원을 꾸미는데

있어 알맞은 소품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제품은 아무데나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연결된 배수관을 따라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테이블에서 식물 기르기



'Organic Table' 식탁 'Walnut and Grass'.

이 환경 친화적인 테이블은 탁자 아래에 화분이 길게 놓여있어 식물을 기를 수 있다고 한다. 되도록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을 기르는 것이 좋을 듯 한데, 허브나 벤자민 같은 식물을 심으면 좋을 듯 하다. 가족과 함께 상쾌한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건조한 실내를 위한 식물 가습기

수경가든

여름철 실내 아이템의 주인공 수경가든이 겨울이 되어서도 인기가 높다. 더운 여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더해줬다면 겨울에는 실용아이템이다. 건조한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는 식물 가습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실내 정원의 주인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진감과 환경을 고려해 식물 선택한다

수경가든을 만들 때는 우선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자인적인 측면도 염두에 두어 잎의 선과 면적인 소재를 같이 고려해 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수경가든의 대표적인 식물은 물간나를 비롯해 물억새 소쿠나무 속 새 물수세미 워터코인 등이 있다. 이들은 실내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식물로 물을 좋아한다. 보통 3~4가지의 식물을 선택해 수경가든을 만들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용기에 맞추거나 개인 취향에 맞게 식물의 종류나 양을 선택해 만들면 된다.

가습 및 실내 공기를 정화시킨다

수경가든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각적인 효과이다. 여름철 맑고 시원한 느낌을 주며, 식물의 줄기나 잎뿐만 아니라 지하부 뿌리의 모습까지도 감상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뿐만 아니라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능력이 탁월하고, 가습효과가 있어 겨울철에는 건조한 실내 습도를 쾌적하게 해 준다. 숲을 넣어 주면 더 효과적이다. 수경가든은 화분처럼 용기 하부로 물이 빠질 염려가 없어 실내 어떤 곳에서도 배치할 수 있다는 것도 실내 정원으로 인기를 끄는 비결이다. 특히 주방에 놓을 경우 더 좋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음식을 하는 주방에 화분을 놓을 경우 흙이 날릴 수 있는데, 수경가든은 그런 염려가 없다.

관리가 쉽다

수경가든은 관리가 쉬운 것도 장점이다. 물을 굳이 갈아주지 않아도 오랫동안 생육한다. 물이 증발하여 줄어들면, 그만큼만 채워주면 된다. 물은 뿌리 줄기 위 부분까지 채워준다. 열대어를 함께 기르면 열대어의 분비물들이 식물의 양분이 되기도 해 다른 양분을 추가해 줄 필요도 없다. 하이포넥스와 같은 액비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넣어주면 건강하게 자란다. 관리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10년까지도 키울 수 있는 것이 수경가든의 매력이다. 너무 웃자라 미관을 해칠 경우 잘라주면 된다.

계획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수경가든을 만들기 전 밑그림을 그리면 좋다. 밑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큰 정원을 조성할 것을 대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딱히 수경가든과 같은 미니 정원에서는 밑그림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큰 정원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하다. 조성할 정원의 규모나 환경을 고려해, 흙이 얼마나 필요한지, 식물은 어느 정도 구입해야 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적으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설계(밑그림)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원을 가꿀 때 무턱대고 예쁜다는 이유만으로 식물을 선택해 아무 곳에 식재한다면 훗날 후회해 찾아온다. 더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미리 연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 하다.

집이 어두우면 한 가지 식물만 심는다

이번에 만든 수경가든은 실내 거실 테이블에 놓을 미니 가든이다. 거실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의 양으로 생육할 수 있는 거실 테이블용 수경가든을 컨셉으로 만들었다. 만약 집의 환경이 어두운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을 식재하지 말고 물수세미와 같이 한 가지 식물로 꾸며주는 것도 방법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식물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좋다.

수경가든의 이용 및 관리시 주의할 점

토양에서 자라던 관엽식물을 수경으로 이용하려면 뿌리를 깨끗이 씻어 용기에 담는다. 일반적으로 식물체가 아리고 빠른 식생력을 가진 경우나 성장

력이 강한 잎을 가진 식물은 화분에서 빼내어 수경재배로 옮겨도 쉽게 생육 활착하지만 식물체가 크거나 꽃을 피우는 식물체의 경우 수경재배로 옮기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 수경 배지 내 물을 채우는 높이를 가능한 지제부 아랫부분으로 뿌리 부위만 물에 잠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모든 배지 및 첨경물은 물에 깨끗이 씻어 뿌연 물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통솥은 검은 가루가 떨어지므로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씻어야 한다.

겨울철 저온에도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거나 찬바람이 드는 창가와 같이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장소에서는 물속에 잠겨 있는 뿌리 부분이 저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상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한다.

거실 테이블용 수경가든 만들기



준비물

속새, 무늬억새, 물수세미, 워터코인, 유리용기, 굵고 가는 자갈



1. 식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린다.



2. 워터코인을 포토에서 꺼내 유리용기에 담는다.



3. 그려진 밑그림을 보고 워터코인의 자리를 잡아 위치시킨다.



4. 억새나 물수세미 속새 등을 차례로 포트에서 꺼내 자리를 잡는다.



5. 식재할 식물들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손으로 살짝 눌러준다.



6. 색의 조화를 생각하여 자갈을 얹으면 완성.



7. 식물들을 세팅하고 마사토를 넣어주면 흙이 뜨지 않고, 뿌리가 다져지기 더 좋다.

그것이 알고 싶다 테라리움(TERRARIUM)



한상섭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명예교수



Terrarium

테라리움의 기원 배경은 영국의 산업혁명(産業革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런던의 공기 오염은 심각해지고, 도시정원의 식물들은 죽어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원예 분야 종사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테라리움의 탄생은 예고된다.

산업혁명 당시 워드 박사에 의해 창안

테라리움(Terrarium)이란 라틴어의 테라(Terra)와 아리움(Arium)의 합성어로 테라는 흙, 땅, 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리움은 '~에 관한 물건' 또는 '장소', '~에 관계가 있어 연결하다'의 뜻으로 수조(水槽)나 어항, 유리용기에 화초(花草) 또는 관상식물(觀賞植物)을 식재하여 관상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테라리움은 1829년 당시 영국의 의사이면서 영국 왕립학회(Royal Society) 회원이자 린네학회(Linnean Society) 회원인 나다니엘 워드(Nathaniel Bagshaw Ward(1791~1868) 박사가 창안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테라리움을 위한 연구는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영국학계에서는 나비와 나방에 관한 생태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워드 박사 역시 나방이나 나비가 번데기로부터 우화(雨化)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번데기를 채집하여 유리 용기 속에 넣었는데, 여러 주 후 그곳에서 어린 녹색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그 식물은 마침 그가 정원에서 재배하려다 실패했던 바로 그 식물.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후 그는 다른 형태의 용기에도 식물을 넣어보는 실험을 한다. 워드 박사는 실험과정에서 양치류 식물과 풀들이 밀봉된 용기 속에서 무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관리 한번 하지 않고도 4년 동안이나 용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한 것이다. 이후 그는 재배하기 까다로운 양치류 식물까지도 밀폐된 유리용기 속에서 재배하는데 성공하면서, 테라리움은 일정한 습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식물에게 빛과 제한된 공기와 습기, 그리고 수분을 제공한다면 특별한 관리나 물이 없어도 식물은 몇 년이고 생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 이론을 발표하기에 이르고, 그 후로 두껍게 덮은 유리용기 원예가 인기를 끌며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Terrarium



19세기에 나다니엘 워드 (Nathaniel Bagshaw Ward(1791~1868)) 박사가 고안한 워디안케이스(Wardian Case)라고 부르는 테라리움의 용기들



빅토리아 시대 때 전성기를 맞은 테라리움

그러나 184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유리 용기는 워드 박사가 처음 창작 고안한 것은 아니다. 런던의 상인이며 박물학자였던 론 엘리슨씨가 1771년에 완성한 것으로 바다에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풀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든 용기를 약간 개량한데 불과하였다. 그 후 다양한 모양의 형태나 크기로 디자인 되었고 연구되어 발전되어 왔다.

테라리움의 용기는 원래 육지(陸地)에서 사는 작은 동물의 사육(飼育)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귀한 종자를 발아 증식시키거나 작은 동물들을 기르는데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프랑스나 러시아 등지의 여러 나라에서도 동식물의 관상용 케이스로 이용되어졌다. 물론 그 이전에 아름다운 해초들을 유리 용기에 넣어 재배하여 관상한 일이 있지만 관상식물을 유리 용기에 식재하여 관상하게 된 것은 워드박사의 새로운 발견이요, 창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테라리움 용기 밑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돌을 배석하여 식물을 심었고 뚜껑은 유리나, 쇠, 그물을 사용하였다. 테라리움이

유리 용기속의 정원으로 통칭하게 되었고, 테라리움이 식물을 심는다는 것보다는 용기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축소된 작은 정원을 만들어서 실내에서 관상하는 미니정원화지도 시도하게 되었다.

1850년대 영국의 유리세가 폐지되면서 테라리움은 더욱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빅토리아시대의 당시 사람들은 테라리움이 그 시대의 취미에 가장 잘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잘 정돈된 가구와 응접실에서 테라리움의 아름다운 조화는 장식품으로 관상되어졌다.

유리 용기 워디안 케이스 탄생

워드 박사의 고안으로 제작된 유리 용기는 워디안 케이스(Wardian case)라고 불리어졌고 빅토리아풍의 실내장식에서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으로 장식되어 지곤 하였다. 1800년대 말 화려하게 만들어진 유리종류는 모두 식물을 전시하는데 이용되었다. 특히 유리 용기 속에 든 양치류의 인기가 높았다. 현재까지도 영국 박재 골동품 상점에서 발견되는 종모양의 많은 유리 용기는 원래 테라리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 후 계속 종려야자나 양치류식물, 이끼류, 알로에, 그리고 선인장을 밀폐된 유리 용기 속에서 재배하였다. Montague Free는 그의 저서 '가정 재배에 관한 모든 것'(All about House

Plants' 라는 책에서 워드의 말을 인용해 '종려야자는 밀폐된 유리용기 속에서 15년 동안 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1842년 워드 박사는 '밀봉한 유리 상자 속에 든 식물의 생육에 관하여(On The Growth of Plants in Closely Glassed Cases)' 라는 책을 출판했고, 이 책이 테라리움의 첫 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워드 박사는 18년 동안이나 물을 주지 않고서도 완전한 형태로 이끼와 양치류의 식물이 유리용기 속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워디안 케이스, 관련 산업 발전에도 공헌

한편 워디안 케이스는 가정에서 재배되는 식물을 위해서 만들어 사용되어졌고 오랜 항해에 견디어 낼 수 없었던 식물도 먼 나라 항구까지 운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식물들이 유리 용기 속에 밀폐되면 극심한 온도차의 변화, 습도의 변화, 바닷바람, 손질 관리부족 등 항해에 따르는 악조건에도 영향 받지 않고 운반할 수가 있었다.

워디안 케이스가 제작된 이후 식물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운반이 가능하게 되어 인도에서 휴식산업의 설립은 완전히 성공했고 고무나무도 브라질에서 세일론까지 무사히 수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식물 운반은 농업부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식물원에 진귀한 식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했다. 또한 가정에서는 소형으로 만들어 파종상이나 식물 번식상에도 이용했다. 이와 같이 테라리움은 나방이나 나비의 우화(羽化)가 동기가 되어 창안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다음 호 연재)



정성훈 농촌지도관의

월동 테크닉이 필요한

마늘과 양파

분주하게 작업한 배추 수확이 끝났다.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이듬해 수확해야 할 채소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가을에 심어놓은 마늘과 양파. 겨울을 나기 위한 관리는 무엇이 있을까. 올해 추가로 70평의 밭을 임대한 정성훈 농촌지도관의 마늘·양파 월동관리를 이야기한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동(冬)장군이 찾아왔다. 지난 10월에 심은 마늘과 양파가 걱정되는 시기인 만큼, 텃밭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난해 겨울은 영하 10℃로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가 빈번했다. 이런 영하의 온도에 마늘 양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지온을 보온 유지하는 것이다.

마늘, 동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

겨울동안 땅이 건조해지기 쉽다. 온도가 내려가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적어지니 당연히 대기 습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토양이 건조하면 작물이 동해(겨울에 작물이 얼어버리는 현상)를 받기 쉽다. 특히 한지형 마늘의 월동률은 파종 후 10, 11월의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해에 따라서는 50%이하의 월동률을 나타낼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성훈 지도관은 “마늘은 파종 후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비가 오지 않을시 물주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동기간 중 지상부 생육은 정지되어도 뿌리는 계속 생육하기 때문이다. 겨울동안 따뜻한 날에는 반드시 물주기를 실시해 토양의 건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녁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관수한 물이 얼어버릴 수 있으므로 오후 3시 이전까지는 공급한 물은 모두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하의 온도에 의해 지면이 얼어버리는 현상이다. 한지형마늘이라 할지라도 영하 7~8℃로 떨어지면 동해 피해를 입기 쉽다. 이때 짚, 퇴비, 건조, 왕겨 등으로 덮어 월동률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한지형 마늘의 경우 비닐을 일찍 덮으면 마늘씨가 월동 전에 못 자랄 수 있다. 못자란 마늘은 겨울동안 황화증상과 월동 후에는 백화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벚짇과 또는 막(비닐)을 덮어주는 것으로 보온효과를 볼 수 있다.

양파, 뿌리 개수를 키우는 것이 관건

양파는 저온에 견디는 힘이 강한 채소다. 영하 8℃까지 떨어져도 동해 피해를 입지 않는다. 또 겨울동안에는 4~5℃까지는 뿌리가 서서히 자라난다. 월동에 필요한 양파의 뿌리수는 3~4개. 길이는 10cm이상이면 동해와 서릿발의 피해를 견딜 수 있다. 뿌리수를 키우려면 제때에 심어 뿌리가 땅 속 깊이 뻗도록 해야 한다. 비닐 등으로 보온한 양파는 겨울 동안 녹색 잎으로 오랫동안 지속한다. 그렇지 못하면 양파줄기가 누렇게 마른다. 특히 월동중 가뭄과 추위가 심하면 녹색 잎은 거의 없어질 정도로 말라 황색으로 변한다.

그는 “11월 하순이나 12월 초순에 실시하는 비닐 피복은 지온을 상승시켜 초기 생육을 촉진



▲ 서릿발에 의한 양파의 피해



▲ 피해 받은 양파를 재정식하고 왕겨를 씌운 모습

“이번 겨울에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 왕겨피복으로 마늘과 양파의 동해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시키고, 양파의 숙기를 3~4일 가량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파의 개수도 약 20~40%정도 증가한다고 한다.

비닐 피복에 대해 설명하자면, 한지형은 파종시 유공비닐이나, 투명 PE 필름을 피복하고 심는다. 안전한 월동을 위해 비닐위에 짚을 깔아 주거나 투명비닐로 피복하는 것이 좋다.

월동기보다 그 이후의 관리가 중요

겨울동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작물이 양파와 마늘이다. 땅이 얼어 작물의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한 상황에서 서릿발에 생기면 피해가 발생한다. 서릿발은 지중의 수분이 주위 영하의 온도에 의해 동결하거나 승화하여 기둥모양의 얼음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이다. 작물의 뿌리내림이 덜 된 상태에서 서릿발 현상이 일어나면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어 얼어 말라죽게 된다. 이런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서릿발 예방의 근본적 방법이다. 즉시 땅을 잘 눌러 주고, 주변의 왕겨 등 피복재료를 덮어주어 2차 피해를 막는다. 특히 뿌리 부분이 완전히 묻히도록 흙덮기를 실시해야 한다.

월동기가 지나고 2월 중하순부터는 뿌리의 생육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양분 흡수력이 좋아진다. 이때 웃거름을 줘야 한다. 난지형 마늘은 3월중하순, 한지형마늘은 3월 상순부터 4월 하순까지 주는 것이 좋다고 정성훈 지도관은 말했다.

양파는 요소(17.4kg/10a)와 염화칼리(5.2kg/10a)를 주지만 유황이 많이 필요로 하는 마늘은 요소(17kg/10a)와 황산가리(1.3kg/10a)를 주는 것이 좋다. 비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고형비료를 물에 녹여 주는 방법도 있다. 토양이 습할때 물 200리터, 건조시에는 400리터 이상에 충분히 녹인 후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해주면 된다.



▲ 지난 10월 파종시 덮은 유공비닐

마늘·양파 월동을 위한 보온



▲ 마늘밭 비닐 피복



▲ 양파 비닐 턴넬 설치

Check List

12월 마늘 및 양파 월동관리

마늘



마늘 피복효과

비닐 피복을 하면 지온을 상승시켜 초기 생육을 촉진시키고, 숙기를 3~4일 가량 앞당길 수 있으며, 20~40% 정도 증수가 된다.

마늘 피복방법

- 한지형은 파종시 유공비닐이나, 투명 PE 필름을 피복하고 심는다
- 안전한 월동을 위해 그 위에는 비닐위에 짚을 깔아 주거나 투명비닐로 피복 하여준다.

마늘 피복시기

11월 하순이나 12월 초순에 하며 비가 온 뒤에 하는 것이 좋다. 월동 시에 건조하면 뿌리의 발육이 불량하여 동해를 받게 된다. 특히 한지형 마늘의 월동률은 파종 후 11월의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에 따라서는 50%이하의 월동률을 나타낼 경우도 있다.



양파



양파 피복

중부지방에서는 동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왕겨, 짚 등을 덮고 비닐 턴넬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양파 피복방법

- 활죽으로 턴넬을 만들고 끈으로 묶은 후 비닐피복을 한다

양파는 피복시기

- 마늘 피복 시 함께 한다



2013년 길잡이의 김장 담그기



지난 11월 17일 길잡이네 120포기 김장배추. 이틀 동안 절여서 씻어 놓은 후 가지런히 배열해 놓은 모습.



아들과 배추 속 버무리기. 나무로 틀을 짜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니 주변이 깨끗하다.



자녀와 사위, 친구부인들 등 총 9명의 인원이 길잡이네 김장 담그기에 참여했다.



김장 버무리기 속, 빨간 속이 군침이 저절로 흐르게 한다.



길잡이네 사위(최색욱)가 김장하기에 도전. 김장 속 넣는 방법을 교육받고 있는 중이다.



속 버무리기 때 풀 반병, 생새우 10근을 넣어 사용했다고 한다. 맛있게 보이는 김치가 먹음직스럽다.

배추절이기 Tip

1. 쪼갠 배추를 통에 깔고 소금물을 조르나 손으로 약간 뿌린다.
2. 배추 밑동에 소금을 약간씩 놓은 다음 다시 배추를 깔고 반복.
3. 마지막에 소금물을 부은 후 고무통으로 올려놓고 물을 약간 담아둔다.(반나절 정도)
4. 절인 후에 덜 절여졌다면 뒤집기를 한다.

지구를 살리는 청소년농부프로젝트

배추 수확과 피날레

배추의 결구가 완성단계이고, 영하의 기온에 배추를 묶어줌으로써 이제는 수확의 날만 기다리면 된다. 배추 수확이 기쁨을 만끽하고자 경기도 광주시 하천천리에 방문한 시간은 정오쯤. 청소년농부프로젝트가 봄부터 가을까지 일년여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마지막 수로식이 있는 날이기도 했다.

글·사진 정승환 기자 (자료협조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광주시도시농업연구회)

청소년과 도시농업 체험 기회로 시작

청소년농부프로젝트는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 도시농업연구회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들이 모여 꾸준히 농업의 가치를 연구해 온 단체이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정대이 친환경 농업팀장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농사를 해보자며 사업을 제안하고, 도시농업연구회가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봉사활동 점수와 연관시키기 위해 광주시자원봉사센터도 참여를 독려했다. 봉사과 아이들의 농업체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연구회의 끈기 있는 도전이라는 점이 주목되는 점이다. 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농업체험이라는 것이 거의 처음이라는 사실에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전문적인 농업인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강사도 아닌 어른들이 학생들과 공동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매년 쉽지않은 않았다. 여름에 호우로 땅이 물바다를 이루거나, 작물에 병과 해충이 끼어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도 때로는 있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대안을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 모든 수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보면 이 곳 연구회의 어려움은 '극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만큼 그 의지가 강했다.



배추 파종해서 수확까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는 큰 행운이다.



올해 청소년농부프로젝트의 마지막 피날레. 청소년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밭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합찬 함성이 이어졌다.

일년의 여정, 수확과 나눔의 체험 기회

청소년들도 이런 참여의 주역이다. 감자심기, 고구마캐기, 과채류 모종심기, 배추 수확하기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소화하고 스스로의 정서를 관리하는 아이들의 참여의식도 빼 놓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마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수확한 작물들은 양로원에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 수업에 불참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해 온 아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각자의 소감을 듣는 순간은 모두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라는 개념으로 신청했어요. 농부의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내가 식물을 정말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감을 발표하라는 주문에 학생들은 대부분 만족한다고 말했다. 강당에서 수로식을 마치고, 청소년농부답게 텃밭으로 이동. 배추와 무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배추를 수확해보렴." 어른들의 말에 아이들은 자신이 씨 뿌린 배추가 웅크려 열매를 모습에 감동한다. 도시농업연구회 회원들도 배추와 무를 수확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지금만큼은 회원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아닌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다. 그동안 청소년프로젝트를 위해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순간이다. 아마도 지금의 순간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추억이기도 하다.

2014년도에는 새로운 청소년농부프로젝트가 시작한다. 물론 기존의 아이들 뿐 아니라, 새로운 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원은 지금보다 더 많이 신청을 받아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도시농업연구회의 첫 도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번 청소년농부프로젝트 기사를 위해 도움을 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정대이 팀장과 도시농업연구회 심은숙 회장, 이선진 부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 그리고 참여한 청소년농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13년

청소년농부
프로젝트 발자취

3월	4월	5월	6월
청소년프로젝트 시작	감자심기	채소 모종심기	감자수확

7월	8월	9월	10월	11월
병충해 관리	배추 무 종자 심기	배추 벌레 속아내기	고구마 캐기	수로식

무가 아니라 배추였다 강화순무



▲ 강화순무밭의 시장인 권국원 사장이拍的 강화순무

得醬尤宜三夏食 (득장우선삼하식)
漬鹽堪備九冬支 (지염감비구동지)
根蟠地底差肥大 (근반지저차비대)
最好霜刀截似梨 (최호상도절사리)

간장으로 한여름을 지낸다지만
소금에 담긴 순무는 겨우내 먹을 수 있네
뿌리는 땅 속 깊이 커다라니
서리 내린 후 자르면 배 맛과 같다네



글·사진 안완식 박사
농학박사 씨드림 상임대표



▲ 순무의 꽃은 노랗게 피는 배추꽃과 흡사하다. ▲ 강화순무는 감미롭고 고소하여 겨자향의 배추꼬리 맛이 난다.

조선 중엽까지만 해도 순무는 김치재료로 널리 재배되었는데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강화군에서만 재배되기에 '강화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겉모양을 보아서는 잎이나 뿌리의 모양이 무와 거의 흡사하고 뿌리의 맛이 배추꼬리와 거의 같은 이 순무는 배추로 분류된다.

순무는 배추꼬리가 고갱이포기배추의 육종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60, 70년대 맥주 집에서 또는 일식요리 집에서 흔히 맛볼 수 있었던 배추꼬랑이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순무이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순무는 맛이 달고 오장에 이로우며 소화를 돕고 중기를 치료하며, 씨는 눈과 귀를 밝게 하고 황달을 치료하며 갈증해소 작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고 했다.

순무는 철종이 등극한 뒤 순무김치맛을 잊지 못하자 소주방(燒酒房)에서 순무김치를 만들어 진어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그 재배 역사가 매우 긴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로부터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순무는 옛 농서에 만청재(蔓菁子), 무청(蕪菁) 또는 청(菁)으로 기록되어 전해오는데 고려시대 이규보가 쓴 <가포육영(家圃六詠, 1168)>에 순무에 관한 상단의 시는 김치 기원사의 흥미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겨자향과 고소한 맛을 내는 배추꼬리
순무는 잎의 모양과 모용(毛茸)의 유무에 따라 유럽형, 아시아형, 일본형 군으로도 나뉜다. 잎은 무우처럼 뿌리에 붙어 있으며 길이 30~60cm, 통잎에서

부터 우상(羽狀)으로 깊게 벌어진 것도 있다. 재배 품종에 따라 털이 없는 것부터 털이 밀생한 것, 잎에 색소가 나타나는 것도 있다. 꽃은 4월경에 개화되는데 십자모양이며 황색이다. 종자는 둥글고 평평하며 미끄럽다. 뿌리 생김새는 팽이모양의 동근형이며 편구형, 원통형, 원통형, 쇠뿔형 등 유전적 특성에 따라 품종마다 다르다. 원시적인 모양은 길고 가로로 줄무늬가 있으며 육질이 여물다. 한편 진화된 것은 편구형으로 땅위로 솟아 나오는데 육질이 연하고즙이 많다. 뿌리의 색깔은 흰 것이 많지만 자홍색, 홍색, 녹색, 황색인 것도 있다. 맛은 감미롭고 고소하여 겨자향의 배추꼬리 맛이 난다. 11월 말에 순무를 수확해서 소금물에 담가 순무편지를 만들면 내년 여름의 입맛을 한껏 돋게 될 것이다.



▲ 강화순무의 종자는 극히 작고, 배추나 것과 매우 흡사하다.



▲ 강화순무 잎은 무처럼 뿌리에 붙어 있으며 타원형으로 잎가에 톱니 모양의 결각이 있다.



▲ 강화순무는 재래계통에 속하고 적자색계통이 맛과 질이 좋으며 회색계통은 맛이 없다.



▲ 강화순무는 땅이모양이다.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순무 재배지

순무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을 원산으로 하는 일원설(一元說), 지중해 연안과 아시아 아프리카니스탄을 기원으로 하는 이원설(二元說), 지중해 연안, 유럽 북쪽, 시베리아 지방을 주장하는 다원설(多元說)이 있다. 유럽에서는 순무를 기원전부터 재배하였으며, 미주에는 1540년 카티어(Cartier)가 캐나다에 처음으로 전파하였다. 중국에서는 시경(詩經, B.C 770경)에 붕(菰)이라는 기록이 있고, 이아(爾雅, 기원전 4세기경)에도 순무의 이름이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영양채소로서 또한 기근시 구황작물(救荒作物)로 재배되었다. 일본은 일본서기(日本書紀, 720)에 기록이 있다. 학명 중 *Brassica*는 그리스어의 *brassica*(살는다) 또는 켈트어의 *brasic*(양배추)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며, *rapa*는 그리스의 *rapus*로부터 나온 것으로 켈트어의

rab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도입되어 삼국시대부터 재배하였다는 재배설이 있고, 고려 향약 구급방(鄕藥救急方, 1236~1251)에 종자가 약재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중엽의 문장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동국이상공집(東國李相國集)의 가묘육영(家圃六詠)에서 오이, 가지, 순무, 파, 아욱, 박의 여섯 가지 채소를 읊은 시가 있다. 김치에 관한 언급으로 추정되는 가장 앞선 것으로 '순무장아찌'와 '순무소금절이'가 등장하는데 그때 쓰였던 채소가 순무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근년까지도 전국적으로 재배되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강화군과 김포군, 인천, 경북 북부의 일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강화도에서의 순무 재배 역사는 조선 중엽 무렵에 재배하였다는 문헌이 전해오며 순무김치는 임금님께 진상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강화도 고통한 한 농가의 강화순무의 잎이 초겨울 추위로 얼었다가 녹았다. ▶

▼ 강화순무는 통입에서부터 우상(穹狀)으로 길게 벌어진 것도 있다.



순무김치의 본향 강화순무골

강화순무는 그 맛이 매우 독특하여 처음 먹어보는 사람도 매료되며 한번 입맛을 익히면 두고두고 찾게 되는 훌륭한 식품이다. 순무의 맛은 일반적으로 달면서도 겨자향의 인산 맛이 나며, 한편으로는 배추뿌리의 진한 향수를 느끼게도 하는 맛을 지니고 있다. 강화순무는 봄철과 가을철에 생산되며 이들은 모두 같은 맛과 효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강화도 특산물중의 하나인 뽕명이전, 새우젓 등을 넣어 담근 순무 김치는 그 맛이 가히 일품이라 할 수 있다.

강화순무는 서구계, 중간계, 재래계 중 재래계통에 속하고 적자색과 흰색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적자색은 맛과 질이 좋으며 회색계통은 맛이 없고 질이 나쁘다. 잎은 타원형이며 잎가에 톱니 모양의 결각이 있고 잎자루는 자색이며 뿌리는 둥근 모양이다. 길이 30~60cm, 통입에서부터 우상으로 길게 벌어진 것도 있다.

강화에서 순무김치를 전문으로 담근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권국원 사장은 1994년부터 순무를 소득 작물로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김치맛을 내는 것은 물론 가공 공장 설립, 식품으로 허가 받기까지의 각종 인허가 과정, 판매망 구축 등 산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권씨는 각종 문헌들을 통해 독학이나 식품영양학에 조예가 깊은 전국의 각 대학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순무의 효능을 검증해 나갔다. 그리고 강화순무 김치의 손맛을 간직하고 있는 동네 어른들과 함께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옛 맛을 재현하였다. 그 후 각종 김치 축제, 전시회 등에서 김치 상품화 부문, 팔도전통김치 부문, 김치박람회 김치상품 부문, 광주 김치대축제 김치 담그기 부문 등에서 장관상, 시장상 등 주최 측의 상을 휩쓸었고, 일본으로부터 주문도 쇄도하고 있다.

자색 계통의 토종순무 주년재배

토종순무는 아시아형에 속하며 국내의 재래종 품종은 백색, 자색, 적색 계통이 있는데 현재에는 주로 자색이 재배되고 있다. 예전에는 봄, 가을재배가



▲ 강화 시장에서 팔고 있는 강화순무는 대부분 적자색형이다.

일반적이었으나 연중 소비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내한성, 내서성 품종을 이용하여 주년재배를 하고 있다. 붉은순무라고 하여 잎이나 뿌리에 적, 홍, 자색으로 착색되어 절여놓으면 보기도 좋은 품종이 각 지방에서 재배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을 수가 없다.

달이거나 즙을내 먹기도한다

순무 달인 물은 간장의 기능을 높인다. 꽃이나 씨를 달여 마시면 간장의 활동을 돕고, 간염이나 황달을 진정시켜 준다. 봄철에 탄 순무의 꽃을 그늘에 말린 다음 잘게 채썰어서 사용한다. 말린 순무꽃 10~15g에 3컵의 물을 붓고 그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 하루 3회로 나누어 마신다. 순무씨는 말리지 말고 날 것을 분마기에 곱게 갈아 하루에 10g을 3컵의 물에 달여 3회에 나누어 마신다. 꼭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도록 한다. 순무즙은 해독 소염 작용이 있다. 순무에는 뛰어난 해독 작용, 소염 작용이 있어서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목이 쉰 것을 낫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갈증을 달래 주고 기침을 멎게 해 주는 작용도 있다. 목이 쉬었을 때는 순무즙이 효과적이다. 순무 1개를 강판에 갈아 그 즙을 마신다. 목이 쉬면서 통증이 있을 때는 1~2시간마다 마시면 좋다.



▲ 강화도 내가면의 한 할머니는 단단하고 맛이 좋다고 흰순무만 오랫동안 심고 있다.



▲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온 흰순무의 하나



겨울에 해야 할 저장 노하우 ‘채소를 싱싱하게’ 이것이 문제다

글·사진 정승환 기자 / 자료출처_ 농촌진흥청, 오가닉가드닝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와 무, 당근, 고구마 등 다양한 작물로 내 식탁은 언제나 풍요롭다. 하지만 남은 채소와 농작물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한계. 그냥 박스에 보관하든지 금방 물러 터질 것 같다 과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수확 후 저장은 텃밭 가드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한 채소들을 겨울에 먹기 위한 특별한 저장이 필요한 시기이다.

텃밭 가드너 김소희 씨(38세)의 올해 농사는 풍년이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텃밭을 재배하는 가드너의 행복이다. 하지만 남은 수확물을 집에만 저장하려고 하니 적잖이 고민이다. 과일을 무조건 냉장고에 저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박스 안에 담아 두어야 할지 여기 저기 자문을 구했다. 김씨는 “어느 해인가 과일이라 다른 채소랑 같이 넣어두니 채소들이 금방 갈색으로 변했다”며 속상해 했다. 물론 싱싱하게 채소를 보관하기 전에 소비해야 하는 것이 최고의 저장이라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현명한 채소 저장 테크닉이 필요한 계절이 겨울이다.

겨울채소 저장, 숨은 곳을 찾아라

채소나 과일을 장기간 보존하는 방법의 열쇠는 작물들이 요구되는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 우선 냉장 또는 건조하게 보관해야 할 채소라면 집에 보관해야 할 장소를 미리 선정해 두어야 한다. 최적화된 특정한 공간이 필요하다. 겨울동안 창고, 뒷 베란다 등과 같이 온도가 높지 않은 공간을 찾아 온도계를 넣어두는 것이 좋다. 채소들이 요구되는 건조하거나 습도가 유지되는 곳 등의 장소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집안에 분명히 겨울 채소를 저장할 만한 곳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때론 냉동이 최선의 저장

수확물을 신선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르게 열리려면 필요한 양만 사용하는 것이다. 잘 익은 과일이나 채소를 선택하고 수확 후 바로 얼려야 한다. 플라스틱 박스와 같은 밀폐된 백이나 용기에 담아두면 냉화상(freezer burn, 습기 부족으로 갈변화 되는 현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특정한 어떤 과일과 채소는 얼리

Tip

겨울 채소 저장을 위한 숨은 아지트



따뜻하고 건조한 장소

아직 푹푹한 초록색 토마토들을 놓아두는 것이 좋다. 말린 약초나, 건조된 허브, 또는 콩 등은 햇볕이 강하지 않은 따뜻한 곳이 최적의 보존 장소이다.



차갑고 건조한 장소

보통 10℃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곳으로 서늘한 식크대 서랍장도면 좋다. 이 곳에서는 마늘, 양파, 초록색 토마토, 호박 등을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차갑고 습기가 있는 장소

2℃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습한 창고로 실외에 땅을 파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양배추 등을 저장하기 가장 완벽한 장소이다. 당근 (습한 모래에 묻어둔다.), 감자, 셀러리 (화분에 심어 놓는다.)



차갑고 적당한 습기 있는 장소

약 2℃정도 인 곳으로 주방쪽 그늘진 베란다가 좋다. 이 환경에서 사과를 가장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다. 사과는 열매에 나오는 에틸렌이 다른 채소를 잘 익게 하므로 따로 보관해야 한다.

기 전에 살짝 블랜칭(Blanching, 열처리)이 필요하기도 하다. 과일과 채소 속 수분이 결정화되거나 세포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열처리 하지 않으면 녹녹해지거나 해동했을 때 조직이 연해진다. 보통 90℃의 뜨거운 물에 2~3분간 열처리를 한 후 차가운 물로 급속 동결하면 된다. 블랜칭이 가능한 과일과 채소들로는 블루베리, 사과, 산딸기, 감 등과 시금치, 완두콩, 배추, 양배추, 당근, 우엉 등의 채소류 등이 있다.

* 블랜칭(Blanching) : 고품질의 채소를 동결채소로 처리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이다. 짧은 시간 고열에 가열해 품질 저하에 관련되는 효소를 불활성화시켜 저장 기간동안 색상변화와 조직의 연화를 최소화하는 식품공정과정이다.

여분의 채소는 피클로 만들자



도마토, 고추, 사과 등 건조가 잘되는 작물이다. 건조만 잘해도 작물의 향과 조직을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물로 잘 씻어 얇게 썰거나 넓은 쟁반에 펼쳐놓으면 좋다. 그 다음 햇빛이 잘 비치는 실외에 건조시키자.

가장 쉬운 방법은 오븐에 약 120℃정도로 맞춰 놓으면 2~3시간 안에 수분이 마르면서 크기가 줄어들어 적당한 건조된다. 건조가 다 되면 깨끗하고 밀폐된 용기에 넣어두면 된다. 단 유통기한은 2~3주 이내이다. 비트나 양파, 오이는 피클로 만들면 수개월 동안을 저장할 수 있다. 비트는 잘 행군 후 끝을 잘라 끓는 물에 30분정도 데치면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 깨끗한 용기에 피클용 식초를 붓고 담가놓으면 된다. 양파도 껍질을 벗기고 끝과 밑면을 다듬고, 소금을 뿌려두고 밤새 놓아 둔다. 물로 행귀 피클용 식초에 넣어두면 된다. 호박, 자두, 토마토 등이 남는다면 소스나, 스프를 만들어 먹어도 된다. 로 포즈베리, 산딸기, 살구 등은 잼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년 내내 보관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다.

How to

신선함과 식향을 가둬두는 채소 블랜칭



1. 블랜칭하기 위해 적당한 크기의 냄비에 물을 붓는다. 채소 450g 당 3.8L의 양이다. 그리고 끓인다.

2. 망에 담긴 브로콜리를 끓인 물에 꼭 담근다. 1분 후에 다시 물이 끓으면 채소를 꺼낸다.



3. 꺼낸 브로콜리를 얼음을 넣은 차가운 물에 넣는다. 채소에게 소위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4. 꺼낸 후 물기가 완전히 빠져야 한다. 이어서 빈 용기에 담아 놓고 필요할 때까지 냉동보관한다.

Tip

과일과 채소의 특별한 저장법

저장 환경만 좋다면 과일, 채소를 수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물론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체크하면서 문제가 있는 채소들은 바로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로 썩은 사과와 다른 사과들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환기 잘 되는 건조한 곳에 저장하는 작물은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무상자나 얇은 종이박스 등도 좋다. 몇몇 상자들은 환기가 잘 되도록 디자인 되어 있으니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익게 한다.

사과 사과는 -1~0℃가 최적의 기온. 10도 정도 따뜻해질수록 익는 속도가 두배로 빨라진다. 다른 채소류와 구분되도록 야채보관실에 신문지로 싸서 저장해야 한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Ethylene)은 다른 채소를 빨리

비트 비트는 냉장고에서 2~4개월을 저장할 수 있다. 녹색인 부분을 잘라내고, 채소보관실에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저장하는 것이 좋다.



마늘 마늘은 15~18℃의 적절한 습기가 있는 곳에 저장하면 오래 유지된다. 하지만 마늘이 오래되거나 집이 건조하다면 어두운 부엌 캐비닛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오래 보관에 구 전체를 넣어두어야 한다.

양파 -1~10℃사이에서 온도를 유지할만한 건조한 곳에 저장하면 1년 정도는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장소가 없다면 양파망에 넣어두고, 어두운 곳에 놓아두면 한 달 또는 그 이상 저장 가능하다.



겨울무 겨울무는 당근처럼 보관하면 되는데, 녹색부분은 절단하고 습기를 흡수할 수 있는 종이타월에 싸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두면 된다. 양파 뿌리가 물은채로 보관시 빨리 시들 수 있다. 보통 한 달 정도 보관 가능하다.



겨울호박 펄프인 호박,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유명한 버터넛 호박은 겨울호박으로 알려져 있다. 호박은 어두운 캐비닛에 보관하면 2~6개월은 충분히 저장이 가능하다. 넣어 둘 때는 한 층에 여유있게 배열해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호박(쭈키니, 펄프넛)은 최소 세 달 동안은 저장이 가능하다. 쭈키니는 저장력이 좋지 않아 길어봤자 3주정도이다.

알타리무 알타리무는 비타민 A와 C, 포타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이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보통 한 달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 넣어 둘 때는 냉장고의 가장 낮은 층에 신문지나 비닐로 싸서 보관한다.



차병원 충북대학교
식물위학과 교수

병원균이 가장 좋아하는 토양은?

산성 또는 염기성

개천에서 웅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가난한 집안이나 형편없는 집안에서는 인재가 태어나도 인재로 자랄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 등, 부모 잘 만나고 좋은 집에 태어나야 좋은 학교 나오고 다른 사람 부리면서 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 입에서 입을 타고 회자되고 있다. 며칠 전 수능이 끝났다. 가슴에 큰 꿈을 품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물지각한 어른들의 이런 막말을 듣고 지레 꿈을 접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신분과 계급제도가 굳어지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이론은 식물사회에서는 진리이다.

햇빛, 물, 온도, 양분 중 '흙' 이 가장 중요

식물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식물의 삶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은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햇빛, 물, 온도, 양분 등 중요하다고 꼽는 것들이 몇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처럼 난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식물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유난히 식물과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요인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흙이다. 식물이 그 뿌리를 뚫고 살아가는 흙이다. 식물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 흙만큼 식물과 밀접한 것은 없다. 집안을 구성하는 요소도 부모의 인품을 비롯하여 재력, 사회적 지위, 학력, 인맥 등 여러 가지이듯이 흙을 구성하는 요소도 다양하다. 이러한 구성요소에 따라 식물이 잘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흙의 성질은 한 번 정해지면

그만일까? 그렇지 않다. 환경조건에 따라 나쁜 흙이 좋은 흙으로 바뀌기도 하고, 좋은 흙이 나쁜 흙으로 바뀌기도 한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이 그 흙을 좋은 흙으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 사람과 다른 것은 개천에서 태어나 용이 된 사람은 용들과 어울려 살며 개천을 모르는 척하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식물은 용이 되든 안 되든, 그 개천을 맑은 강으로 바꾸어 놓는다. 흙의 특성을 바꾸는 환경 요인들도 많지만, 흙의 성질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들에 의한 토양 개량이다. 객토는 물론, 비료를 주는 것도 모두 이런 일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흙에 타고난 성질과 성질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다.

흙의 산도, 식물의 생장과 병에도 영향

그런데 흙의 성질 중 '산도' 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토양 중에 돌아다니는 수소이온(H⁺)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0부터 14까지로 구분하며 pH로 표시한다. 즉, pH 7이 한 가운데로서 중성이고, 이보다 작을 때는 산성, 클 때는 염기성(알칼리성)이라 한다. 거의 모든 식물은 약산성에서 잘 자라며, pH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자라기 힘들어진다. 식물이 자라고 있는 흙들도 대부분 약산성이다. 때로는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의 산도가 올라가(즉, pH가 떨어지) 문제가 되기도 한다. pH가 낮아지거나 높아졌을 때 식물이 자라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흙의 pH와 식물병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흙의 pH는 식물의 생장뿐만 아니라 병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물병의 발생이 가장 많은 흙은 약산성이다. 식물이

“
식물은 대부분 중성 및 약산성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가장 크기 때문에 토양의 pH를 6.5 정도로 맞추어야 한다
”

자라기에 가장 좋은 흙이 약산성이라 하겠는데, 병 발생이 가장 많은 흙도 약산성이라니 뭔가 좀 아이러니 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식물이 없으면 살기 힘든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식물과 똑같은 경로로 진화하고 적응해 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디서나 튀는 농들이 있게 마련이듯이 어떤 식물병은 약산성보다는 산성토양에서 발병이 심한가 하면, 또 어떤 식물병은 오히려 염기성토양에서 병이 더 잘 생긴다. 산성토양에서 병 발생이 더 심한 대표적인 병은 십자화과 식물의 뿌리에 사마귀를 만들어 지상부의 생육을 떨어뜨리는 무사마귀병(병원균: Plasmodiophora brassicae)인데, 이 병은 pH 5.7에서 가장 심하게 발병하며, 이보다 높아지면 줄어들기 시작하여 pH 7.8 이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병에 감염된 배추나 무의 뿌리를 보면 작은 사마귀 같은 것들이 생겨서 뿌리가 치토스라는 과자 모양으로 굽어지거나 잔뿌리가 없어지고, 작은 혹들이 달려 있다(사진 1). 지상부의 생육은 현저히 떨어지고 누렇게 변하며, 쉽게 시들기도 한다(사진 2).

반면에 염기성토양에서 더 심하게 발병하는 것으로는 감자의 더듬이병(병원균: Streptomyces scabies)을 들 수 있다. 더듬이병은 감자 과경의 표면에 군데군데 딱지 앉듯이 표면이 코르크한 크고 작은 반점을 만드는데(사진 3), 실제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므로 깎아내고 먹으면 별 문제는 없는 병이지만,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이다. 이 병은 주로 토양 pH가 5.2~8.0일 때 심하게 발생하며, 5.2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문제되지 않는 병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약산성 pH가 식물병원균들이 활개치는 환경이지만, 특정 식물병들은 염기성이나 산성에서 오히려 발생이 심하다. 이렇게 튀는 농들은 흙의 산도를 조정해 주어도 병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즉 산성을 좋아하는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에는 흙을 염기성으로 바꾸어 주고, 더듬이병 같이 염기성을 좋아하는 병을 막으려면 흙을 산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비료의 사용에 따라 토양의 산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식물은 대부분 중성 및 약산성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도 가장 크기 때문에 토양의 pH를 6.5 정도로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산도 측정기 사용 :
측정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 흙의 산도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토양 pH측정기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토양



토양의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

pH측정기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모델로 만들어 내고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진과 같은 책가방 pH측정기로서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다. 경사진 부분을 찌개 박듯이 흙 속에 꽂아 넣고 바늘을 읽으면 된다. 최근에는 막대 모양의 탐침을 흙 속에 꽂으면 디지털액정에 수치가 나타나는 pH측정기도 많이 사용된다.

■ 석회 회석 : 산성토양을 염기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즉 흙의 pH를 올리려면 흙에 석회를 섞어주면 된다. 석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식물재배에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탄산석회(CaCO₃)이고, 그밖에 소석회(Ca(OH)₂)와 석회고토(CaCO₃·MgCO₃)도 사용된다. 그러나 석회 중에서 생석회(CaO)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생석회는 물을 만나면 열을 내므로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석회의 사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는 않다. 실제로 pH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데, 흙마다 '양이온치환용량'이란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을 분석하고 석회사용량을 결정하여 주니,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용법은 석회가 한 곳에 모여서 덩어리지지 않도록 흙에 골고루 섞어주는 것이다.

■ 달걀껍질 사용 : 석회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재료로 가장 좋은 것은 달걀껍질이다. 실제로 필자가 달걀껍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토양 pH의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무사마귀병 방제용 살균제를 사용한 토양에서보다 달걀껍질만을 처리한 토양에서 병 발생량이 더 적었고, 수확량도 더 많았다.

■ 황 사용 : 염기성인 토양의 pH를 낮추고자 할 때는 황을 사용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토양의 pH가 너무 높아 보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흙에 달걀껍질을 섞어주고 배추를 재배하였을 때의 무사마귀병 발생 억제효과. 가운데 줄이 달걀껍질 처리구이며 그 왼쪽이 살균제 처리구, 그리고 오른쪽에 죽은 배추가 많은 줄이 무처리구임.



크리스마스 대표 꽃 포인세티아

글·사진 류재 (파워블로그 류재의 정원<http://blog.naver.com/bomyunny3>)

Poinsettia

학명 *Euphorbia pulcherrima*
꽃색 혼합색, 흰색, 노랑색, 빨강색, 분홍색
향기 거의 없음
생장 높이 100cm
번식방법 삽목
꽃말 축복, 나의 마음은 불타고 있다.

포인세티아는 붉은색이 매우 인상적인 크리스마스의 대표적 식물이다. 긴말 할 필요 없는 겨울의 대표 화초이고 멕시코 원산의 상록 관목이다. 사실 겨울이 없는 곳이 원산지이지만 포인세티아는 단일식물이라 가을~겨울에 개화되고, 선명한 붉은색이 매우 인상적이라 겨울의 상징적인 식물이 되었다.

원래 포엽이 붉은색인 종류가 가장 유명하지만 요즘 품종 개량으로 하얀색, 분홍색 등의 포엽을 가진 종류도 나와 있어 다채롭게 감상이 가능하다. 포인세티아의 물든 잎은 사실 꽃이 아니고 꽃 대신 곤충을 유혹하기 위해 근처 잎이 물든 것이다. 관상기간이 긴 편이기에 겨울 동안 감상하기 좋은 화초이다. 하지만 겨울이 없는 곳이 원산지라 가장 한창인 겨울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래 키우기는 힘들다. 그래도 재배에 숙달되면 개화기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고 실내 기온에 적응을 잘 하므로 겨울철 실내에서 키울만한 식물이다. 참고로 약한 독성이 있어 실수로라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좋은 포기 낙엽지지 않은 것을 고른다.

포인세티아는 태생적으로 추위에 약한데 아이러니하게 추울 때 가장 많이 핀다. 그러므로 좋은 포인세티아를 고르거나 할 때는 윗부분뿐만 아니라 아랫부분도 잘 확인하여 아래 잎이 누렇게나 낙엽이진 것을 피해야 한다.

식재 화분 재배가 좋다.

포인세티아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선호한다. 햇볕을 잘 보여주어야 키가 웃자라 보기 싫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름에는 햇볕의 세기가 강하고 온도가 높아 잎이 타기 쉬우므로 오전에는 햇볕이 잘 들고 오후에는 그늘진 곳에서 관리한다. 포인세티아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노지 재배가 가능하지만 겨울에는 제주도에서도 월동이 안 되므로 화분 재배하는 것이 좋다. 포인세티아는 3m까지 자랄 수 있는 관목이므로 본인이 키우고 싶은 크기에 맞는 화분에 키우면 된다. 화분 흙은 상토에 마사토를 20~30% 섞은 것을 이용하면 좋다. 이 이외의 다른 토양을 사용한다면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으면 된다.

비료 비료분을 좋아한다.

포인세티아는 비료를 좋아하는 식물로 기온이 15°C 이상으로 올라가는 봄부터 늦여름까지 액비를 희석한 물을 3~4주에 한 번 주거나, 알가름을 1~3달에 한 번 공급해 준다. 장마가 오는 시기이거나, 단일처리를 하는 시점부터는 비료를 줄이거나 주지 않도록 한다.

물주기 겉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준다.

포인세티아는 잎이 커서 증산작용도 활발하기 때문에 물도 겉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화초에게 물을 적게 주어야 한다고 하여 포인세티아에게도 물을 덜 주는가 드러들이 있지만 포인세티아는 겨울에도 겉흙이 마르면 물을 바로 주는 것이 좋다. 물을 줄 때는 위에 물방울이 튀지 않아야 한다.

번식 꺾꽂이로 번식한다.

포인세티아는 꺾꽂이 번식이 수월하며 시중에 나오는 포기도 모두 꺾꽂이로 번식된 것들이다. 기온이 충분히 따뜻해진 5월부터 가지를 6~9cm 정도로 잘라 내 흰 유액을 잠시 물에 담가 빼



고 남은 잎들을 절반씩 잘라낸 후, 꺾꽂이 씻은 마사토나 펄라이트에 가지 전체의 1/2~2/3 정도 묻히게 꽃고 물을 자주 주며 관리하면 된다.

개화 유도 대표적인 단일식물이다.

포인세티아는 대표적인 단일식물로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하가 될 때 꽃을 피울 준비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포인세티아의 꽃눈은 10월쯤 만들어져 12월에 개화하게 되는데, 이런 성질을 이용한 단일처리를 일찍부터 하여 꽃을 일찍 피우게 할 수 있다.

단일처리는 포인세티아가 낮이 짧아졌다고 인식하게 하는 행위인데, 포인세티아가 낮을 12시간 이하로 인식할 수 있게 아주 컴컴한 암실에 포인세티아 화분을 하루 12시간 이상(밤 포함) 넣어두면 된다. 이 일은 개화시키고 싶은 시기로부터 2~3달 전에 시작하면 되는데 꽃눈이 보일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야 하고 암실에 넣었을 때 형광등의 빛이라도 새어 들어오면 단일처리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빛이 새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단일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하기에는 꽤 번거로운 일이므로 단일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 개화되는 꽃을 감상해도 된다. 단 포인세티아가 빛에 매우 민감하므로 저녁에 형광등이나 가로등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관리 전정으로 균형 잡힌 화형 유지한다.

개화 후 4~5월이 되어 기온이 충분히 높아졌을 때 지상으로부터 4~50cm만 남기고 줄기를 모두 잘라준다. 전정 당시에는 불쌍해 보일 수 있지만 전정을 해주면 당해 개화할 때 균형 잡힌 모습이 된다. 전정하고 남은 가지로 삼목할 수도 있다.

병충해 가정 재배 시 심각한 병충해는 없다.

포인세티아는 가정에서 키울 때 병충해는 잘 안 생기지만 통풍이 불량하고 고온 다습할 때 온실가루이같은 해충이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그에 맞는 농약을 뿌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화분을 옮겨 재배한다.

월동 추위에 매우 약하다.

포인세티아는 보기와는 달리 추위에 매우 약한데 영상 5°C의 환경에 노출되면 이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최소 10°C 이상의 장소에서 키운다. 포인세티아는 겨울이라 도 15~20°C 정도 되는 장소에서도 잘 자라므로 햇볕이 잘 드는 실내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생나무 트리로 크리스마스 즐기기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생나무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친환경적이면서 인체에 이롭고, 또 자연스럽다.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에도 정원수로 계속 키울 수 있으며, 그것으로 다시 내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도 있다. 생나무의 장점은 이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과도 같다. 그러나 간편하고 쉽게,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에는 또 인조목만한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인조목이 오랫동안 크리스마스 트리의 왕좌를 지켰던 이유이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인조목은 변함없는 인기를 누릴 것이다. 그 속에서 현대인들의 자연귀의주의 성향은 생나무에 대한 인기도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마스 트리용 생나무 BEST 5

과천화훼단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트리용 나무를 만날 수 있었다. 그중 대림원에종묘 문명석 대표가 추천한 최고의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는 구상나무, 나무향이 좋고, 감촉이 부드러워 많이 이들이 찾는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나무가 최고였는데, 전나무의 끝이 날카로워 최근 구상나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단다. 구상나무 전나무외에도 주목, 코니카가문비, 에메랄드그린 등이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수종이다.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문 대표가 추천해 준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 베스트 5의 특성과 관리 방법 등을 알아보자.

구상나무

학명 : *Abies koreana* E.H.Wilson
분류군 : Pinaceae(소나무과)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구상나무는 국내 토종, 한라산 출신이다. 구상나무의 인기 비결은 바로 부드러움이다. 잎의 끝이 전나무처럼 날카롭지 않고, 잎의 감촉이 부드럽다. 자세히 보니 잎의 끝이 하트모양이다. 사랑을 전하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잎의 뒷면에서는 광채도 난다. 은색의 빛이 화려함을 더해 고급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잎이 잘 지라주니 더 예쁘다. 전지 전정 없이도 스스로 조형미를 연출하는 매력덩어리다. 수형이 아름답고 피톤치드 향 또한 강하다. 잎의 뽀아 나감도 견고하다. 중간 중간 여백이 있어 크리스마스 장식용 달기에도 적합하니 과천 한라산 정기가 만든 수목이다. 시중 판매가 150cm 기준 10만원.

주목

학명 : *Taxus cuspidata*
분류군 : Taxus (주목과)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주목은 인기 불변의 대표 조경수이다. 내한성, 내음성, 내공해성이 강해 공원이나 토피어리 등으로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주목은 1년에 2회 이상 전정을 해주어야 한다. 사람의 손길을 좋아하는 수종이다. 그만큼 아름다움으로 대신한다. 맹아력이 강해 수형 잡기가 좋다. 이식력도 좋고 추위에도 강하다. 오래 키울수록 가지가 높아지는 나무이다. 향은 없다. 시중 판매가 150cm 기준 10만원.

코니카가문비

학명 : *Picea abies*, 'Glaucu Conica'
분류군 : Pinaceae(소나무과)

코니카가문비는 외래종이다.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원추형으로 잘 자라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나무의 속이 전혀 뜨지 않고, 스스로 수형을 만들어 내는 기특한 수종이다. 전지 전정을 하지 않아도 정교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품격을 만들어 내는 귀족주의이다.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고급주택, 호텔 앞, 골프장 진입로 등지에서 눈에 띈다. 내한성이나 내음성 내공해성 병해충에 강하다. 잎이 조밀하여 손으로 찰라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맹아력이 강하다. 건조에 강해 화분용으로 길러도 좋은 수종이다. 시중 판매가 150cm 기준 27만원.



▲ 주목

▲ 코니카가문비



▲ 에메랄드그린



▲ 전나무

에메랄드 그린

학명 : *Thuja occidentalis* L.
분류군 : Cupressaceae(측백나무과)

에메랄드 그린은 측백나무를 대표하는 고급 품종이다. 서양측백, 조선측백 등 여러 종이 있는데 그중 최고로 꼽힌다. 밝은 녹색의 잎에서 향기가 난다. 잎과 가지가 조밀하고 원추형의 수형이 지극히 아름답다. 다른 수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빨라 또래들보다 키가 훨씬 크다. 전지 전정 없이도 수형이 곧고 예쁘게 4m까지 자란다. 추위나 병해충에 강해 전구 생육이 가능하고, 최고급 생울타리 소재로 인기가 높다. 공해에도 강해 도심의 아파트 정원, 공원수로도 활용된다. 고급수종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메랄드 그린의 인기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중. 초록색이 짙은 에메랄드 그린과 황금색을 띠는 에메랄드 골드 두 품종이 있다. 시중 판매가 150cm 기준 5만원.

전나무

학명 : *Abies holophylla* Maxim.
분류군 : Pinaceae(소나무과)

전나무는 구상나무처럼 소나무과에 속하므로 모습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구상나무와는 달리 끝이 뾰족해 날카롭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피하는 것이 좋다. 구상나무의 잎과는 달리 뒷면에 은빛을 띠지 않고, 앞면과 동일한 녹색이다. 그러나 구상나무와 같이 원추형의 수형이 아름다워 조경수나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찾는 이가 많다. 구상나무는 부드럽고 전나무는 억세고 거친 느낌의 나무. 이것이 이 둘의 차이이다. 시중 판매가 150cm 기준 5만원.

문의 대림원에종묘(T. 02-575-5933)

생나무 고르기 & 관리 방법

■ 나무 크기는 집의 규모에 맞게 선택한다. 30평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250cm 정도. 이를 감안해 트리용 나무는 120~150cm의 크기가 적당하다. 화분에 심으면 나무의 본래 키보다 20~30cm 커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한다.

■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를 선택할 때는 특히 원추형으로 곧게 잘 자란 것을 선택해야 한다. 나무 밑둥이 반듯하게 잘 올라가고(첫번째 사진), 나뭇잎은 좌우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두번째 사진). 또한 나무는 계속 위로 자라는 습성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상층부의 생장점이 부러지지 않고(세번째 사진) 기형이 아닌 것을 선택한다.



■ 나무를 혼자 옮겨 심는 것이 버거울 때는 종묘상에서 화분에 옮겨 심은 후 집으로 가져와도 좋다. 종묘상에서는 용토를 함께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화분만 가져가면 심는 것을 도와준다. 과천 화훼단지에는 화분 파는 곳도 많아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

■ 화분 크기는 나무 수종이나 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50cm의 나무를 구입했을 때, 지름이 45cm 정도이면 적당하다. 분갈이는 2년 정도 후 해주면 된다.



■ 화분에 옮겨 심은 후에는 물을 흠뻑 주고, 이후에는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을 준다. 물주는 횟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좀더 자주 주며 습도를 유지해 준다. 가실보다는 배란다나 정원과 같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운다. 11~3월 초까지는 생육이 정지되는 휴면기인 만큼 나무의 활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나무는 광합성으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시간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 봄이 오면 실외로 옮겨 키우는 것이 좋다. 마당이나 실외 정원이 없다면 통풍이 잘 되는 배란다에서 키워야 된다. 실외 정원으로 옮겨 심을 때는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도 고려해 위치를 정한다. 대문 입구의 좌우측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식재하여 내년 크리스마스에도 멋진 트리를 볼 수 있도록 한다.

■ 나무는 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침에 눈을 뿜을 때부터 나무를 관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 식물은 실내 환경에 민감하다. 실내가 건조하면 윤기가 나지 않는다. 공중습도를 맞추어 주고, 중간 중간 잎에 스프레이를 해 주어 수분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가지나 잎이 자라서 나무속이 조밀해지면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솎아주기도 한다.

경기가 좋지 않고 일찍 찾아온 추위 덕분에 크리스마스 시즌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느낌이다. 발 빠른 유통업체들은 이미 10월말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에 돌입했고, 거리에는 대형 트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1월이 되니 일반 가정예까지 크리스마스 준비로 분주해졌다. 서울의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꽃시장도 일찍부터 크리스마스 특수에 돌입,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고속버스터미널 3층 꽃시장은 크리스마스 시즌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 그곳에서 전해지는 올해의 크리스마스 트렌드는 따뜻한 소재와 파스텔톤 컬러를 이용한 포근함이다. 크리스마스의 주연인 트리는 여전히 화려하고 다양하다. 그럼에도 화려한 조연들의 등장이 더 눈에 띈다. 트리 장식만이 전부였던 과거와는 달리 북유럽풍의 파티 개념이 정착한 듯 트리와외의 소품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한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의 등장이 구매심리를 자극하기도 하고, 화려한 파티를 예고하기도 한다. 리스의 변신도 한 몫한다. 트리가 화려하다면 소박함에 매력이 있는 리스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포인트가 되어 크리스마스 운치를 내는데 제격이다. 컬러는 파스텔톤이 유행이다. 마린 블루와 화이트 컬러의



▼ 인조목 트리

2013 크리스마스 데코 트렌드 따뜻한 울사 패브릭 소재 & 고급스러운 파스텔톤 컬러 유행

조화, 올리브 그린과 브라운 컬러의 하모니는 부드러움과 함께 세련됨을 더했다. 물론 메인 컬러인 레드도 포인트 컬러로 빠지지 않았다. 오너먼트 역시 파스텔 컬러로 치장했고 더 다양해졌다. 울사 느낌의 소재와 펠트 등 패브릭을 이용한 소재들이 대거 등장했다. 겨울이다 보니 매끄럽고 화려한 플라스틱이나 유리볼 보다는 집안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줄 것 같은 복슬복슬한 느낌의 소재들이 많다. 실을 감아놓은 듯한 실뭉치와 니트, 캐시미어, 펠트 소재의 리본 등이 대체. 자연스러움을 더해주는 솔방울도 크리스마스 메인 아이템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제 몫을 냈다.



전나무 트리

핸드메이드로 제작하여 모던함이 전해지는 정사각형 큐브스타일 화분에 전나무를 심었다. 오너먼트 역시 실, 형견 등의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해 트리를 꾸몄다.



인조목 트리

양장맞은 인조목을 이용해 완성한 트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랑스러움을 더했다. 동그란 앵두 전구를 사용해 더 귀엽고, 형견 인형과 상충부에는 별을 달아 아이들의 꿈을 표현했다.

포인세티아 리스

은엽아카시아, 석류, 성담쟁이, 아이비, 목화를 이용해 리스를 완성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포인세티아를 넣어 화려함과 운치를 더했다. 포인세티아를 제외하고 드라이잉이 가능한 소재로 이루어진 사랑스런 리스이다.



크리스마스 가드닝

자연 질감의 에틱 화분에 공기정화능력이 탁월한 아라우카리아를 중심으로 포인세티아를 식재했다. 다양한 크기의 포인세티아를 통해 리듬감을 주었고, 연두빛 호야를 넣어 화사함을 더했다. 또 기암석을 넣어 가드닝 느낌을 더욱 살렸다. 오너먼트는 나무인형과 실을 이용한 와이어별과 천으로 만들어진 하트를 걸어 장식했다.





자연 소재로 재미를 더하다

Lovely hanging Tree



▲ 행잉트리 완성

식상한 나무 트리는 가라. 최근 트리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고 다양한 트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나무 이외의 재료로 나만의 창작 트리를 완성하는 것이 대세다. 재료의 한계는 없다. 생활 속 모든 소재가 트리의 재료가 된다. 종이를 이용해 작은 테이블용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폐품을 활용한 재활용이 멋진 창작품 트리로 완성되기도 한다. 트리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걸여지거나 벽면에서 평면으로 장식되는 인테리어 도구로도 쓰인다. 가족사진을 벽에 붙여 삼각형 모양의 트리를 완성하기도 하고, 전구를 붙이거나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개성 있는 트리는 완성된다. 개성

파들의 무한한 아이디어 전쟁. 연말 파티를 더욱 화려하고 감성하는 즐거움을 더해주는 요인이다. 영선꽃방의 송영선 플로리스트는 자작나무 가지를 이용하여 행잉 트리를 만들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를 털실로 엮어 삼각형의 벽걸이 트리를 완성했다. 오너먼트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강한 펠트 소재를 선택했다. 앙상한 겨울나무에서 새들이 겨울을 나는 풍경이다. 앙상한 나뭇가지는 조류와 동물들이 찾아들어 풍성한 자연으로 다시 태어난다. 행잉이라서 벽이나 문에 걸어두면 공간의 부족함을 덜어주기도 해, 시즌 이후에도 훌륭한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영선꽃방

<http://ggmobile.kr/028177188>

Tel.02-817-7188

가을 전정 후 남은 가지 재활용

나뭇가지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가을에 정원의 정지, 전정 후 부산물인 나뭇가지로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보자. 큰 가지가 많다면 스케일을 키워서 실외에 설치해도 멋진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재료

글루건, 빵 끈, 나뭇가지, 스프레이, 조화, LED 은하수등



만들기



1. 나뭇가지에 흰색 락카를 뿌리고, 마르기 전 은 가루를 뿌린다.
2. 칠이 완전히 마른 나뭇가지를 잘라 두 가지를 빵 끈으로 묶는다.
3. 삼각형 형태가 되도록 세워 세 가지를 묶는다.
4. 삼각형 형태의 사이사이에 잔 가지로 서로 겹치게 묶어 준다.
5. 포인세티아 조화를 글루건으로 고정시킨다.
6. 열매를 글루건으로 고정시킨다.
7. LED등을 가지를 따라 전체에 감싼다.
8. 고정 잘 되었는지 확인 후 전기를 연결한다.
9. 완성.



크리스마스 데코 제안 I

성냥팔이 소녀도 반할 동화 속 스타일

성냥팔이 소녀가 본 집의 풍경이 이리할까. 유난히도 밝게 느껴지는 촛불은 마치 벽난로에서 피지는 온기처럼 따사롭다. 깨끗한 흰 벽돌을 배경으로 한 그레이 그린과 브라운톤의 파스텔 컬러의 하모니가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솔방울도 포인트 소재가 되어 자연스럽다.

Tree 1m도 채 되지 않은 아담한 크기의 트리. 펠트소재와 솔방울만으로 귀여운 트리를 완성했다. 투박한 듯한 바늘땀의 처리조차 포인트가 된다. 식탁 책상 콘솔 서랍에 올려놓으면 좋을 듯하다. 가격 34,900원

Candle set 캔들의 화려한 변신. 단순한 듯한 캔들링 하나만을 더했는데, 불릴불릴한 분위기의 크리스마스 느낌을 연출한다. 예쁜 포장박스를 그대로 선물해 줘도 좋은 아이템이다. 가격 8,900원

Wreath 테이블이나 콘솔 위의 센터피스로도 사용 가능하고 선물용으로도 좋은 인기 아이템이다. 잎이 풍성해 자연스러움을 더하고, 오너먼트가 된 크고 작은 구슬이 볼륨감과 화려함을 추가했다. 가격 29,900원



크리스마스 데코 제안 II

황후의 영화 화려한 로코코풍 스타일

필이 들어간 브론즈 데코가 강렬하다. 파스텔톤의 고급 스러움과 천연 재질을 이용한 자연스러움이 대세라는 이 시대 흐름과는 대조적인 브론즈를 이용해 이채롭다. 평범한 것은 싫다. 나만의 화려함과 강렬함을 추구한다면 이런 풍의 크리스마스 데코에서 아이디어를 훑쳐봐도 좋을 듯하다.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발상. 그래서인지 1000년 역사를 가진 신라시대의 영화가 떠오른다. 금은 보화로 치장된 여왕의 장신구처럼, 천연유물이 시대를 거슬러 파티의 중심에 섰다. 21세기의 화려함에 반기를 들며, 화려함의 진수를 보여준다.

Tree 브라운 트리는 그린의 트리와는 또 다른 계절감이

가미된다. 보기에는 앙상한 겨울이지만 1년을 담은 풍성한 계절로 완성했다. 브라운 컬러가 주는 단조로움 없이 화려한 컬러의 향연이 펼쳐지는 트리이다. 열매처럼 매달린 불이 탐스럽고 포인트가 된다. 가격 24,900원

Candle set 차가운 브론즈가 캔들을 만나 강렬해졌다. 브론즈의 색과 불빛이 환상적인 공감을 이루며 따뜻한 실내분위기로 승화된다. 가격 8,900원

Wreath 왕후의 왕관이 연상되기도 하고 월계관의 모습도 보인다. 로코코 시대의 화려함과 사랑스러움도 묻어나는 리스이다. 작은 구슬 장식이 귀여움을 더해준다. 가격 29,900원





Merry christmas!

단호박크림스프

한 접시에 내놓을 수 있는 크기의 미니 단호박을 준비했다. 단호박은 두경으로 쓸 수 있게 윗 부분을 잘라낸 뒤, 속의 씨앗을 잘 파내어 전자렌지에 램을 썬 뒤 구멍을 내 준다. 그리고 1개당 8분씩 돌리면 알맞게 찌진다.

단호박 2개를 준비한 이유는 하나는 속을 파내어 으갠 뒤 크림스프의 재료로, 또 한 개는 단호박 크림스프를 담을 용기로 선택했다. 따로 예쁜 용기에 담아 내어도 무방하니 단호박은 1개로도 사실 충분하다. 제철에 맞는 단호박은 단 맛이 강해 따로 설탕을 가미하지 않고도 달달한 맛을 낸다. 겨울철 영양을 채워주는 제철 음식으로도 적당하다.

일반 수저 크기의 버터 1스푼과 밀가루 3스푼을 일회용 장갑을 끼고 골고루 섞어 준 뒤, 가열하면 버터반죽처럼 돌돌돌 뭉치게 된다. 이때 우유 2팩을 넣고 중불로 잘 저어 준다. 이후 생크림 1/2를 넣고 잘 끓인 후 으개어 둔 단호박을 넣고 크림스프를 만든 뒤 믹서기에 넣고 잘 갈아 부드럽게 만든다. 소금, 후추 등으로 간을 맞출 수 있다. 부드럽고 진한 단호박크림스프가 완성되면 준비해 둔 단호박 용기에 잘 담는다.



단호박 크림스프를 곁들인 쇠고기야채볶음

서양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칠면조 요리를 많이 즐긴다. 그런데 그런 풍속은 칠면조가 대량 생산된 20세기 이후이고 그 전까지는 대부분 소고기가 쓰였다고 한다. 요즘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한 소고기를 이용한 크리스마스 정찬을 소개한다. 소고기를 사용하지만 메인은 아스파라거스와 로즈마리, 단호박 등 그린색의 야채들이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기를 바라면서 '해피 그린 크리스마스' 요리로 화이트크리스마스를 즐기기를 기대해 본다.

글·사진 윤자영 요리연구가



재료

미니단호박 2개, 로즈마리, 마늘, 표고버섯, 스테이크용 소고기, 휘핑크림, 버터, 밀가루 3큰술, 우유, 아스파라거스, 래디쉬

스테이크

로즈마리와 마늘을 버터에 잘 볶은 후 스테이크를 살짝 굽는다. 스테이크에는 로즈마리라는 허브가 가장 잘 어울린다. 참고로 해산물 요리에 쓰이는 대표적인 허브로는 오레가노가 있다. 말린 표고버섯은 영양가가 일반 버섯보다 두배나 높다고 한다. 말린 표고를 미리 30분 정도 불려 놓았다가 물기를 손으로 꼭 눌러서 짠 뒤 고기와 함께 익힌다.

그릇에 스테이크와 단호박스프, 아스파라거스와 래디쉬로 연출을 한다. 따뜻한 스프와 함께 먹는 스테이크는 크리스마스 손님상으로 안성맞춤이다. 준비를 못 했지만 바게트에 버터를 바르고 마늘과 로즈마리를 얹어 오븐에 구워 곁들이면 더욱더 풍성한 파티를 연출 할 수 있다.

한 해를 마감하는 크리스마스, 보고 싶었던 친구들과 함께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크리스마스 기분이 날 수 있게 작은 소품 혹은 포인세티아 화분을 준비한다면 하루뿐이지만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다.





빗물 을 활용한 NEW 옥상정원모듈 에코마루시스템

글 박공영
(우리씨드 회장, 이학박사, 현 한국조경사회 생태분과 위원장)

지난 15일 우리씨드 농장에서는 우리씨드 지식나눔축제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7번째 개최한 2013 지식나눔축제는 말 그대로 우리씨드의 지식을 나누기 위한 축제의 장이다. 우리씨드가 그동안 연구 개발한 신기술을 공유하고 나아가 녹색도시 성장을 꾀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금번 지식 나눔 축제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기술적 가치는 특히 지구 환경과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논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연을 도시로 끌어들이며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에 연구의 핵심이치가 있다. 축제에 참가한 많은 관계자들은 특히 옥상정원의 에코마루시스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옥상정원의 기본 효과에 충실한 연구

일반적인 옥상은 매우 건조하다. 때문에 옥상정원을 꾸밀 때 주로 내건조성이 강한 기린초나 큰 켄피비름과 같은 다육성의 식물들을 이용한다.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장치들을 한다. 이 모든 것은 옥상이라는 환경제어를 위한 장치인 것이다. 바로 무게와 방수 문제

등의 핵심적 난제들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옥상정원의 본래 효과에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금번 발표된 에코마루시스템은 옥상정원 본래의 목적과 효과에 충실하기 위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국가에 해당된다. 그러나 도시의 도로나 건물들의 콘크리트 바닥은 빗물을 빠르게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홍수나 가뭄과 같은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내리쬘는 태양 복사열은 도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고,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에너지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여름 빗물을 이용해 연중 물 관리 가능

에코마루는 옥상에 빗물을 10~30cm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 물위에 마루층을 만들어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거나 토양층을 형성해 옥상정원을 구성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이 시스템은 설계 당시부터 옥상에 방수처리를 한다는 것에 기본을 둔다. 때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게가 좀더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옥상의 하중에 따른 문제는 건물의 설계시 반영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기존의 중량형에는 바로 적용 가능하다. 에코마루시스템을 이용하면 옥상이 새로운 세상인 된다. 우선 여름에 집중되는 빗물을 이용해 연중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일부러 관수



를 하지 않아도 식물이 알아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적응식물은 일반적인 수생식물은 물론 어떤 식물도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해 일반 지상에서와 같은 아름다운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에코마루를 이용한 입체식 정원은 옥상정원을 숲으로 변신 시키고 도시형 텃밭과 꽃가동도 조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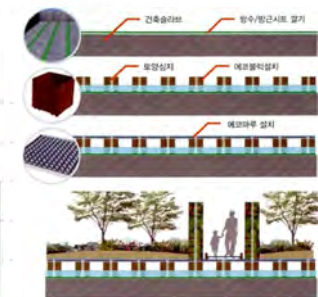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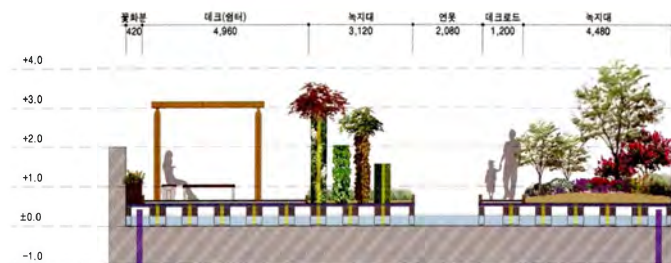
실내 12℃까지 낮춰 에너지 절감 효과

에코마루시스템을 적용한 옥상정원의 최대 강점은 여름철 실내 온도를 평균 2.0~2.6℃를 낮출 수 있고, 최고 3.8~4.9℃나 낮출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벽화수를 이용하여 벽면녹화를 겸하면 평균 5.2℃, 무더운 날에는 최고 12.8℃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실내 평균 온도는 28℃를 넘지 않게 되고, 최소한의 냉방만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장받는다. 이를 서울시 전체 건축 면적에 적용할 경우, 연간 400kw의 냉방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이는 100kw급 화력발전소 4개를 짓는데 발생하는 비용 2조 8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서울시 건축 현황을 기준으로 2003년도 이후 새로 증가된 공동주택지와 상업용 업무시설 건축물은 약 1,000ha 정도이다. 이는 서울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감소 면적의 절반 정도 건축물이 신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신축된 건물에만 저면 저수 옥상녹화를 시공하더라도 2012년의 경우 약 1,940만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규모이다. 서울시 전체 건축물에 적용한다면 소양강댐의 홍수 조절 용량의 100%를 초과하는 5억 3천만 톤의 저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구 환경도 살리고 우리의 생활환경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점까지 확보할 수 있는 훌륭한 옥상녹화의 대안이다.



에코마루시스템 구성요소



수직식생모듈의 저면관수 성능 시험 및 결과

1m 모듈



2m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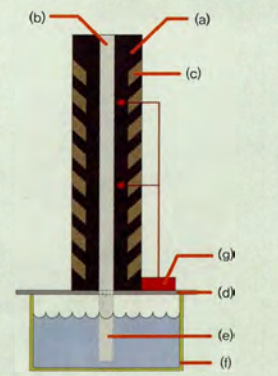


3m 모듈



저면 관수 시작 57일째 식물의 생육 상태

- 지름 10cm 모듈은 전 모듈에서 1m 높이 생육유지
- 지름 30cm 모듈은 2m 모듈의 경우, 제라늄을 제외하고 1~1.5m 높이까지 생존
- 지름 50cm 모듈은 2.5m~3m 높이까지 생존



(a) 높이 3m, 지름 50cm 무공관 중앙에 설치, 나머지 상토로 채움, (b) 높이 3.3m, 지름 10cm 내외 무직포 심지 내부에 표(2)의 재료로 채움, (c) 플러그모듈을 좌우 10cm 간격으로 3개씩 높이 30cm 간격으로 식재(기판체 1개당 총 30개), (d) 50cm 무공관은 물에 담지 않도록 데크에 또는 널빤지 등으로 받침대를 설치하여 간격을 띄우도록 함, (e) 설치 부위에 물 속 에 잠기도록 함, (f) 1000 용량 플라스틱 저수용기에 저수, (g) 토양수분 측정 센서를 높이 1.5m, 2.5m 부위에 삽입



소통과 교육, 문화적 공간

커뮤니티 정원형 가든센터 가든조아 오픈



신개념 가든센터가 드디어 한국에도 상륙했다. 가든센터라는 단어조차 아직은 생소한 국내 가든문화에 소통과 교육,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가든센터 '가든조아'가 오픈돼 가든센터의 뉴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가든센터란 말 그대로 가든 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최근 가드닝 붐이 일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이렇게 할 가든 용품을 판매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서울 경기관에서는 양재꽃시장이나 과천화훼단지, 강

남고속버스터미널 상가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도. 가든센터라는 타이틀로 전문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미림가든센터 정도이다.

이와 같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인 가든센터의 오픈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커뮤니티 정원형 가든센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단순한 가든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라 소통과 교육, 문화적 콘텐츠를 포함한 정원형 가든센터라 하니 더



이채롭다.

가든조아의 '소통'은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소통, 그리고 방문객들 간의 소통, 그 두 가지를 의미한다. 센터 내 출입구 좌우로 사무실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곳이 바로 소통의 창구라고 한다. 소비자의 니즈를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체크하고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는 경영방침 아래 사무실을 센터 내에 위치시켰고, 방문객들의 휴게를 위한 카페를 좌측에 배치시켰다. 카페에서는 커피와 허브차 등을 제공(차후 판매 예정)하는데, 가든센터 안에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에 자유롭게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다. 물론 밖으로 가지고 나와 자연을 벗 삼아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해도 좋겠다.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 체험 학습장

교육 사업은 가든조아의 핵심사업이자 우리씨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우리씨는 가든센터 운영을 통해 단순한 이윤창출이라는 상업적 목적을 넘어, 국내 가든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고 성장 동력이 되었다는 각오를 싣어가고자 한다. 우리씨는 지난 10여년 이상 '우리꽃'과 '벽화꽃'을 통해 성장 발전, 조경업계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금번 우리씨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선진 가든문화 조성을 위한 선봉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씨는 어린시절부터 자연이나 정원과 친해져서 문화적 소양을 갖춰야 선진 가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데에 착안, 아이들이 정원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정원 체험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물론 성인 아마추어 가드너들을 위한 아카데미도

꾸준히 지속한다.

어린이 체험 교육장은 가든센터 가장 깊숙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아기가기한 소품으로 꾸며진 전시 및 체험공간이다. 야채를 비롯한 식물들이 우스꽝스럽게 장식한 포트에 심겨져 있고, 아이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흙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춘 플랜트 박스가 가운데 놓여 있다. 발아래로는 시멘트가 아닌 카펫처럼 부드럽고 클러버 등으로 식재되어 있는 바다가 신발 속까지 부드럽고 폭신한 감촉을 전한다. 식물의 성장 과정이나 나무 이야기 등을 이야기처럼 풀어낸 플랜카드도 체험장 곳곳에 인테리어처럼 장식되어 있다.

센터내 체험장이 주 무대가 되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씨앗을 통해 관찰력과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씨앗친구만나기 프

로그램부터 꽃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식용꽃으로 화전 만들기, '인형이 자라요' 토끼여리를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식물의 다양함을 보여줄 압화만들기 등이 아이들의 꿈과 상상을 펼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자연을 관찰하며 계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즌 테마 프로그램도 개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원주의 돼지문화원이나 이천 농업박물관과 연계한 1박2일 프로그램도 계획돼 있다.



다양한 고품질 정원용품 전시 판매

소통과 교육, 이 모든 것을 담은 가든센터의 백미는 역시 판매 전시장이다. 고품질의 제품 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의 풍요로운 가든생활의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당찬 포부를 담고 있다. 가든생활의 가장 필수 아이템인 전정가위나 분무기, 장갑, 플랜트박스 등의 소품에서부터 액자, 새장, 정원램프, 계단형 나무화단 등의 인테리어 장식품까지 다양하다. 야외정원용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그늘 등의 정원가구도 전시 판매되고 있다. 가격대는 1000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 고품질의 제품을 시종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가든센터에서는 나무향이 그윽하다. 가을이라 더욱 그러하지만 가든조아의 유리온실은 계절의 향까지 담아내고 있다. 유리라는 특성이 자연의 향을 투과시킬 리 만무한데, 실내 인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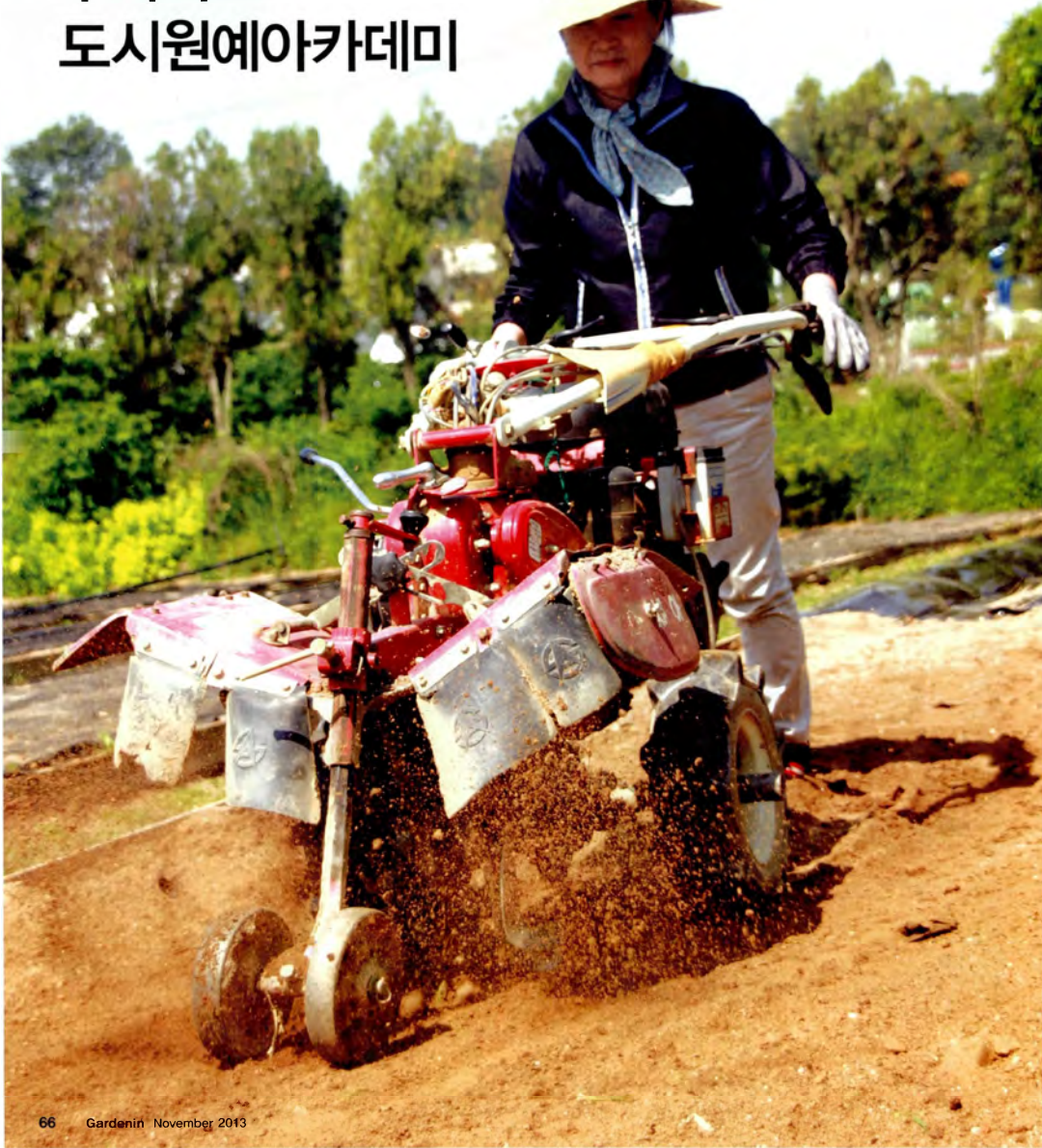
를 나무와 같은 천연 자연에 의존했고, 외관 역시 갈색톤의 컬러를 사용해 자연을 담는데 충실했기 때문이다. 유리온실의 고급스러움과 실내 자연 인테리어의 조화, 그리고 그 가든센터를 어머니 품처럼 아늑하게 품고 있는 우리씨 농장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점이다. 회환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곳으로 훌쩍 떠나 차 한잔을 즐겨도 좋을 듯 하다. 커피도 공짜, 1만여평의 자연을 눈에 담은 것도 공짜, 덤으로 계절을 모르는 온실내의 화려한 꽃도 감상할 수 있으니 결코 기를 값이 아깝지 않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국내 최초의 신개념 가든센터를 만날 수 있다.

가든조아 : 031-712-7001



도시원에 수업의 최강자로 군림 우리씨드 도시원예아카데미



끝나지 않는 수업.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의 수업은 계속됐다. 2013년 제4기 아카데미의 공식 일정이 끝났음에도 수강 회원들의 이천행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습관처럼 시작된 걸음이지만 이제는 애착이 되어 발길을 끊지 못한다. 수강 회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며 아카데미는 지난 3개월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힘 없이 달려왔다. 목표는 없었지만 지루하지 않았던 일정. 한 주 한 주 주옥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짧다면 짧은 단기 과정이었지만, 농사로 친다면 1년 치 농사를 거뜬히 해낼 만큼 수업은 한해의 정원과 텃밭 관리에 대한 모든 해법들을 제시했다. "서울에서 이천까지 먼 길이었지만 하루도 빠질 수 없었다"는 수강 회원들에게 "빠지면 손해"라는 생각이 각인된 듯 열성이었다. 비움 때문만이 아니라 매회 다른 강사와 그 강의 내용이 마치 도시원예를 위한 족집게 맞춤형 과외처럼 진행됐기 때문이다. 역시 우리꽃이었다는 칭찬 일색이다. 때문에 그 누구의 강요 없이 그들은 충성고객이 되었고 아카데미 홍보대사가 되어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

전문 강사진과 현장 교육으로 차별화 부각

4기 회원들은 이미 지난 기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초보딱지를 댔 고수들이 대부분이었다. 프로그램과 강사진들은 그 회원들의 수준에 맞춰 실전 심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강사진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신화를 이끈 이순영 소장부터 조경업계의 대표적 브레인이자 선구자인 우리꽃 박공영 대표. 수목과 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로 꼽히는 김광두 교수, 도시농업연구회의 회장 겸 서울여대 이종석 명예교수, 현장 경험을 통해 텃밭관리에 대한 비법을 제시한 유봉수 이천시 농업인 상담소장 등이 강사진에 합류했다.

교실에서의 이론 수업보다는 현장 체험 위주로 진행된 수업은 지난 5월 말 대





를 기획하고 국화분재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분재작 완성을 위한 정성과 그 작품이 주는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뜻을 밝는다. 지난 6월 초, 국화분재 첫 수업을 위해 이천 강의실을 찾은 이 소장. 그 손에는 볼품없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다. 꽃은 없고, 답수룩한 더벅머리의 녹색 잎만 무성한 초라한 포트. 금방이라도 시들어버릴 듯했다. 화장이 없는 여인네처럼 생영력도 화사함도 향기도 없는 그런 화분이었다. 그런데 그 꽃으로 11월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어이상실. 의문을 자아냈다. 그렇게 시작된 분재전시회이다. 처음 분재를 접한 이들에게 더벅머리 국화꽃은 꽃이 아니라 의문투성이였다. 그 초라한 첫 만남 이후에도 국화는 좀처럼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잎을 다듬고, 가지를 치고, 철사로 감아 수형을 잡아주고, 물도 주고, 온실에 놓았다가 노지로 옮겼다가, 다시 뿌리를 돌며 붙여 석부작을 만들고, 화분을 옮겨보아도 초보자의 눈에는 그저 그런 관엽식물

같았다. 꽃은 언제쯤 피고 언제쯤 아름답다는 것이 느껴질까. 취재를 목적으로었지만 수강 회원들 사이에 끼어 분재 만들기에 참여했던 나는 기다림에 지쳐갔다. 사실 일찍부터 포기해 버린지도 모르겠다.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묻어 갔다. 다른 회원들이 정성을 쏟는 틈에 끼어, 관리가 되고 물이 주어지는 것을 애써 모른 채 하며 무관심했다. 마치 뼈꾸기가 남의 동지에 알을 낳고 길러지기를 바라는 양 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런 후 전시회장에서 만난 나의 국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화초는 주인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데, 웬일인가. 보란 듯이 잘 자랐다. 외면 받던 설움을 토해내는 것인가. 기쁨 있고, 화려하고, 풍성했다. 그 어떤 미사여구가 필요치 않을 만큼 축경의 예술세계를 온몸으로 품어냈다. 감탄과 감동. 그 자체였다. 향기가 뼈 속까지 스며들며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되살아났다. 암체 참여자의 마음이 이러한데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은 수강 회원들의 마음은 어



뭇겠는가. 가슴 벅찬 감동의 도가니일터. 그들의 지난 시간에 찬사를 보낸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심해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국민 시인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가 떠오른다. 이렇게 예쁜 감쪽소를 준비하기 위해 그 초라한 국화포트는 에너지를 감춰두고 비축했던 모양이다. 한편 국화전시회는 이순영 소장의 국화분재만들기 맛보기 강의와 함께 윤정식 교수의 허브스프레이 만들기 체험 행사까지 병행된 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화분재전시회 출품된 품종



미까도

화색 : 황
생장 : 중간종
화기 : 중 (10월29일)
화형 : 아네모네
특징 : 줄기 갈라짐 매우 적음, 줄기 굵어짐 매우 우수, 뿌리 굵어짐 매우 우수, 줄기 매우 유연함, 버들은 발생 보통, 고간(古幹) 사용 매우 우수
단점 : 버들은발생 후 가지 3개로 분지됨
수형 : 목부, 석부, 모양목, 직간형, 시간형, 현애형, 고간작, 쌍간, 삼간, 근상, 벌취, 연근, 소품 등



나비아가씨

화색 : 황
생장 : 장간종
화기 : 만만 (11월10일)
화형 : 아네모네
특징 : 줄기 갈라짐 매우 적음, 줄기 굵어짐 매우 우수, 뿌리 굵어짐 매우 우수, 줄기 매우 유연함, 가지 하향성, 버들은 발생적음, 목피 고목색, 고간(古幹) 사용 우수
단점 : 개화기가 늦음, 꽃목 도장, 과습조건에서 공중발근 현상(줄기에 뿌리 발생)
수형 : 고간작, 석부, 목부, 모양목, 현애형, 풍향목 등



백조 (白朝)

화색 : 백 (개화초기 연황 미색, 개화중기 순백색, 개화후기 연보라색)
생장 : 중간종
화기 : 중만 (11월5일)
화형 : 아네모네
특징 : 줄기 굵어짐 우수, 뿌리 굵어짐 우수, 줄기 유연 보통(부러짐), 버들은 발생 보통, 고간(古幹) 사용 우수
단점 : 줄기 갈라짐 많음, 여름철 고온기 뿌리가 약함
수형 : 목부, 석부, 직간형, 시간형, 현애형, 모양목, 쌍간, 삼간, 근상, 벌취, 연근, 풍향목 등



나비번영(나비繁榮)

화색 : 황 (개화 후기 및 저온에서 단풍색으로 변해감)
생장 : 단간종
개화기 : 중 (11월2일)
화형 : 아네모네
특징 : 줄기 갈라짐 적음, 줄기 굵어짐 매우 우수, 뿌리 굵어짐 매우 우수, 가지 상향성, 버들은 발생 적음, 고온기 급성장
단점 : 줄기 유연하지 않음(잘 부러짐), 저온기 생육 매우 저조
수형 : 방산형, 소품, 합식형, 직간형, 쌍간형, 삼간형, 주립형, 근상 등



용백(龍白)

화색 : 백 (통상화 황색, 개화 후기 및 저온에서 연보라색으로 변해감)
생장 : 단간종
화기 : 중조 (10월26일)
화형 : 홑꽃 (2겹)
특징 : 줄기 갈라짐 매우 적음, 줄기 굵어짐 매우 우수, 뿌리 굵어짐 매우 우수, 줄기 매우 유연함, 목피 고목색, 버들은 발생 적음, 고간(古幹) 사용 매우 우수
단점 : 잎이 큼, 겨울철 매우 단간으로 로제트화 됨
수형 : 목부, 석부, 모양목, 직간형, 고간작, 쌍간, 삼간, 근상, 벌취, 연근 등



월후사자(越後獅子)

화색 : 적색 (통상화 일부분 황색)
생장 : 단간종
화기 : 중 (10월29일)
화형 : 아네모네
특징 : 줄기 갈라짐 매우 적음, 줄기 굵어짐 보통, 뿌리 굵어짐 매우 우수, 줄기 매우 유연함, 버들은 발생 적음, 여러해살이(古幹) 뿌리 매우 우수
단점 : 줄기 부파생장 속도가 보통임
수형 : 직간형, 쌍간, 삼간, 목부, 석부, 고간작, 모양목, 근상, 연근 등

겨울 정원 Winter Garden



31안원대학 화해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출판화교수 <http://www.gardenin.com>



1년 단위로 계절이 바뀌는 온대 지방에서는 가을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나무나 풀도 있고, 잎이 누렇게, 붉게 또는 짙은 갈색으로 변색한 채 낙엽지지 않는 나무나 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잎이나 꽃이 수명을 다하거나 시들어 녹색에서 다른 색으로 변색하거나 구부러지거나 뒤 틀리면 다음 계절을 기약하며 잘라 정리해 버린다. 그래서 겨울이 채 되기도 전에 낙엽은 깨끗하게 쓸어 모아지고 다 년초들은 밀동만 남기고 잘려진다. 그러면 겨울의 정원은 잘 정리되고 깨끗한 것 같지만 텅 비고 황량해진다. 필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실습정원에는 다년초가 많은데 가을에 시들고 변색해도 자르질 않고 그대로 겨울을 보낸다. 봄이되어 새순이 나기 전에 잘라 정리를 한다. 다음 해에 교육할 학생들이 정원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도록 하는 목적으로 있지만, 다양한 색과 형태로 변한 다년초들로 가득 찬 겨울 정원은 정리가 된 텅 빈 정원보다 자연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마른 풀 위에 눈이라도 쌓이면 또 한번 색다른 정원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작년 가을에 학교 전체 정원을 관리하는 조경팀 직원들이 낙엽을 긁어모으다 내 일을 덜어준다고 내가 없는 사이 정원의 다년초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려 실랑이를 한 적이 있다. 모두들 깨끗

Winter Garden





Winter Garden



하게 정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유럽에 있을 때 겨울에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유명 가든(garden)을 방문한 바 있다. 소규모 가든은 겨울에 대부분 폐장하지만 입장료가 주요 수입원인 유명 가든들은 겨울에도 관광객이 있으면 경영에 유리하므로 연중무휴인 가든이 많다. 한국과 비교해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이 따뜻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겨울에도 파란 잔디를 심기 때문에 잔디는 겨울 정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데번(Devon)에 있는 영국왕립협회 소속의 로즈무어 가든(Rosemoor garden)을 방문한 그 날은 비도 오고 눈까지 내렸다. 파란 잔디와 낙엽이 저 수형이 드러난 아름다운 낙엽수들과 잎이 파란 상록수를, 그리고 여러 색으로 변색되면서 말랐지만 무리지어 있는 많은 다년초들, 특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라스류가 가득 찬 로즈무어 가든에서 아름다운 겨울 정원을 보았다. 특히 눈이 오는 겨울에 시비리가 말채나무의 붉은 줄기는 눈이 부시게 빨갛고, 애기사과를 비롯한 붉은 열매가 달린 유실수는 겨울 정원의 백이었다. 그해 겨울 영국왕립협회에원의 가든 집지(The garden)는 겨울 정원의 사진으로 표지를 장식하고 겨울 정원

의 기쁨(winter garden delight)이란 말을 표지에 실으면서 겨울 정원 한 곳을 소개한 것을 보았다. 정원을 디자인할 때는 식물이 4계절을 지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염두에 두어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할 자리를 정해야 한다. 특히 겨울을 지나는 식물의 크기와 형태, 색, 질감을 잘 고려하면 황량하고 심심한 겨울 정원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몇년 전 서울 성북동의 한 단독주택의 정원(약 500평 규모)을 보수하는 일을 맡은 후배를 따라 현장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으러 간 적이 있다. 주택을 지으면서 3억 원을 들여 정원을 만들었는데 겨울에 정원이 너무 쓸량하다고 1년 만에 다른 업체에게 정원 보수 요청을 한 것이었다. 여름에 본 정원에는 자작나무와 나무수국이 가득 차 풍성하고 아름다웠지만 상록수가 적고 식물의 종류가 단조로워 낙엽이 지면 경사지에 있는 집안이 다들 여타보고 쓸량하기 때문이었다.

후배는 자작나무와 나무수국을 많이 제거하고 3m가 넘는 아름다운 에메랄드그린 측백나무와 스카이로켓 향나무를 여러 주 심고 또 에메랄드그린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거나 블루베리 등의 유실수와 아름답고 새로운 종류의 다년초를 심어

주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게 통로를 교체하는 작업까지 포함해 약 1억7000만원 건적의 보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원 일을 의뢰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다.

겨울 정원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는 다양한 정원 식물의 겨울 모습과 봄, 여름, 가을에는 풍성한 잎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정원의 건축적인 요소들과 정원의 첨가재료들이다. 특히 생울타리와 토피어리, 그리고 정원의 조형물들은 겨울에 뚜렷하게 드러나 보인다. 상록수로 만든 생울타리와 토피어리는 특히 겨울에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고 낙엽수로 만든 생울타리 또한 전정으로 인한 치밀한 가지의 구조를 드러내면서 가지 사이로 아른아른 보이는 풍경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든다. 또한 정원 곳곳에 배치된 연못이나 조형물 등은 그야말로 겨울 정원의 중요한 볼거리이다. 그래서 어떤 정원들은 일부러 이러한 요소들을 더 많이 만들기도 한다.

겨울에 방문하면 산에 간 것과 비슷한 느낌의 쓸량한 한국의 가든, 식물원, 수목원 등의 전문 가든과 일반인들의 주택 정원에 보다 새롭고 풍성한 겨울 정원이 들어서면 좋겠다. 유럽의 여러 겨울 정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글 사진 황환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과 교수

건조지역의 한계극복

영국 하이드홀 왕립식물원

하이드홀왕립식물원(RHS Garden Hyde Hall)은 영국 런던 남부 에섹스(Essex) 지역에 아담하게 조성되어 있는 영국 왕립원예협회(Royal Horticulture Society) 소속 식물원이다. 에섹스 지역은 겨울에 춥고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다. 기후적 약조건을 극복함은 물론 초기 부지가 온통 자갈투성이의 언덕과 진흙으로 뒤덮인 사면에 조성된 하이드홀식물원은 인간의 노력이 빛어낸 위대한 산물이다.



니포피아가 돋보이는 숙근초화원

자연 강우만으로 효율적인 물관리

식물원의 역사는 1955년에 로빈슨(Robinson)박사 부부가 수세기동안 농장으로 이용되면서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하이드홀에 처음으로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숙근성 초화류 화단과 집 주변에 채소정원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묘목 60주를 심는 등 식물원의 기본 틀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나무딸기를 비롯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동물의 분뇨와 퇴비, 유기물 등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진흙땅을 개선하였다고 한다.

식물원은 총 14개의 주제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선 식물원 입구 매표소 부근에 2001년에 조성한 건조식물원(The Dry Garden)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이드홀식물원 지역은 연강우량이 600mm 정도로 영국에서도 가장 건조한 지역 중의 하나이지만,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높은 광도와 건조에 강한 식물 400여 종류를 아름답게 식재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중 이 건조식물원에는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자연 강우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원 조성은 바닥에 반력석(화성암의 일종)을 깔고 그 위에 잔자갈로 구름을 만든 뒤 최종적으로 모래와 마사토를 혼합한 표토층을 덮었다. 식물을 심는 뒤에는 수분 보유, 광선 반사, 지중해 지역의 암반 노출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바위로 장식하였다.

겨울에도 수피를 감상할 수 있는 겨울섬화단의 비경

건조식물원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언덕위정원(The Hilltop Garden)이 나타난다. 이곳은 약 10,000평의 부지에 각종 관상식물로 심겨진 아름다운 정원이다. 에섹스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을 갖고 있으며 잠미원, 섬화단(Island beds), 숙근초화원, 연못정원, 황금정원, 농가정원, 숲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화단에는 여러 종류의 관목이 혼식되어 있으며 숙근초화 등으로 조성된 여섯 개의 독립 화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적 식물 수집 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가막살나무속 식물 수집화단을 비롯하여 겨울에 수피를 감상할 수 있는 겨울섬화단(winter island bed)은 원예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하여 숙근초나 관상용 그라스류를 혼식하고 있다.



▲ 황금정원



▲ 잠미원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화려한 화색 향연

숙근초화원은 잠미원과 나란히 조성되어 있다. 주목 생을 타리가 정형적으로 다듬어진 5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은 꽃피는 관목, 숙근초, 일년초 등으로 매년 유행에 맞추어 변화를 주면서 혼식되고 있다.

첫 구역(hot bay)에서는 빨강, 오렌지, 노란색 등의 원색적인 색상을 이용하여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다음 구역에서는 은색, 크림색, 적모도주색 등의 색상을 이용하였다. 다음 구역에서는 진한 분홍색으로 바뀌고 마지막 구역에서는 진한 자주색 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즉 화색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식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연못정원(Lower Pond)은 버드나무를 비롯하여 큰 고목들이 늘어서 있는 연못으로 봄에는 보라색 풀모나리아(Pulmonaria)와 황금색 수선화 등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수면에 비치는 모습을 의자에 앉아서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다.

황금정원(Gold Garden)은 이름 그대로 황색 일이나 꽃을 가진 식물들을 집중적으로 심어 놓은 정원이다. 특히 2005년에 다시 조성되면서 주변에 짙은 청색 꽃을 피우는 꽃들을 주변에 배치하여 황색 꽃들이 더욱 돋보이도록 하였다.

건조 환경에서 볼 수 없는 신비의 야생 군락

농가정원(Farmhouse Garden and Top Pond)에는 회양목이나 향나무 등이 기하학적으로 다듬어져 있다. 남쪽을 향하고 있어 주로 밝은 오렌지색 또는 자주색 꽃이 식재되어 있고 색상 조화를 위하여 높은 광도에서도 시들거나 색이 바래보이지 않는 은색을 가진 향쑥속(Artemisia) 식물



▲ 식물 판매센터

을 보석하여 놓았다.

숲정원(Woodland Garden)은 정원조성 초기부터 식재된 나무들이 큰 교목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봄에는 목련, 서양 만병초, 동백 등이 꽃피고 여름에는 고사리류의 청아한 잎을 감상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야생생태원(The Garden for Wildlife)은 하이드롤 수목림 둘레에 있는 자연 초지를 이용하여 2006년에 조성하였다. 즉 하이드롤과는 생태적으로 다른

식생을 보여주면서 이 지역에 적합한 규모의 정원을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디기탈리스(Digitalis), 앵초류(Primula), 곰취류(Ligularia), Briza 등이 초지와 어울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각종 새들과 곤충들이 생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원의 소로를 따라 즐기는 황후의 산책

로빈슨정원(The Robinson Garden)은 습지와 어울리면서 혼하지 않은 식물들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다. 여기에는 헬레보레스(Hellebores), 비비추류, 연령초류, 쥐손이풀류, 고사리류들이 집중적으로 수집 식재되어 있다.

황태후정원(The Queen Mother's Garden)은 원래 축산 농장으로 사용될 때 '늪의 돼지의 공원'으로 불리어진 곳으로 여왕께서 65년간(1937년부터 2002년까지) 왕립원예협회를 후원한 것을 기념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정원은 비정형적 양식을 띠고 있는데 정원의 소로를 따라 편안한 기분으로 산책하기에 알맞다. 특히 7월에 톱풀 군락위로 뻗죽뻗죽 솟아 피어있는 루피너스의 모습은 장관이다. 그리고 다양한 장미 품종이 심겨져 있어 장미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호주 뉴질랜드 정원(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Garden)은 건조하고 매마른 '건조원'과 녹음이 우거진 '여왕어머니의 정원'의 중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정원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특산 식물들이 주로 식재되어 있으며 2005년에 조성되었다.



▲ 숙근초화원

“연강우량이 600mm 정도로 영국에서도 가장 건조한 지역 중의 하나이지만,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높은 광도와 건조에 강한 식물 400여 종류를아름답게 식재한 것으로 유명”

건조 환경에 적합한 식물 적소 식재

기타 식물원 시설로는 식물원 전체에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4,500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와 15분 단위로 모든 기상자료를 자동으로 관측 기록할 수 있는 기상관측소 등이 있다.

하이드롤식물원은 건조한 기후 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선정하여 '적소' 식재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또 화학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식물원에서 생산되는 유기물과 퇴비를 토양 개량에 활용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법을 활용한 식물원 유지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튜립과 수선화 등의 화려한 꽃이 피어날 때면 봄꽃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이 식물원의 특징인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과 사진은 신구문화사에서 출간한 <꼭 가봐야 할 세계의 식물원 61>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저자가 재편집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 식물원 입구에 있는 건조식물 정원

▼ 건조식물 정원



▼ 황태후 정원



▼ 암석원



연못정원하 주변식물

Gardens in Nov

Gardening World Cup Flower Show 세계 디자인 거성들의 작품 전시

글·사진 가든디자인 에듀센터 김재용 원장 (주)플로시스 대표

필자는 일본에 있는 아이치대학 디자인통신교육학부 4년에 다니고 있는 터라 일본의 정원을 두루 둘러볼 기회가 많았다. 나가사키현에 위치하고 있는 하우스텐보스 정원은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양식으로 꾸며진 일본의 대표적인 정원이다. '하우스 텐 보스'라는 이름은 현재 네덜란드 여왕이 머물고 있는 '팰리스 하우스 텐 보스(Palais Huis Ten Bosch)'에서 따온 것인데, 네덜란드어로 '숲 속의 집'이라는 뜻이다. 네덜란드를 모델로 하여 수십만 그루의 수목과 꽃으로 둘러싸인 운하로 인상 깊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곳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가든링 월드컵 플라워쇼(Garden-

ing World Cup Flower Show 2013 in Japan)가 열렸다.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영국 헬시 플라워 쇼의 골드 메달리스트를 비롯해 각국의 톱 조경디자이너들이 집결해 개성있는 정원을 만드는 축제 마당이다. 쇼 가든 7작품, 홀가든 8작품, 스몰 가든 20작품 등 총 400여 작품이 전시되었고, 특히 한국에서도 2팀이 참가해 많은 볼거리를 제시했다. 필자는 현장 식구들과 함께 짧지만 행복한 2박 3일간의 여행을 그곳으로 다녀왔다. 세계 거성들의 작품을 지면으로 다 보여줄 수 없다는 아쉬움이 크지만, 그중 인상 깊었던 작품 10개를 소개한다.



코가 카즈히코 / 일본/ 불가사이한 정원

'요정의 영역으로'라는 주제로 나무요정, 곤충요정 등의 다양한 요정이 사는 곳을 표현했다. 정원이 요정에 의해 순화된다는 불가사이한 신비주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다양한 불가리와 디테일한 식재와 물의 흐름, 구조 변화가 돋보였다.



림인청/ 말레이시아/ 자기상상

'정원을 본다는 것은 자기상상이다. 밖에서 안을 보자, 안에서 밖을 보자,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등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답을 정원에서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작가는 표현하고자 했다. 정원 안과 밖, 그리고 후원을 재미있게 조성했다.



폴 하이 브루스/ 영국/ 우리는 누구인가?

고대 그리스 건축에서 영감을 얻어 개인, 이웃, 세계를 넘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커뮤니티를 강조한다. 서로 존중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으로 안과 밖의 식재 스타일이 확연히 다른 재미가 있는 작품이다.



제임스 바스/ 프랑스/ 무한을 향하여

1918년 11월 11일 11분 세계 1차 대전 종결을 기념한 모네의 수련 연작이 모티브가 되었다. 평화에 기여한 병사들을 위로하는 의미로 정부에 기증된 수련에서 영감을 받았다. 오랑주리미술관의 형태에서 타원형 패턴을 잡고 숫자 11의 반복과 대전 시 참물한 유조선을 떠오르게 한다. 마음을 흔드는 부드러운 바람과 흔들리는 나무, 물결 등이 작품과 어우러져 평온함을 안겨주는 그런 정원이다.



야마구치 요오스케/일본/ 최선은 물과 같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을 갖고 있다. 어떠한 모양에도 맞추는 유연함을 갖고 있는 동시에 잔잔한 치유력, 강인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물이다. 이와 같은 물이 주는 교훈에서 모티브를 찾고 있다. 물과 같이 종교, 문화, 정치, 인종의 차이를 존중한다면 세계는 평화로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정원이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이며 소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아쉽다.



미조구치 유키히로/ 일본/ 태양 정원, 달의 정원

태양의 정원은 지녀와 즐길 수 있는 실용적 정원이고, 달의 정원은 감상용 정원이다. 둥근 연못은 지구, 연못의 흑색, 태양의 가운데를 풍자. 보름달 기념물, 은하수, 초승달이 안내하는 길 등을 담고 있다. 풍자 속으로 들어가 돌아서면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달의 정원이 나타나는 것이 인상적이다.



레온 클루지/ 남아프리카/ 자유를 되찾아라

넬슨 만델라가 인종 차별과 국민 해방 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작품이다. 9개의 벽은 남아프리카의 주를, 녹색은 자유와 평화를, 반대쪽은 빈곤을 담고 있다. 남아프리카 전통의 밝은 색과 다채로운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곳은 폭식과 독식에 싸우며 어느 곳은 빈곤과 자유와 생존을 위해 싸우는 지구촌 현실을 만날 수 있는 정원이다.

Gardening World Cup Flower Show



이노우에 마사하루/ 일본/ 철심의 알자.

'차비란 어떤 물건이 오랜 세월이 지나 나타나는 한적한 아름다움'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나타낸다. 외비란 소박한 것이나 삶의 쓸쓸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정신세계나 마음은 다른 의미라는 철학적 깊이가 녹아든 작품이다. 녹이 쓴 철심이 그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



박주영/ 일본 한국 유학생/ 돌고 도는 나선, 구름 위의 산책

반복되는 만남과 이별, 미지막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며 오늘도 누군가와와의 만남은 귀한 인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에서 만나는 반가운 한국의 두 팀 중 한 팀이다.



베일리 루토머스/ 뉴질랜드/ 유리벽 성전

'뉴질랜드는 내가 자란 나라. 아시아는 나를 키운 문화. 정원은 그 두 요소가 합해진 융합체이다.' 와인병이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선형 패턴의 정원이 숨이 막힐 정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나선형 내부에 식재된 식물과 물, 그리고 와인인의 조화의 매력이 압권이다.



원폭 투하 자리에서 열린 꽃으로 포장된 평화쇼?

이번 전시회는 여러 가드너들의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시현하고, 꽃과 정원 용품을 파는 매장들이 늘어난 분위기는 어느 박람회와 같았지만 집요하고 치밀한 시공, 다양한 접근 등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의 컨셉이 이 반역적인 도시를 상징하는 '평화'라는 것은 한국인 감상자에게는 다소 불편함을 주는 대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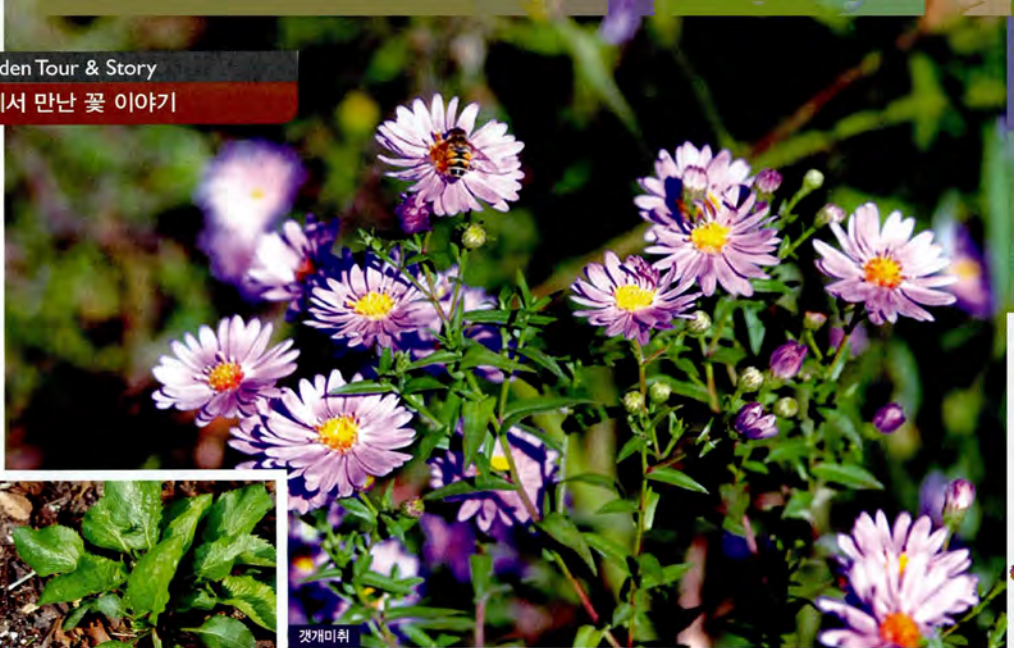
나가사키현은 '오후라 천주당' 26인 순교자의 역사와 1945년 8월 9일 히로시마 다음으로 핵폭탄을 맞은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원폭 투하 자리인 '오후라 천주당'이 파괴된 곳을 그대로 남겨둔 곳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묵념을 하고 참배하는 모습, 기념관 내부에서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그리고 브론즈 아이를 안은 여인 동상 등은 원폭 피해자로 평화의 상징인 꽃을 달고 있는 모습이 심기를 건드린다.



푸른 남성의 좌상은 하늘에서 평화를 깨며 원폭이 떨어졌다는 것이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 약탈한 것이 아닌가. 위안부 동상조차 한국 땅에는 있는지 싶은데, 일본의 뻔뻔함과 학습력에 소름이 돋는다. 일본인 자칭 '평화의 도시' 나가사키현에서 '꽃과 자연에 의한 평화 기원'이라는 모토로 플라워쇼가 열린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나가사키를 '평화의 도시'로 명명하여 포장하고 있는 일본이다.

그래도 꽃으로 던진 각국의 가든 디자이너들의 메시지처럼 자연 앞에 모두가 순수하고 무장 해제 되어 지구 평화에 일본이 앞장 서기를 바란다고 적는다면 공명불이다. 그 평화가 진정한 사과라도 하고 지나가야한다는 것이고 위안부, 독도 등 많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즐거운 꽃놀이와 의미 있는 배움길 뒤에 남은 쓴 여운이다.





개미떼처럼 바글바글, 예쁜 사랑을 나누는 개미취



글·사진 이명호의 야생화
www.skyspace.pe.kr

가을에 피는 들국화의 무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개미취 종류이다. 모습에 제법 소담스러우며 은근한 향기를 풍기는, 우리 야생화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꽃들이기 때문이다. 썩부쟁이, 구절초와 더불어서 개미취 종류들도 가을산과 들판을 화려하게 수놓는 들국화의 한 종류로 대접을 받을 만한 식물이다. 밑에서부터 곧게 올라온 줄기의 윗부분에서 많은 가지가 갈라지면서 꽃이 바글바글, 개미떼들이 넓게 모여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꽃이 핀다.

썩부쟁이류보다 훨씬 길고 큰 국화

기본종인 개미취는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곧게 자라 올라가서 줄기 끝에서 꽃이 산방상으로 피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도 벌개미취나 좁개미취의 경우는 키가 작으며 몸체가 꽤 안정감 있게 생긴 반면, 개미취의 경우 큰 것은 키가 약 3~4m정도 되는 것도 있어서, 꽃이 피면 무거워서 세 줄 무거운 듯 이겨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개미취류의 잎 모습은 썩부쟁이류와 대개 비슷하지만, 훨씬 길고 큰 것이 특징이다. 개미취 종류들은 모두 물기가 많은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여름의 끝자락

부터 시작하여 늦은 가을까지 꽃이 피며, 연한 자주색 또는 하늘색으로 온 산천을 수놓는다. 종류를 열거해 보면, 개미취를 비롯해서 벌개미취, 좁개미취, 갯개미취 정도를 들 수가 있다.

개미취 날카로운 톱니로 거친 느낌의 꽃 개미취는 일명 '자원' 이라고도 불리며, 땅속줄기는 짧고 땅위줄기에는 짧은 강모가 드문드문나 있어서 거친 느낌이 든다. 뿌리에서 돋는 잎은 뾰뾰하고 타원형이다. 줄기에서 돋는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잎자루 밑에는 날개가 있고 양 옆에는 작은 강모가 있다. 작은 꽃들이 줄기 끝에서 개미떼처럼 많이 피고 잎을 취나물처럼 먹을 수 있다고 하여 '개미취' 라는 이름이 붙었다.



개미취 군락



“작은 꽃들이 줄기 끝에서 개미떼처럼 많이 피고 잎을 취나물처럼 먹을 수 있다고 하여 ‘개미취’ 라 이름”

벌개미취 아무 곳에서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의 꽃

한국 특산식물인 벌개미취는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자란다고 도감에는 쓰여 있으나, 실제 그곳에서 자생하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식물체의 크기도 적당하고 꽃도 예뻐서 아무 곳이나 잘 자라는 특성 때문에 남한 일대에 폭넓게 분포하고는 있으나, 현장을 잘 관찰해 보면 모두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곳에서만 발견이 된다. 심어놓은 곳에서만 자란다면 분명히 야생화는 아닌데, 참으로 이상도 한 일이다. 따라서 이 식물이 한국에만 분포하는 특산식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해 동안 유심히 관찰해본 결과, 백두산 일대의 산기슭 및 저지대 평지에서 군락을 이루어 대규모로 자생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아,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에서 야생화이고, 또 한국 특산식물의 자국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벌개미취는 비교적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고, 키도 70~130cm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관찰하기에 아주 좋은 꽃이다. 몸체에 비해 꽃도 크면서 활기가 있어 보이고, 개화기가 오래 지속되는 꽃이라서 더욱 좋다. 아무 곳이나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코스모스처럼 도로변에 심어도 아주 좋은 식물이다.

좁개미취 몸집에 비해 크고 많이 피는 꽃

좁개미취는 오대산 이북의 산골짜기 냇가 근처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키가 40~60cm 정도로 작으면서 밑에서부터 가지가 산방상으로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뿌리에서 돋는 잎은 꽃이 필 때 없어지고, 줄기에서 돋는 잎은 잎자루가 없다. 잎

은 어긋나고 피침형이며 끝이 길게 뾰족하다. 몸집에 비해서 꽃은 비교적 큰 편이고, 넓게 퍼져 자라면서 많은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갯개미취 작지만 운치를 더해주는 붉은 색의 꽃
갯개미취는 바닷가 습지에서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키는 30~100cm이고 몸 전체에 털이 없다. 줄기는 곧게 서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줄기의 일부분은 붉은빛이 돈다. 잎의 일부분은 줄기를 반 정도 감싸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은 붉은빛을 띤 자주색으로 피는데, 개미취 종류들 중에서 꽃이 가장 작으며 붉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갯개미취의 꽃이 필 때쯤 해변의 습지에서는 통통마디와 칠면초가 곱게 단풍이 들어 온 바다를 빨갈게 수놓아서 더욱 운치가 있다.

관상, 식용, 약용 등 다양한 활용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기른다. 도로변을 장식하거나 공원에 심어 길러도 좋다.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한방과 민간에서는 뿌리와 풀 전체를 토혈·천식·폐결핵성 기침·만성기관지염·이뇨 등에 처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용과 약용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해도 소중한 우리 꽃을 야생에서 함부로 남용하기보다는 씨를 받아 번식시키면서 잘 기르면서 적절한 활용을 해줘야만 하겠다. 특히 자생지는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보호에 힘을 쏟아야만 하겠다.



좁개미취



글 소순복 기자
사진 이정식 추풍령휴게소 지점장

박 대통령도 머물다 간 산책길 추풍령휴게소 근혜숲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추풍령휴게소를 즐겨 찾았다고 한다. 그곳에는 근혜숲이 있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귀빈실도 있다. 박 대통령은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자 했던 것일까. 세인들의 관심이 높다. 분명

명한 것은 추풍령휴게소는 현재가 아닌 과거를 많이 닮았다는 것이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허용하는 곳. 대통령이 그곳을 즐겨 찾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듯하다. 그곳에는 역사가 있고 자연이 있다.

시간이 멈춰 버린 과거로의 추억 여행

단아하다. 세월을 품고 앉아 있는 모습에서 귀퉁이 전해진다. 휴게소의 명가리며 알다시피 치장하는 현대식 휴게소와는 다른 추풍령휴게소이다. 소박한 듯하지만 오히려 화려하고, 자태가 곱다. 마치 육영수 여사의 한복 입은 모습처럼 우아하다. 성인이 되어 찾은 추풍령휴게소는 여고시절 한 사춘기 소녀가 일탈을 꿈꾸며 즐겨 찾던 추풍령이기도 하다. 주말이면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김천 직지사를 넘나들 때 그 여정 속에 있던 곳이 바로 추풍령이다. 당시 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가 아닌 기차의 낭만을 택한 탓에 비록 휴게소에 머

문 기억은 없지만 여고시절과 직지사, 그리고 추풍령은 하나의 세트처럼 과거의 기억 속에 '예쁘게' 남아있다. 젊은 날의 풋풋한 추억이 있는 곳, 대통령도 기자처럼 이곳에서 시간 여행을 즐긴 것은 아닐까. 그래서 떠나야만 했다. 박 대통령이 그곳을 즐겨 찾았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청와대 녹지원에서 야생화 전시회를 열었다는 소식은 그곳을 찾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 야생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관심은 추풍령 산책길을 즐겨 찾았다는 것을 증거자료처럼 등장시켰고, 추풍령휴게소도 모처럼 세인의 주목을 받게 했다. 대통령은 야생화에도 스토리를 입혀야 한다면 야생화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 행동들이 모처럼 야생화 시장에 훈풍을 몰고 오는 듯 했는데 마침 겨울이다. 서두르지 말라는 신의 암시가 아닐까.

국내 최초 휴게소의 이색 도로망도 재미

막상 떠나려 하니 추풍령은 역시 멀었다. 가법계 못짐을 쌀 수 있는 산책여정이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에 내려갈 일이 생겼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명분과 끼리, 모두를 만족시키며 추풍령으로 달렸다. 그런데 가는 내내 참을 수 없는 웃음이 입가에 번진다. 상갓집 조문 길이어서 그러면 안 되는 데도 속 절없는 행복감에 빠져든다. 막 교복 자율화로 한껏 멋을 낸 10대 여고생의 절뚝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뛰다니며 행복한 갈등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휴게소는 대구에서 불임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들렀다. 그러나 아홉째, 상행선이 아닌 하행선 방면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깜빡했다. 차량이 뿔뿔이 났던 4차선 너머의 반대편에 있었던 것. 절망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바로 인근에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차를 몰고 휴게소에서 200m 정도 나오면 추풍령 IC가 나오고, 그곳을 통과해 유턴한 후 왼쪽으로 들어서면 하행선과 연결되는 길이 있다. 불과 2~3분 거리이다.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다음 IC까지 적어도 10km 이상은 달려야 하는 것이 고속도로이다. 아직도 후한 인심(?)이 남아있는 곳,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인 추풍령휴게소만이 가지고 있는 이색 도로망이다.

대통령도 반한 야생화 산책길의 수수함

마음이 급하다.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생태숲으로 향했다. 박 대통령을 동행한 비서들 사이에서 '근혜숲'으로 불리어졌다는 산책길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주차장에서 불과 20m 정도의 거리. 정문을 통과하자 오른쪽은 산책로, 정면으로는 삼근이(개), 닭, 오리, 토끼 등의 사육장과 조그마한 연못이 나온다. 마치 작은 동물원에 들어선 듯한 풍경이다. 골짜기 물든 단풍과 성질 급한 낙엽, 그리고 맑은 가을 햇살이 공존하는 그곳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다. 수북하게 쌓인 낙엽이 길도 물어버려 정해진 길도 없다. 발 가는 대로 가면 바로 길이 된다. 인적도 드물다.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온다.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 오롯이 나만의 세상이 펼쳐지는 곳이다. 계절이 겨울을 재촉하지만 산책로에서는 자생난과 들국화 등 야생화 몇몇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대통령이 반했다는 그 야생화의 한 무리이다. 봄 여름에는 더 많은 야생화를 볼 수 있다고 이곳 추풍령휴게소의 이정식 지점장이 귀뜸해 준다. "진달래 벚꽃이 피어나고, 한련화가 화려함을, 원추리 호스타 등이 초록의 세상을 선사한다"고, 메타세콰이어의 푸르름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고, 겨울에는 하얀 설경이 한 계절의 대미를 장식한다. 특별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수함이 오히려 매력적인 곳, 대통령이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로 충분히 보인다.

욕심 없는 자연이 선사하는 힐링 명소

숲의 마력에 빠져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듯 했다. 그러나 채 10분이 지나지 않았다. 욕심 없는 자연이다. 바쁜 일상을 묶어두려 하지 않는다. 작은 공간이지만 긴 시간여행을 허용하는 그런 배려의 공간이기도 하다. 먼 길을 달려온 운전자의 휴식공간이자 인생의 쉼터가 되기에 충분한 힐링의 공간이다. 추풍령휴게소는 그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간직하게 했다. 젊은 날 친구와 함께 한 일탈과는 다른 만추의 낭만 여행. 총명한 가을을 기억 속에 저장시켰다.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추풍령IC를 빠져나가 상행선 휴게소를 거쳐야 했다.



권재희씨의 그림있는 정원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겨울 정원은 고요함과 앙상함으로 다가온다. 동면으로 고요한 정원에 봄으로 또 다른 생명을 불어 넣어 다시금 태어난 정원이 겨울의 황량함을 따스하게 데워주는 듯 하다.



여주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권재희(62)씨 정원은 560㎡ (170여평)에 벚나무, 수수꽃다리, 목련, 단풍나무, 목단, 인동, 백당, 싸리나무, 조팝, 사철, 회양목, 찔레, 장미 등과 용담, 과꽃, 패랭이류, 구절초, 쑥부쟁이, 수레국, 땅나리, 다알리아, 글라디올러스, 줄스바귀 등이 식재되어 있다.

집을 중심으로 삼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은 전체적으로 키 작은 화목으로 낮게 조성되어 있어 답답하지 않고, 탁트인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방문객이 처음 만나게 되는 앞뜰은 사각으로 정리한 회양목과 잔디를 식재해 단정함을 더했다. 주인장의 깔끔함 성품을 고스란히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동선에 따라 정원 구석구석 배치된 소품들도 흥미롭다. 수레바퀴, 목조 파티션 등을 이용한 장식과 목재로 만든 소품들은 공간미는 물론 걷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안뜰로 향하는 동선의 라운딩 식재도 부드러움을 더해주고 포근하다.

귀촌 후 정원에서 찾은 건강

남편의 건강상의 이유로 여주로 귀촌한 주인공은 2008년 폐가를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면서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 정원은 잡풀이 사람 키만큼 무성했던 옛 마당에 불과했다. 풀을 뽑고 하나, 둘 식물을 식재하면서 지





금의 정원을 완성했다고 한다. 건강 또한 덩으로 얻게 됐다. 전문 지식 없이 시작한 정원이어서 처음엔 많은 식물들이 죽어나갔다. 식물 저마다의 식생 속도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식재로 인해, 그리고 계획했던 정원의 모습이 나오지 않자 식물을 자주 옮겨 심으면서 식물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특히 내한성이 약한 식물 관리가 가장 큰 숙제였다고 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그녀는 이제 식물들의 식생을 도와줄 수 있는 식물박사가 됐다. 겨울 준비는 유난히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말한다. “춘식 구근은 대부분 내한성이 약해 가을에 캐내어 얼지 않을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다 알리아, 글라디올러스는 11월초나 중순에 캐내어 보일러실 구석에 흙을 덮어 관리해야 하고, 관엽 식물과 내한성이 약한 식물은 화분으로 옮겨 실내로 들여 관리해야 한다. 장미도 내한성이 강한 것과 약한 것을 구분하여 약한 것은 집으로 옮길

해 주고, 벚나무류는 잠복소를 설치해서 겨울을 나야 한다. 수생식물은 집 옆의 물웅덩이에 화분에 심겨진 채로 담가 두면, 1m이상 되는 수심과 수면에 어는 얼음이 한기를 막아 주어 얼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다.” 그녀의 경험 노하우는 무공해 식물 영양관리로까지 이어진다. 그녀는 화학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잡풀과 정원의 부산물, 강아지 변, 음식물 쓰레기 등을 1년 동안 천막을 씌어서 부식시켜, 이듬해 봄 흙에 섞어 밑거름으로 사용한다. 병충해 방제는 하지 않는다. 사람만의 것이 아니니 자연과 나누어 쓴다고 생각하면서 벌레가 생기는 대로 놓아 둔다. 그럼에도 아직 큰 병충해는 한번도 없었다고 하니 벌레도 주인공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라, 식재도 초창기에는 주로 구입했지만 이제는 삼목으로 번식시키거나 주변의 지인에게 선물 받은 씨앗을 받아서 정원을 꾸며가고 있다.



빛으로 불어 넣은 생명력

부츠로 불어 넣은 생명력. 꾸민 정원의 남다른 재미는 곳곳에 주인공의 손길이 닿은 그림들 이야기에도 있다. 귀촌 후 자작나무가 좋아서 취미로 시작한 그림을 낙서하듯 정원에 그려 넣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정원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남편이 목재 모형을 만들면 그녀가 색을 입힌다. 이렇게 탄생된 조형물들은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 요소가 되었다. 주로 미송과 친환경 페인트, 아크릴물감 등 무해한 재료를 써서 만든 원도우 가든, 가든 도구 걸이, 그림이 있는

파티션, 개와 고양이와 보금자리 등 저마다의 개성으로 정원은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에서 살 때는 하루가 숨이 찰데 시골 생활은 여유를 찾아주었다. 정원을 가꾸면서 그림도 함께 그릴 수 있게 되니 건강은 물론 삶의 보람까지 찾았다.”

그녀가 찾은 삶의 여유처럼 한 박자씩 느리게 쉬어 가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깎깎마녀의 쫄물딱 세상

다육에 빠져 도예가가 되다

글·사진 깎깎마녀 한선미
블로그 <http://bolnnaver.com/mgeshop>



온라인상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깎깎마녀(본명 한선미). 그녀의 식물 사랑은 각별하다. 그녀는 식물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마를 구입해 직접 화분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식물광이다. 1000도가 넘는 가마 속 화염처럼 식물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불태우고 있는 그녀. 그녀가 전해온 다육과 꽃그릇으로 빛어 지는 행복한 일상이 흥미롭다.

다육을 접한 지가 2005년 무렵이니깐 어언 9년 정도 된 것 같다. 식물에 대한 관심은 훨씬 전이다. 아가씨 때부터 화원을 지나가면 저절로 눈이 갔던 나였다. 식물 사랑이 그렇듯 화려한 꽃으로 눈길을 끄는 초화류에 먼저 빠져들다가 점점 푸른 잎이 아름다운 초목에 관심이 간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이 매력적인 야생화에 꽃히고, 이어 식충식물의 신비에도 빠지게 된다. 이후 마지막 종착역이 다육이라고도 한다. 물론 지금의 나는 이 모든 것이 좋다.

흔히 사람들은 다육이와 야생화 키우기를 성공하면 모든 식물 키우기는 마스터한 것이라 고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가 보다. 다육이에 매료되다보니 이 예쁜 다육이를 좀더 예쁜 집에 심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정해진 틀로 찍어내거나 물레로 대량 생산하는 똑같은 화분보다는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화분에 관심이 쏠렸다. 욕심은 더해져 다육이들의 집을 직접 만들어주고 싶은 데에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나만의 화분 만들기' 이다.

시작은 수제 화분을 제작 판매하는 개인공방에서의 1일 도자기 체험이 계기가 되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 이후 직접 화분을 만들기 시작했고, 접근처 공방에서 소성비를 주고 구웠다. 그러나 그것도 번거로워지면서 내 가마가 생기는 꿈을 꿔다. 가마를 들여놓고 나니, 필요할 때 가마에 불을 지필 수 있어서 행복했고, 특히 성형과 초벌, 재벌 과정을 거쳐 완성된 꽃그릇들이 분양되어 다육이를 품고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는 더욱 뿌듯했다. 또 그 모습을 보여주며 고맙다는 인사를 받게 될 때는 더없이 고맙고 행복했다. 그래서 이 일에 더 빠져드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바쁜 일상과 급격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힐링의 소재를 멀리서 찾기보다는 깊고 다양한 매력을 가진 다육세계에 빠져볼 것을 권한다. 또한 수제 화분 만들기도 어렵지 않다. 시간과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나만의 화분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으니 적극 추천하고 싶다.

단순한 토기가 화려한 꽃그릇이 되기까지..

1. 화분 성형하기



도예토를 이용해서 화분의 모양을 만들어 준다. 장식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꾸민다.



원형, 타원형, 사각형, 그리고 토기화분 등 여러 속에서 그려지는 대로 만들고 성형해 창작품을 완성한다.



속을 파고, 색을 칠하거나 그림을 그린다.

2. 초벌



가마는 크게 전통 장작가마, 가스가마, 전기가마로 나뉘는데 내가 사용하는 가마는 산업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산화 원형 겸용가마이다.



800도에서 8시간의 초벌 과정을 거쳐 초벌한다.



초벌로 나온 모습

3. 시유와 재임(유약작업, 재벌작업)



식기류에 쓰는 인체 무해한 유약을 화분유약으로 사용한다. 유약을 바르고 다시 가마에 넣는다.



1250도에서 10시간을 소성하고 나면 완전한 꽃그릇이 탄생. 일반도자기 만들기 작업과 동일하다.



'웃음' 기부천사 되다 가락시장의 폐목재 상자텃밭



매년 이맘때면 이웃과 함께 하는 캠페인들이 붓물을 이룬다. 도시농업분야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을 전한 기부천사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이병호)는 가락시장의 골치 덩어리인 폐목재 파레트와 펠스티토폴을 상자텃밭으로 재활용해 노인정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 그동안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했다. 가락시장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는 연간 300톤 정도. 그 폐목재의 처리비용만도 5백만원 정도 소요된다. 특히 폐목재는 가락시장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이러한 골치

거리 폐목재를 업사이클(Upcycle)하여 고품질의 상자텃밭으로 변신시켰다. 폐목재를 텃밭상자로 재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가락시장은 아름답게, 사회배려층에게는 삶의 풍요를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사회배려층에게 텃밭 웃음 선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텃밭상자를 만들어 송파지역 내 노인정 21곳에 105개, 지역아동센터 3곳에 150개, 마천지구 50개 등 총 305개를 지원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특히 이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송파구청과 MOU를 체결(4월)했고, 보급된 텃밭상자가 수확의 기쁨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텃밭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교육프로그램은 도시농업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어르신과 어린이들 각각에 맞도록 구성했다. 어르신 교육과정은 '친환경 방제제 만들기'를 비롯한 4과정으로, 어린이 교육과정은 '씨앗도감 만들기' 등 10개 과정으로 진행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상자텃밭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지난 5월에는 '제2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에도 출품하여 그 우수성을 자랑하기도 했

다. 기존의 상자텃밭 외에도 다양한 디자인의 상자텃밭을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다.

자연으로부터의 선물 '웃는텃밭'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조병길 팀장은 상자텃밭의 제작 보급을 통해 생각보다 더 큰 수확을 거둬들였다고 말한다. 상자텃밭을 통해 사회배려층들이 웃음을 되찾은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 이에 상자텃밭을 웃는텃밭으로 개명(?)하여 상자텃밭의 의미를 더 부여했다. 웃는텃밭은 계절과 장소에 상관없이 손쉽게 가꿀 수 있는 이동형 텃밭으로 베란다 옥상 복도 등 실내의 자투리 공간에 배치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했음은 물론 도심 속에서 한 뼘의 녹색 심터를 제공했다. 웃는텃밭은 또한 작물을 직접 가꾸고 수확하는



즐거움과 함께 삶의 활력을 안겨줬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먹을거리와 자연 순환의 이해를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함께 생명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내년, 학교텃밭으로 확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내년에는 더욱 상자텃밭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봄이 오면 새 단장을 통해 봄맞이 작물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 제작 보급된 상자텃밭은 나무로 제작되어 비를 맞으면 틀어지게 된다.

또한 색깔도 바래기 마련인데, 이를 다시 수거해 색깔도 입히고 수선을 해 다시 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상자텃밭의 토양에는 거름을 만들어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봄과 여름 작물로 교체해 줄 계획도 세웠다. 토마토 가지 고추 상추 등도 심을 계획이다.

교육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에만 한정했던 텃밭상자의 제작 보급을 학교텃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실 운동장 복도 등 실내외에 배치하여 아이들이 식물의 성장을 가까이 두고 관찰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일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농업과 연계한 '신구 일자리 창출'

조 팀장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텃밭강사와 상자텃밭을 제작해줄 텃밭 목수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도시농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특히 공사는 상자텃밭을 통해 푸른 도시와 정감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가락시장의 폐자원 업사이클을 통해 녹색경역을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붉게 타오르는 서울숲의 가을 눈부신 가을 컬러 단풍이 드는 이유

글·사진 정승환 기자 촬영협조 서울숲

12월, 겨울의 시작이지만 가을을 떠나보내기 몹시 아쉽다. 가을은 노랑, 빨강, 초록이 음미를 이뤄 색깔의 향연을 펼친다. 산천(山川)이 붉게 타는 깊은 가을의 끝을 잡기 위해 무작정 식물도감을 들고 서울 성동구의 '서울숲'을 향했다.

분당선 서울숲역에 내려 계단을 오르니, 빨강과 노란 오렌지색의 나무 색깔에 눈이 부신다. 서울숲 공원은 지난 2005년에 개장, 짧은 공원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여의도 5배 크기의 면적에 104종 42만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룬다. 5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숲 공원의 제2테마 '생태숲'은 온대활엽수림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봄, 여름 초록을 내뿜은 낙엽수, 관목류들은 가을로 접어들면 빨강, 노랑, 자주, 갈색 등의 다양한 색조로 탈바꿈 하는데, 이것을 흔히 '단풍 든다'라고 말한다. 한국은 가을만 되면 이런 깊은 색조를 느끼고자 단풍여행을 떠나지만, 캐나다나 미국도 'leaf peeping'이라고 부르는 단풍여행이 취미활동의 주를 이루고 있다.

녹색을 띠는 물질, 엽록소(Chlorophyll)

일반적으로 볼여름 나무의 잎은 엽록체(Chloroplast)라는 식물 세포내부 소기관에 의해 녹색으로 보인다. 나뭇잎을 구성하는 풍부한 세포들은 주로 녹색을 띠는 엽록소를 갖고 있다. 물론 다른 색의 세포들도 존재하지만 여름의 나뭇잎 색깔은 녹색이다. 녹색을 나타내는 엽록소는 빛을 잡아 탄수화물의 기본 물질인 당을 만든다. 당이 생성되면서 엽록소는 스스로 분해되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낮 시간이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는 여름 하순에서 가을 초에는 잎에 분포된 코르크 세포층을 차단한다. 이 코르크 층은 열거를 생성해 해 물과 미네랄 섭취량이 감소하면서 엽록소도 동시에 분해되기 시작한다. 엽록소가 감소하면서 두각을 보이지 않던 다른 색의 물질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이제 단풍이 드는 순간이다.



▲ 서울숲 공원에 있는 생태숲. 단풍나무의 다양한 색깔과, 느티나무의 노란색이 하늘과 갤러리에 포레 빌딩을 배경으로 조화를 이룬다.

가을의 색, 나뭇잎에 포함된 물질이 원인



▲ 주변이 노란 오렌지색으로 물들고 가장자리는 적색의 복사기나무 잎. 카르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이 함께 존재하는 상태이다.

가을의 나뭇잎 색을 위해 두각을 나타내는 3가지 물질이 있다. 카르티노이드, 안토시아닌, 세포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풍의 색을 지정한다.

카르티노이드는 나뭇잎이 성장해서 낙엽이 되는 순간까지 존재한다. 하지만 오렌지 색깔은 보통 녹색의 엽록소에 의해 감춰져 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엽록소 함량은 점차 줄어들어 사라지고, 카르티노이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카르티노이드는 잎이 노랑, 갈색, 오렌지 등의 다양한 색조를 띠게 한다.

카르티노이드는 보통 당근, 콘, 수선화, 노른자, 순무, 바나나 등의 특징 있는 색깔을 나타낸다. 또 가을에 히코리, 물푸레나무, 단풍나무, 노랑포플러, 사시나무, 자작나무, 플라타너스, 미루나무, 사사프라스, 오리나무 등의 활엽수 나뭇잎을 밝은 노랑과 오렌지 색깔을 띠게 한다. 카르티노이드는 평균적으로 나무 품종당 15~30%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안토시아닌도 다른 색깔을 띠는 물질이다. 빨강, 자주 또는 혼합색의 조합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 때문에 보이게 된다. 안토시아닌은 카르티노이드와는 달리 계절이 진행되는 동안 잎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



▲ 서울숲 입구. 로고가 물든 나무로 배경으로 한껏 돋보인다.



▲ 마치 외국의 국립공원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산책로



▲ 노티나무에 앉아 있는 까치, 새들로부터 자신의 보호하기 위한 나무의 방어기작이 작동하는 상태이다.



▲ 오색의 비단을 덮어 놓은 듯한 낙엽이 공원의 표면을 덮어 놓았다.



▲ 공원관리사무소 앞에 식재된 대왕참나무. 같은 종임에도 물드는 색깔은 다르다.

를 허순부터 잎 세포 층에서 발생되어 식물 내·외부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증가한다. 안토시아닌은 당(Sugar)이 분해되면서 밝은 색을 띤다. 당이 분해되는 동안에 색깔은 밝아지고, 안토시아닌 물질의 복제가 점점 늘어나면서 색깔이 더욱 밝아진다. 안토시아닌은 온대지역의 나무종에서 약 10% 존재한다. 활엽수 중의 진한 오렌지색, 불타는 적색, 청동색 등의 색은 안토시아닌과 카로티노이드의 작용이 결합해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이루는 것이다. 나뭇잎의 갈색은 세포의 물질이 아닌 세포벽 자체의 색깔이다. 색깔을 나타내는 물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뭇잎 색깔의 변화는 곤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작이다.”

단풍,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매년 가을이면 나무는 잎을 떨구어 내는 낙엽수의 역할을 한다. 사실 이것은 나무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투자하는 개념과 같다. 즉, 겨울에는 낮은 광합성과 기온으로 광합성으로 얻는 물질보다 잎을 떨구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곤충, 수분손실, 바람과 강설로부터의 피해 등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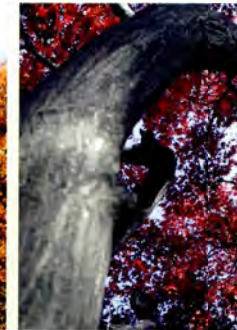
낙엽에서 생성되는 세포물질의 역할들에 대한 가설은 두 가지로 나뉜다. 동물과의 상호작용과 비생물학적 요인으로부터의 보호하는 것이다. 광보호작용(Photoprotection)에 의해 안토시아닌은 저온으로부터 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안토시아닌과 함께 잎을 보호함으로써 나무는 영양분(질소)을 효율적으로 재흡수 하게끔 한다. 공진화(Coevolution)는 다른 종의 유전적 변화에 맞대응해 일어나는 한 종의 유전적 변화를 말한다. 단풍이 드는 것도 다른 동물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공진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색깔의 변화는 월동을 위해 나무를 기주로 사용하는 곤충에게 경고하는 의미의 신호이다. 붉은 색깔로 변해 곤충들을 위협하고 나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과 나무로 예를 들 수 있다. 가을에 붉은색 잎이 적은 야생종과 달리, 재배종의 사과나무가 해충으로부터 덜 피해를 입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새들에게 공격당하는 베리류 등은 잎의 색깔을 베리 열매처럼 밝은 붉은색으로 변해 종자를 보호하기도 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식물과 관련해 한국의 색을 찾는 연구를 진행중이다. 대표적인 활엽수대에 속하는 한국은 이런 가을의 색도 한 몫 하지 않을까. 색이라는 단어가 태어나기 이전에 색을 만들어 온 자연을 분석이 아닌 감상하는 자세도 필요할지 모른다.



가을 색의 향연, 서울숲 단풍 Best 11



노티나무
Zelkova serrata



단풍나무
Acer palmatum



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Munchh



메타스콰이어
Metasequoia glyptostroboides



백목련나무
Magnolia denudata Desr.



복자기나무
Acer triflorum



산딸나무
Acer triflorum



신사나무
Crataegus pinnatifida



스트로브나무
Pinus strobus L.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참나무
Aesculus turbinata

외관과 실용성 추구

가든베드형 후글컬처

글 정승환 기자 자료협조 블로거 폴라베어 (<http://jin77s.blog.me>)

동유럽에서 시작한 후글컬처(hugelkultur)는 통나무나 나뭇가지 등을 쌓아 흙을 덮는 것으로 간단한 베드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호에도 소개했지만 나무라는 소재가 흙의 양분이 되는 기본 바탕이 되고, 물을 보유하는 스펀지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자신의 정원의 규모에 맞게 외관상 좋은 개량형 후글컬처도 성행하고 있다.

Tip

후글컬처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나무

아까시나무

호두나무

향나무

블랙체리



▲ 베드 주위에 자연석을 깔아 통로를 만드니 관리하기 좋게 했다.



▲ 마차바퀴를 이용한 후글컬처 베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 포도 재배를 위한 T자형 지주대와 경계선의 벽돌이 눈에 띈다.



▲ S자형의 후글컬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준다.

19년째 호수에 거주하고 있는 블로거 폴라베어(넉네임)는 후글컬처로 가드닝 하는 한국인이다. 그는 일을 마치고 정원에서 가드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불가능, 손이 적게 가는 방식의 가든 베드를 찾고 있었다. 쌍둥이와 4개월 된 아기의 아빠인 그는 직접 채소를 키워 식구들과 건강한 식단을 만들고 싶은 키친가든에 대한 욕구도 컸다. 하지만 호수에서는 채소를 키울 때 들어가는 퇴비를 비롯한 기타 자재들의 값은 비싼 편이다. 게다가 땅도 척박해서 20cm만 파도 붉은 점토층이 나온다고 한다. 그가 기름진 땅, 즉 정원의 베드를 만들기 위해 유럽에서 성행하는 후글컬처를 선택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다.

개량형, 자기 정원의 규모에 맞게 구성

하지만 기본적인 후글컬처를 만들기 위한 규격은 높이가 보통 1.8m이상(본지 11월호)으로 하고 있다. 높은 베드는 나무가 썩으면 베드 자체가 낮아지긴 하지만 소규모 정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심플한 정원을 구성하기 위해 가든베드형 컨테이너가 성행하는 이유이다. 기본적인 후글컬처에서 개량된 것으로, 외관적으로 깔끔한 것이 최근에 가드너들이 추구하는 형태이다. 나무로 규격을 짠 것 외에도 벽

돌이나 기타 자연석 등으로 경계선을 두르고, 허브류나 초화류 등을 심어 놓은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폴라베어는 “후글컬처가 관수가 필요 없는 방법이지만 넣어야 할 나무 양이 적으면 물은 적당히 줘야 하고, 많이 갈수록 들어가는 물의 양이 적다”고 설명했다. 관수 양만 조절하면 정원의 규모에 맞는 높이와 폭을 구성하면 된다는 말이다.

일반베드보다 높은 환경 조성

물론 베드 설치 장소가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이상적이다. 정원 있는 주택이 많은 호주라도 이런 장소에 자유로울 수 없다. 식물의 일조량 확보에 불리한 장소라도 환경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면 된다. 보통 청경채, 루콜라, 시금치, 양파 등은 반그늘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이다. 후글컬처 베드에 관해 실험한 농가도 있다. 일반 텃밭과 후글컬처 베드에 비료, 관수 등 같은 조건하에서 작물의 생육상태를 비교했다고 한다. 그 결과, 토마토와 피망과 같은 가지과 작물들이 일반 텃밭베드보다 생육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글컬처로 재배한 작물 주변에 잡초가 적게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내에 검증이 안됐다고 하지만 보명 토양 개량효과나 물 보유력은 충분히 효율적인 것은 틀림없다. 자신의 텃밭에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법하다.



“후글컬처 베드의 천연부패 소재는 식물이 생육을 촉진하도록 지온을 높인다. 나무가 썩음에 따라 천천히 영양분을 제공하고, 다량의 물을 보유한다.”

▼ 블로거 폴라베어의 정원, 가운데 세 개의 나무 컨테이너에 후글컬처를 만드는 중이다. 왼쪽 편에는 포도나무의 덩굴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대가 보인다.



▼ 일반 텃밭 베드와 비교해 봤을 때 후글컬처 베드(우측)에서 재배되는 작물 주위에 잡초가 현저하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Step by Step

플라베어의 개량형 후글컬쳐



Step1. 베드의 틀을 나무로 짠다

정원의 규모를 고려해 베드는 가로2.5m, 폭 1.2m, 높이30cm, 깊이15cm의 규격으로 만들었다. 깊이는 나무를 채워놓을 만큼의 공간이면 된다. 나무를 채울 때 화학 처리된 나무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 보통 나무의 분해속도

가 느린 아까시나무, 호두나무와 송진이 나오는 향나무 등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또 사과나무, 오리나무, 미루나무, 포플러나무 등이 잘 쓰이는 소재이다. 우드칩을 위에 덮고, 상토를 25cm까지 채워 놓는다.

Step2. 점적 관수 시스템 설치

채운 흙 위에 지렁이 분변토를 3:1 정도로 섞어 넣었다고 한다. 깊이 15cm의 작은 베드는 나무가 적게 들어가는 단점은 물을 공급할 장치를 설치해 보완한다. 관수시설은 일명 드립파이프로 점적파이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4만원부터 18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

다. 파이프를 사진과 같이 돌려 배치하고 핀으로 고정하면 베드 전체에 균일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자동관수라 물 공급의 시간 간격을 맞출 수 있다.



Step3. 다양한 채소를 심어보자

호주는 남반구라 현재 여름의 시작이다. 유기농을 추구하는 플라베어는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음식찌꺼기에 포함된 채소 씨앗들이 자란다고 한다. 이런 모종은 특별히

숙아내지 않는 그는 토마토, 파프리카, 애호박, 버터컵 호박(단호박), 오이 등을 심었다고 한다. 겨울부터는 상추, 근대, 쑥갓 등의 한국 채소를 주로 재배해 볼 생각이라고 한다.



커뮤니티 정원용 가든 센터 가든조아

1만여평 정원 안에 조성된 정원용품 전시, 판매, 정원 체험의 공간. 정원 도구에서 정원 가구, 인테리어 소품까지 선진 가든라이프스타일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696번지
Tel. 031-712-7001

Q&A

Your questions

숯은 식초물에 담가 미네랄 성분을 제거해 주세요.

Q. 숯에다 풍란을 키우고 있는데 자꾸 뿌리가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A. 순수한 숯의 주성분은 탄소가 95% 이상의 탄소와 각종 미네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가는 구멍이 수없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습성이 강하고 통기성이 좋으며 표면적이 넓어 비료의 흡착성이 좋습니다. 농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난을 재배하고자 할 때는 숯에 들어 있는 미네랄 성분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아마도 그러질 않은 것 같습니다. 미네랄 성분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물을 줄 때마다 숯에 들어 있는 각종 미네랄 성분이 표면으로 빠져나옵니다. 결국 숯 표면이 염의 농도가 축적되어 하얀색을 띠며 뿌리가 말라 죽게 됩니다. 물 20에 식초 80cc 정도 희석한 물에 약 3일 정도 숯을 담궈 미네랄을 빼 주시고 흐르는 물에 다시 하루정도 담그었다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담그었던 식초물은 약간의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비료농축액입니다. 5배 정도의 물을 희석하여 화분에 뿌려주면 훌륭한 거름물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난을 충분히 재워주세요.

Q. 가정에서는 난에 꽃이 피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가정에서는 11~12월에 난을 잘 관리해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난이 잠을 자는 시기이므로 충분히 잠을 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오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주고, 오후에는 강한 햇빛을 받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를 너무 높게 관리하거나 광량이 많아지면 양분 축적이 적어지고 너무 웃자라게 되어 화아분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휴면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밀폐된 곳에서는 문을 열어 10~15℃가 되도록 온도를 관리해 주고, 물주는 가급적 줄여주세요. 물을 줄 때는 2~3일 받아 놓았다가 10~15일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는 월 1회 정도 질소비료가 들어 있지 않은 물비료를 주면 개화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세베리아는 건조하고 높은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Q. 산세베리아 밑 부분이 물러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A. 산세베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건조한 환경에 잘 견디도록 두꺼운 잎에 수분과 영양을 저장하고 있는 다육식물입니다. 강한 직사광선만 피하면 그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여름에는 월 2회 정도, 겨울에는 월 1회 정도 물만 주면 됩니다. 추위에 매우 약하므로 20℃ 이상으로 온도를 높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물을 과다하게 준 것 같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자주 주게 되면 밑부분이 썩어 흐물흐물 녹아내리게 됩니다. 산세베리아는 물을 자주 주지 않는 것과 강한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한 온도를 높게 유지해 주는 것이 재배 포인트입니다.





안완식
농학박사 씨드립
상임대표



김광두
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 소장



윤평섭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이종석
서울여대 명예교수



김귀순
(주) 그린메이커 대표



김영재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이정식
전 서울시립대
환경임예학과 교수

Your questions



토마토 진딧물에는 담배꽂초물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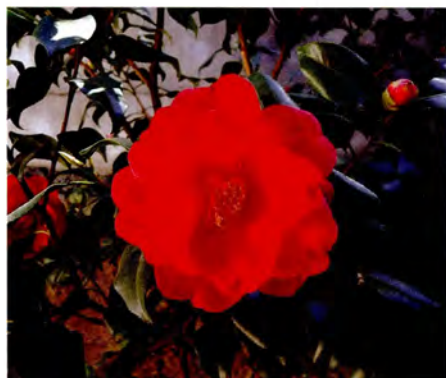
Q. 베란다에 키우는 방울토마토 순에 진딧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토마토나 고추, 가지와 식물로 진딧물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담배꽂초를 주어가 약 10일 정도 물에 담고 놓으면 황금색의 물이 우려날 것입니다. 우려나온 물에다 같은 양의 맑은 물을 희석하여 스프레이 해 주거나 가까운 씨앗 판매장에 가서 목초액을 구입하여 물 4ℓ에 목초액 10cc를 희석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잎에 뿌려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목초액은 말 그대로 초산액으로 신맛이 강하여 진딧물 표면에 있는 수분을 과다하게 빼앗아 기능을 마비시켜 활동을 억제시켜 주어 밀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뿌려주면 진딧물이 탈피를 못하게 되어 결국은 모두 죽게 됩니다. 대신 수확한 토마토가 약간 신맛이 나는 것은 감수하세요.

관음죽이나 동백은 겨울 베란다에서도 잘 자랍니다.

Q. 한겨울에도 베란다에서 관엽식물을 키울 수 있나요.

A.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음죽이나 동백나무는 온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파키라 벤자민 홍콩야자 몬스테라 겐차야자 고무나무 향수목 등은 반드시 15℃ 이상으로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주고 물주는 식물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점도 유념에 두시길 바랍니다. 물주는 주기는 화분 위의 흙을 만져 마른 정도가 느껴지면 관수하면 됩니다. 가끔씩 공중 습도를 높게 관리하세요.



고여 있는 물에 햇빛을 받으면 돋보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Q. 1년 전 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잘 자라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아랫부분이 검정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썩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또한 잎을 속아주려면 언제 해주어야 하나요?

A. 일종의 연부병입니다. 난의 밑부분은 생장점이 있는 부분으로 매우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여기에 물을 주면 그 연한 부분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 뜨거운 햇빛을 쏘이면 돋보기 현상에 의해 물방울이 뜨거워지고 이 뜨거운 물방울에 의해 연한 생장점이 익어버리면서 마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물을 준 후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고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 물기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분갈이나 분나누기 적정 시기는 춘분 전 후 15일이 가장 좋으며 불가피 할 경우 추분 전 후 15일도 괜찮습니다. 분나누기의 시기는 3년 정도에 한번 하는데 주로 난분 테두리까지 번식을 했을 때나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해줍니다. 테두리까지 번지면 다음해에 새 측이 나오는데 난분 테두리에 끼어서 기형적으로 돌아나게 되거나 난석이 오래되면 상성화 되어 난이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울 때 새로운 난분과 난석으로 교체해서 분나누거나 분갈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집 크기에 상관없이 화분은 많아도 좋습니다.

Q. 저는 2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이 많습디다. 실내에 화분이 많으면 인체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몇 개의 화분 정도가 괜찮을까요.

A.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가정에서는 화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화분이 많을수록 공기정화가 잘 되며 습도조절이 용이하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식물은 사람과 달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는데 그 양이 미세하여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쪽에 보조광이나 거울을 설치하세요

Q. 베란다 정원의 식물이 자주 한쪽방향으로만 자라는데 어떻게 하죠?

A. 빛의 차이인데요. 빛을 많이 받는 쪽이 생장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화분의 식물이라면 정기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어 햇빛을 골고루 받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 베란다 정원에 고정되어 식재된 식물이라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보조광을 설치하면 되고, 보조광 설치가 어려우면 빛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에 거울과 같은 반사판을 설치해 빛을 보충하면 됩니다.

오스모코트는 공기름으로 만든 친환경 성장 비료입니다.

Q. 화분에 오스모코트를 주라고 하는데 어떤 성분입니까.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A. 오스모코트란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기타 미량의 원소를 작물이 흡수하기 좋은 상태로 킬레이트화 시킨 식물의 성장 비료입니다. 순식물성 공기름으로 반코팅시켜 만든 친환경 비료이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지효성 비료입니다. 수분 증기가 입자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영양소를 녹여 뿌리에 양분을 공급시켜 줍니다. 오랜 기간 영양소의 용출 및 미생물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육묘부터 성장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종묘상에서 50g부터 500g까지 100g 단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줄 때마다 아니면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 양분이 용출되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사용량은 난화분 위에 20~30알 정도 올려놓아 주면 됩니다.

우리씨드 박공영 회장 농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제1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씨드 박공영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달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박 회장은 조경녹화와 관련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조경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박 회장은 그동안 우리꽃 운영을 통해 야생화 신품종을 육성 보급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상록잔디패랭이를 시작으로 코레옵시스, 패랭이속 신품종 등을 비롯한 32개 품종을 등록했으며, 현재 21개 품종을 품종보호출원중에 있다. 그는 또 이러한 신품종을 해외에 수출, 7개 품종이 일본과 네덜란드 등지에 로열티 수출중이다. 2010년부터 코레옵시스 우리드림 시리즈의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패랭이 디자인투리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1만8000불의 로열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 회장은 또한 품종 개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켰고, 수입대체효과도 가져왔다. 박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국내 야생화 시장의 잠재력은 크다. 보다 더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통해 국내 조경 산업 발전에 일조하겠다”며 “꾸준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화훼 수출국으로 전환 발전시키는 데에도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화훼대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2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내 꽃전시관에서 '2013 대한민국 화훼대전'을 열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화훼대전은 전국 화훼인들이 한 해 동안 생산한 꽃과, 꽃으로 만든 작품을 모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평가받는 행사였다.

농진청, 김치종합양념소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맛있는 김치를 손쉽게 담가 먹을 수 있는 김치종합양념소'를 개발해 관심을 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특허출원한 김치종합양념소는 재료의 낭비는 줄이고 담금 시간은 절약하면서 좀더 과학적인 김치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이다. 배추김치, 갓김치, 총각김치 등 김치 종류별로 들어가는 양념소 레시피로, 배추나 무 등 주재료의 양에 맞춰 고춧가루, 마늘, 생강, 찹쌀 등의 양념양을 표준화해 배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김장시 사용되는 절임배추 50kg의 경우 고춧가루 2.25kg, 마늘 1kg, 생강 500g, 찹쌀풀 4.25kg, 갓갈 2.5kg, 깨 250g, 설탕 250g을 섞으면 과학적인 김치맛을 내는 양념소가 된다. 배추김치에 첨가하는 부재료는 약 10kg, 즉 무, 갓, 미나리, 쪽파, 청각 등은 절임배추 무게의 20 %이하로 준비하면 된다. 농진청은 김치종합양념소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냉장·냉동 보관한 뒤 필요할 때 적량씩 꺼내 이용하면 김치 담그는데 들어가는 재료와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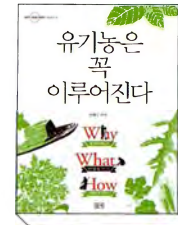


Books 이달의 추천도서

유기농, 인류가 선택해야 할 마지막 보루

유기농은 꼭 이루어진다

정대이 지음 | 들녘 | 13,000원



친환경, 유기농, 오가닉(organic), 언젠부터인가 우리 주위를 둘러싼 단어들이다. 가족의 축복과, 왕거, 계분, 한방찌꺼기 등을 섞어 친환경 퇴비와 액비를 만들고, 응애, 진딧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적을 풀어놓는다. 또 수정을 위해 수정벌을 사용하는 등 하나의 완성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과 노력,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묻는다.

“왜 유기농으로 지으세요?”

최근 뉴스보도에서 현재 몇몇 지역에서 친환경 인증으로 재배되는 것들이 행정기관의 건수 채우기라는 목표로 친환경으로 재배하지 않는 농가도 인증을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왜 우리가 유기농을 해야 하는 의식의 부재로 낯은 결과이다. 2000년대에 유기농을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인취급을 받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이 대두되면서 유기농은 이제 보편적이고,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가치가 높아지는 농사의 형태지만 그만큼 힘든 것이 문제다. 한때 전통농업으로 돌아가자는 말들도 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유기농에 근접한 농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벌목과 화전으로 토양의 침식을 갖고 오는 농업은 사실 유기농업과는 먼 것이라 한다. 이 책은 이런 유기농업의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책장을 넘기면서 저자는 끊임없이 질문한다. ‘왜 유기농을 해야 하는가’. 저자 정대이씨는 “19세기 말에 인구가 16억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4배다. 인류가 식량을 위해 브라질의 아마존을 경작지로 만들고 있다. 배고

픔에 견디지 못한 브라질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열대우림이 무너지면서 며칠씩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등의 이상기상징후가 보이고 있다. 자연의 파괴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닌 자연과 공존하는 농업, 유기농업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기농은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 바로 시작해야.”

“왜(why)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렇다고 유기농의 당위성에 목매어 갈구하지는 않는다. 전반부에 유기농업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와 가치 등을 이야기 한다면, 중반부터는 저자는 토양의 비옥화, 작물의 양분, 농비의 이해, 유기농으로 병해충과 잡초를 관리, 축산 등 무엇(What)을 갖고 시작하고 실행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어떻게(How) 해야 할 것인가’에서는 유기농을 하면서의 경제적 성과와 유기농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 유통망 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성공적인 7명의 유기농재배 농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이 책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유기농의 근본적인 문제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저자가 추구하는 친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은 그의 직업과 연관이 있다. 현재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의 팀장으로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IFOM(세계유기농운동연맹)의 유기농지도전문가 한국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그도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는 것이다. 왜 유기농을 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이 책은 귀농을 준비하고, 예비유기농전환을 목표로 하는 농가, 유기농을 추구하는 주말농부들에게 유기농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북돋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파워블로거의 북카페



도시농부 올빼미의 텃밭가이드-발판들기 편
유다정 지음

텃밭을 가꾸려는 가드너가 있다면 반드시 읽어보라고 한다. 도시농부 11년차이면서 파워블로거 올빼미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채소 텃밭가꾸기의 상세한 설명이 주목할 만하다. 5평으로 50평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한랭사, 비닐하우스 천연농약 만들기 등 내가 먹는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시골생활, 가격 13,500원



케럼이란 집에서 쉽게 허브키우기
오하나 지음

이름보다 케럼이라는 넉네임이 유명한 파워블로거, 본지 배란다 정원관리도 집필하고 있다. 일반적인 허브뿐 아니라 채소라고 생각하는 허브들까지... 허브를 잘 키울 수 있는 저자만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다. 책을 읽고 나면 허브를 사서 바로 키워보고 싶은 충동도 느껴진다. 허브를 이용한 허브차, 요리 등도 수록되어 있다. 서교출판사 가격 16,000원



내 손으로 꾸미는 전원주택 정원만들기

이광만, 소경자 | 이비락 | 40,000원

누구나 한번쯤은 전원생활을 꿈꿔봤을 것이다. 귀농 귀촌이 대세인 요즘 '자신의 정원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가 큰 고민일 것이다. 특히 정원을 꾸미고 싶은 사람에게는 욕심이 많다. 사계절을 느끼고 싶은 정원, 겨울에도 녹색정원이 있었으면 좋다는 등, 만들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이 책은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딱 한가지를 제시한다. '기본 콘셉트를 잡아라'

우선 지형을 정한 후, 나무를 심을 것인지 조경수목류를 선택, 그다음 배식하고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심볼트리(가장 큰 역할을 한다).

단순히 멋진 정원을 꾸민다는 것은 과욕이다. 그래서 나무와 정원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하고 있다. 단순한 기르기법과 전정법이 아닌 상록활엽수, 침엽수, 낙엽활엽수, 덩굴식물, 대나무류 등 정원에서 즐기는 자연의 즐거움을 만끽이 가능한 정원수의 자세한 해설이 돋보인다. 그리고 관상수 뿐 아닌 꽃나무와 과일류 구분되어 전체 네 개의 파트로 구분되었다. 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구성되어 읽기 편하다.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카페 나무와 문화연구소에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내 식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데이비드 디어도르프 | 김영사 | 20,000원

식물을 좋아한다. 아니 사랑한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식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듯 내 집 정원에 있는 스칸디나비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진정한 내 식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가드너들은 묻는다.

'제가 키우는 식물이 왜 이렇죠?', '농약 안쓰고 식물을 낫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전문가에게 식물을 들고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집 근처 아무데나 찾아갈만한 식물 병원 은 그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런 소소한 문제를 가르쳐주기엔 전문가들도 시간이 부족 치 않다. 이 책은 그런 가드너를 위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단순히 병의 문제, 치료라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지 않았다. 책의 3/1은 식물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흐름도를 작성한다. '잎일부가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질문을 Yes 또는 No로 선택하게 된다. Yes라면 가지 처음에 가지에 난 잎이 완전히 노랗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Yes와 No를 확인하다 보면 책 후반부에 이것을 해결하는 솔루션과 유기농 방제법을 제공한다. 병해충기술서인 듯 보이지만 재미있게 삽화와 그림을 섞어 독자가 지치지 않고 읽기에는 충분하다.



마당이 없어도 좋아 도시농부채소밭

그린홈 편집부 | Green house | 15,000원

흙이 부족한 도시에 어떻게 채소를 재배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식의 도시농업이 있었지만 이 책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채소밭을 꾸미고 싶은 이에게 재배기술을 제공한다.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 채소마다 어떤 용기를 사용해야 할지가 흥미를 돋운다. 그래서 초반부에 컨테이너의 다양한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만 읽으면 어떤 채소도 화분에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일본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구하기 어려운 채소종자가 있다는 것. 작물별 단계적으로 재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편집하고 있어 독자들로부터 읽기 편하게 되어 있다. 번역은 현재 푸르네 정원문화센터장이고 월간 가드닝 편집장인 김현정씨가 했다.

기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을 제공

정기 구독자에게 테르메덴 무료이용권 2매(10만원 상당)증정

문의전화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가든 인 라이프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된 독자들은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Gardenin 50% 할인권
월간<가든인> 정기구독 이벤트 [기간] 2013. 12. 1 ~ 2014. 1. 31

Gardenin December 2013

정성껏 만든 이번 달 <가든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기사 등 유익이든지 적어 <가든인>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채택된 기사의 주인공께는 가든인도구 선물을 보내드리며, 그 결과는 다음 달 'Gardening Reader' 코너를 통해 발표됩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월간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voice!

▶ 애독자 양식을 발송하시면 사연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된 가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6.6% OFF

정기구독 안내

가든인 1년 정기구독시 2만원 SALE
정상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사은품 테르메덴 무료이용권 2매 (10만원 상당)

무통장입금 예금주: 벽화수(주)

농협 355-0023-7618-13

(입금 후 반드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문의 031-712-7009

16.6% OFF

Garden in
정기구독
1년(12권) 10만원(정가 12만원)

신청하시는 분

이름	성별 (남, 여)
이메일	직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 유효한 우편 발송을 위해 정확한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애독자 양식을 발송하시면 사연 채택 및 선물 배송과 관련된 가인 정보 수집,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 입금 (농협) 355-0023-7618-13

예금주 벽화수(주)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 031)712-7009

테르메덴 50% 할인권

이용 안내

- 본 이용권은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 (사우나 이용 제외)
- 본 이용권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은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품으로 판매 및 영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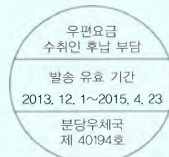
AK레저(주)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031)712-70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남, 여)
주소	
전화번호	직업
	나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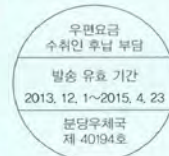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남, 여)
주소	
전화번호	직업
	나이

□□□-□□□



Garden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가든인

4 6 3 - 8 2 5

월간 Gardenin 12월 호

발행 박화수(주)

발행인 김영재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박공영 우리꽃 대표 / 이학박사

전문위원 김광두 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 대표

김귀순 前 그린메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우정아 경기조경가든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

윤명섭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황환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편집장 소순복 goll108@hanmail.net

취재기자 정승환 saintlylove@hanmail.net

강은지 lxxbeam@naver.com

객원기자 김지태 jtsummer@gmail.com

황주리 jurie777@nolmail.com

편집 김세복 bomad@naver.com

인쇄 부광프린팅(주)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전화 031-712-7009, 070-4811-2505~6

팩스 070-4811-2518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정원 연출 기법과 식물 선택 노하우의 모든 것

우리꽃이 제안하는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 테마가 시작됩니다.

계절별 변화하는 살아있는 자연이 다가옵니다.

유럽식 정원, 이제 한국의 집과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발간 10개월 만에 완판, 초판 발행 5쇄의 베스트셀러
- 교과서적 식물도감과는 다른 현장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정보와 울 컬러 사진 제공
- 혼성 혼합식재, ARI Garden, E&P(생태연못), 벽면녹화, 조경용 지피식물의 적용과 관리(A-Z)
- 현장 적용된 정원 연출 사례 제시 및 각 적용 식물의 특성 비교
-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꽃이 피는 혼성 혼합 식재의 비법 공개
-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연중 테마 정원 ARI Garden
- 1000여종 식물의 습성과 특성, 식재법을 울 컬러로 제공



가든인 독자 특별 할인가
20,000원 (정가 32,000원)



우리꽃 031)634-7990 / 가든조아 031)712-7009

테르메덴 50% 특별할인권
유효기간 : 2014년 1월 31일까지
1명 4인 사용가능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자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대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먼저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